



HOMO MIGRANS

Vol.15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2016

NOV.

Homo Migrant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Vol.15 (Nov. 2016)

이주사학회 운영진

회장 김용우(교원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용일(대구교대)
학술이사 김유정(한국외대)
권윤경(서울여대)
나혜심(성균관대)
마은지(송실대)
재정이사 문종현(한양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오영인(성균관대)
편집위원 고유경(원광대)
김정욱(인천대)
신동규(창원대)
양재혁(성균관대)
이경일(경성대)
이선희(충북대)
이찬행(성균관대)
정용숙(대구대)
홍용진(고려대)

주소 706-71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이용일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 053-620-1325

홈페이지 <http://www.homomigrans.com>

이메일 homomigrans@gmail.com

편집위원회 전용 이메일 homomigransed@gmail.com

회비 10만원

납부계좌번호 국민은행 781402 04 104469 문종현(이주사학회)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15호(2016년 11월)

발행일 2016년 11월 30일

지은이 이주사학회

펴낸곳 이주사학회

주소 706-71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이용일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 053-620-1325

이메일 homomigrans@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omomigrans.com>

ISSN 2093-3061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2016년 11월
ISSN: 2093-3061

<특집: 식민주의와 디아스포라>

영 제국정책 논쟁과 대서양 노예무역의 폐지: C. L. 라운의 『도덕자본』(Moral Capital)을 중심으로 ————— 윤영휘	05
유색인 여성들과 아이티혁명기 자유의 여정 : 이사벨 아옌테의 소설 『바다 밑의 섬』을 통해서 — 권윤경	24
C. L. R. 제임스와 카리브의 탈식민화 ————— 하영준	51

<일반논문>

배제의 논리로서 ‘인종주의’의 역사적 기원: 고대세계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와 노예의 조건에 대한 인식 ————— 신동규	79
케네디 동화주의의 양면성과 1965년 개정 이민법의 한계 — 임현식	99

<서평>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 광차섭 역, 『책략가의 여행: 여러 세계를 넘나든 한 16세기 무슬림의 삶』, 푸른역사, 2010. ————— 신원민	135
Antoine Sabbagh, <i>Lettre de Drancy</i> , Paris, Seuil, 2002. — 김경민	142

<연구회 회보>	150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153
< 『호모 미그란스』 투고 규정>	156
< 『호모 미그란스』 편집 규정>	160

이주사학회

Homo Migrants-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Nov. 2016
ISSN: 2093-3061

<Special: Colonialism and Diaspora>

The Debate on the British Imperial Policy and the Abolition of the Atlantic Slave Trade, Focusing on C. L Brown's <i>Moral Capital</i> — Yoon, Young Hwi	05
Isabel Allende's <i>Island Beneath the Sea</i> and Woman of Color's Journey for Liberty at the time of Haitian Revolution ————— Kwon , Yun Kyoung	24
C. L. R. James and the Postcolonial Politics in the Caribbean — Ha, Young-jun	51

<Article>

Historical origins of the Racism as a logic of exclusion: Difference of Cultural identity in antiquity and Perception of Slaves Conditions ————— Shin, Dongkyu	79
Ambilaterality of Kennedy's New Assimilation and Limit of 1965 Immigration Act ————— Lim, Hyunsik	99

<Book Reviews>

Natalie Zemon Davis, <i>Trickster Travels: A Sixteenth-Century Muslim Between Worlds</i> , New York, Hill and Wang, 2006 ————— Shin, Won Min	135
Antoine Sabbagh, <i>Lettres de Drancy</i> , Paris, Seuil, 2002 — Kim, Geoungmin	142

<Bulletin>	150
<Ethic Rules>	153
<Contribution Rules>	156
<Editing Rules>	160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tory

Homo Migrans

“이제 전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함께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의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의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특집 ■

영 제국정책 논쟁과 대서양 노예무역의 폐지:
C. L. 브라운의 『도덕자본』 (Moral Capital)을 중심으로

윤영휘

I. 서론

근대 대서양 노예무역은 ‘식민주의와 디아스포라’라는 서양 근대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와 관련 깊은 역사적 사건이다. 근대 이후 대서양 세계에 대규모 디아스포라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의해 행해진 노예무역이었다. 이들 유럽 국가들이 16-19세기에 얼마만큼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대서양 반대편 지역으로 이동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부분하나, 최근 데이비드 엘티스(David Eltis)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노예무역을 통한 부자유 노동력의 이주의 흐름을 큰 틀에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에 따르면 1514년부터 1866년 사이의 기간 동안 약 1,060만 명 이상의 흑인 노예들이 대서양 반대편을 향해 팔려갔다. 흑인 노예들의 승선지는 지금의 세네갈, 감비아, 베냉, 기니, 골든 코스트 등 서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의 매매는 18세기 전반(약 230만 명), 18세기 후반(약 350만 명), 19세기 초반(약 325만 명)의 시기에 최고조에 달했다. 엘티스는 또한 아메리카에 실제로 도달한 노예들의 수에 대한 통계도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아프리카를 떠난 흑인들 중 약 870만 명이 아메리카 및 유럽과 아프리카에 하선하였으며, 그들의 하선지는 북아메리카(300만), 스페인령 아메리카(약 526만), 서인도제도(약 435만), 브라질(약 320만)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엘티스 외에 허버트 클레인(Herbert S. Klein), 스텐리 엥거먼(Stanley L. Engerman), 시모어 드

레서(Seymour Dresher), 로저 안스티(Roger Anstey) 등이 부분적으로 제시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의 기간 동안 약 1천만 명에 가까운 흑인들이 아프리카 서해안을 떠나 서인도제도, 브라질, 북아메리카 등의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중 약 18% 이상의 노예가 승선 과정, 항해 중간, 하역 과정에서 죽었다고 보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¹⁾

이 부자유 노동력의 대규모 이동에 대한 데이터는 우선은 대서양 노예무역의 역사적 중요성과 특이성을 부각시킨다. 인류 역사에 노예 및 농노와 같은 부자유 노동인구는 항상 존재해왔지만 1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상품화 해 판매한 사건은 분명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을 매매하는 대양 무역은 1천만 명 인구의 대륙 간 이동을 초래함으로써 대서양 세계의 인종 구성, 경제 구조, 정치 외교 관계 등에 근원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이주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서양 노예무역은 다양한 아프리카 인종이 아메리카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된 대규모 디아스포라 형성 사건이었다. 이러한 대서양 노예무역의 중요성은 반대로 그것을 폐지하려는 운동에도 독자적인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한다. 노예무역에 대한 반감 자체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자연스런 악감정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대서양 세계에 확산되고 정치사상으로 발전하여 부자유 노동력의 대륙 간 이동을 중단시키는 정치적 결과까지 낳게 되는 것은 대서양 노예무역의 시작 및 발전 과정만큼이나 인위적인 현상이었으며, 그것만큼이나 전례 없는 특별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 Herbert S. Klein, Stanley L. Engerman, Robin Haines, Ralph Shlomowitz, "Transoceanic Mortality: The Slave Trade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William and Mary Quarterly*, 58-1 (2001), 93-118; Seymour Dresher, *Econocide: British Slavery in the Era of Abolitio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0), pp. 25-32; Roger Anstey, *The Atlantic Slave Trade and British Abolition, 1760-1810* (London: Macmillan, 1975), pp. 3-37.

C. L. 브라운의 『도덕자본』(Moral Capital)을 중심으로

<표1> 아프리카 흑인 노예 승선 통계²⁾

	Africa										Other		Totals
	Senegambia	Serra Leone	Windward Coast	Windward Coast	Gold Coast	Bight of Benin	Bight of Biafra and Gulf of Guinea islands	West Central Africa and St. Helena	Southeast Africa and Indian Ocean islands	Other Africa	Asia & Africa		
1501-1550	28,997	0	0	0	0	0	2,513	983	0	1,852	0	33,565	
1551-1600	130,829	3,598	0	0	0	0	9,270	33,551	0	102,847	0	278,287	
1601-1650	57,740	98	0	0	1,081	9,936	25,270	258,304	0	67,823	0	418,432	
1651-1700	46,987	2,799	496	496	57,470	175,472	73,130	131,368	11,982	168,368	0	668,061	
1701-1750	88,144	10,818	20,275	20,275	259,787	571,232	137,223	498,236	8,685	628,725	0	2,216,987	
1751-1800	185,107	143,474	160,176	160,176	368,588	491,178	572,542	1,085,917	50,129	464,817	0	3,521,508	
1801-1850	74,435	83,948	21,490	21,490	58,042	288,405	290,213	1,385,112	321,179	754,766	400	3,258,812	
1851-1900	0	1,648	0	0	0	14,144	875	78,625	12,126	138,819	0	228,829	
Totals	603,447	246,334	202,437	202,437	744,528	1,538,387	1,119,836	3,465,094	404,081	2,318,137	498	10,617,751	

<표2> 아프리카 흑인 노예 하선 통계세 Ibid. 제1행의 지역명은 하선지 임.³⁾

	Europe	Mainland North America	Caribbean	Spanish Mainland Americas	Brazil	Africa	Other	Totals		
1501-1550	464		0	5,700		11,654	0	1,786	19,604	
1551-1600	188		0	24,946		160,035	1,155	319	216,484	
1601-1650	287		0	23,763		238,534	34,820	155	311,479	
1651-1700	2,275		10,081	362,417		31,854	78,790	2,346	9,994	497,757
1701-1750	3,476		115,149	978,190		45,552	586,735	274	43,312	1,772,688
1751-1800	1,039		124,128	1,992,525		13,169	739,867	2,548	31,722	2,904,998
1801-1850	0		56,803	807,296		26,134	1,739,995	123,420	19,180	2,772,828
1851-1900	0		1,844	159,883		0	7,900	16,277	0	185,904
Totals	7,729		308,005	4,354,720		526,932	3,189,262	145,339	149,755	8,681,742

두 번째로 대서양 노예무역의 확산과 폐지 과정은 ‘식민주의 및 제국정책’이라는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국의 경우 18세기 초·중반에는 서인도제도 식민지 관련 제국정책의 수립에 있어 노예무역 및 노예 농장제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다. 이 과정에는 유럽의 설탕 수요 증가로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이 지역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에릭 윌리엄스(Eric Williams), 셀윈 캐링턴(Selwyn Carrington), 월터 민친턴(Walter Minchinton) 등이 주장했던 ‘쇠퇴 이론’(Decline Theory)의 영향력이 현재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2) <http://www.slavevoyages.org/voyage/search> (검색일: 2016년 8월 8일). 제1행의 지역명은 승선지 임.

3) *Ibid.* 제1행의 지역명은 하선지 임.

는 어렵겠지만,⁴⁾ 그럼에도 그동안 대다수의 학자들은 19세기 초까지 대서양 노예무역의 수익률과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서인도제도의 경제적 가치가 여전히 높았다는 것에 큰 틀에서 동의해 왔다.⁵⁾ 그리고 이 지역을 두고 프랑스와 경쟁을 벌였던 영국으로서 서인도제도 식민지 보호와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간산업에 필요한 부자유 노동력의 공급은 식민정책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18세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북아메리카의 담배와 면화가 서인도제도의 사탕수수와 같은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산업들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서도 노예 농장제와 노예무역은 계속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경제사학자 로버트 포겔(Robert Fogel)은 이 새로운 작물들의 경제적 가치 증가로 인해 18세기 말 북아메리카 식민지, 특히 남부 지역에서 소규모 농장이 대규모 농장으로 재편되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이 노예제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⁶⁾ 이제 노예제는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생산 및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이 지역 식민정책 수립 과정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고려사항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것은 영국의 해외 식민정책에 영향을 끼쳤고 동시에 노예제도 또한 식민정책에 영향 받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렇게 부자유 노동력, 디아스포라, 식민정책이라는 근대사의

4) 노예무역 폐지 당시 이미 서인도제도의 사탕수수 산업이 쇠퇴하여 폐지가 크게 손해가 되지 않았다는 ‘쇠퇴이론’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elwyn Carrington, *The Sugar Industry and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1775-1810* (Gainesville, FL: University of Florida Press, 2002); Walter Minchinton, ‘Williams and Drescher,’ *Slavery and Abolition*, 4 (1983), pp. 81-105.

5) J. R. Ward, “The Profitability of Sugar Planting in the British West Indies, 1650-1834,” *Economic History Review*, 31 (1978), pp. 197-213; Patrick O’Brien, “European Economic Development: The Contribution of the Periphery,” *Economic History Review*, 35 (1982), pp. 1-18; Seymour Drescher, “The Decline Thesis of British Slavery since Economicide,” *Slavery and Abolition*, 7-1 (1986), pp. 3-24; Hugh Thomas, *The Slave Trade. The History of the Atlantic Slave Trade, 1440-1870* (New York: Simon & Schuster, 1998), pp. 494-495.

6) Robert Fogel, *Without Consent or Contract: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Slavery* (New York: W. W. Norton, 1989), p. 23.

중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대서양 노예무역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C. L. 브라운(Christopher Leslie Brown)의 『도덕자본: 영국 노예무역 폐지주의의 기원들』의 논지와 시사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⁷⁾ 이 책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우선 이 책은 18세기에 있었던 대규모 부자유 노동력의 공급과 중단이라는 사건을 식민주의와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도덕자본』은 위의 세 키워드들 중 디아스포라 자체를 다루는 책은 아니다. 그러나 노예무역이 대서양 세계에 흑인 노예의 대규모 이동을 초래하여 각지에 디아스포라 집단을 형성한 근본적 원인이었음을 고려하면, 그 확산과 폐지를 영국의 제국정책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시도 안에 이미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다수의 소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책은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부자유 노동이 확대된 과정 뿐 아니라 그 흐름이 중단되고 폐지되는 과정까지 설명하여 논의의 지평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사실 그 동안 노예무역 관련 주제에서 제국정책이 다뤄질 때는 후자가 전자를 어떻게 확대하고 고양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부자유 노동인구의 대륙 간 확산과정은 분명 식민주의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이 이러한 측면에 주목한 것은 일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브라운은 제국정책과 관련된 논쟁들이 노예무역을 활성화하는 과정 뿐 아니라 그것을 억제하고 결국 폐지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점에서 그 동안의 논의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인류역사에서 항상 있어왔고 근대에 이르러 신대륙에 대규모로 확산되어 되돌리기 힘든 흐름으로 여겨졌던 부자유 노동력의 강제 이주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새롭게 등장하고 정치적 폐지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반노예제 이데올로기의 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인도주의 혹은 경제적 동기 중 하나에 무게를 두고 설명하던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공한다. 그 새로운 접근법은

7) Christopher Leslie Brown, *Moral Capital: Foundation of British Abolitionism* (Chapel Hill: North Carolina University Press, 2006).

후술되겠지만 바로 ‘도덕자본’(Moral Capital)을 통한 설명이다. 이 책은 당시 사람들이 개인적 신념 및 가치에 충실하여 반노예제 운동에 헌신한 결과 갖게 된 도덕적 위신이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역할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접근법을 극복하려 시도한다. 그리고 반노예제적 주장을 함으로 보유하게 된 도덕자본을 영제국의 정책에 대해 상이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과정을 보임으로서, 당시 노예무역과 제국정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이념들을 연결하던 끈과 고리가 존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II. 내용 및 주제

1. 브라운의 중심 테제:

C. L. 브라운의 책, 『도덕자본』은 출판되면서부터 학계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저자인 브라운 교수는 이 책으로 Frederick Douglass Prize from the Gilder Lehrman Center at Yale University(2007), Morris D. Forkosch Prize from 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2006), James A. Rawley Prize from 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2006) 등의 저명한 상들을 수상했다. 브라운이 책 전반을 통해 추적하는 것은 바로 반노예제 사상의 기원과 그 발전과정이다. 그는 책의 제1장에서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부자유 노동력의 이주가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초기 퀘이커, 모라비안, 복음주의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1770년대 이전에 존재했던 반노예제 사상의 원형을 찾아보려 한다. 제2장에서는 7년 전쟁과 미국 독립혁명 직전의 국제 정치적 위기 국면 속에서 노예제 및 노예무역을 정치·도덕적 문제로 여겨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제3장에서는 영국 노예무역 폐지운동의 선구자 그랜빌 샤프(Granville Sharp)를 통해 노예제 이슈가 제국정책과 관련된 논의와 연결되는 과정이 논해진다. 이 책의 제4장과 5장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노예무역에 대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그것의 폐지가 유력한 해결책으로 부상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제6장에서는 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 이후 영국에서 국교회 출신 복음주의 정치인들이 노예무역 폐지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도덕자본을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의 전파와 제국의 위기 상황 타

개라는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이용하는 프로세스를 관찰하며, 제7장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퀘이커교도들이 반노예제 사상을 집단적 정체성의 중요 요소로 정립하는 과정과, 이들에게 영향 받아 토머스 클락슨(Thomas Clarkson), 제임스 램지(James Ramsay)와 같은 국교도 출신 복음주의 정치인들이 노예무역 폐지운동에서 ‘자유, 정의, 인간애’ 같은 덕목을 실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브라운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18세기 말에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사상이 등장하고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브라운이 제1장에서 주장했듯이 노예무역 폐지운동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 주제와 내재적 연관성이 있다. 즉, 1)어떻게 노예무역 및 노예제도에 호전적인 생각과 가치가 발전하게 되었는가, 2)이 사상이 어떻게 제국과 식민지 정책을 개혁하려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되었는가? 3)노예무역 폐지와 노예해방이 어떻게 이뤄지게 되었는가?⁸⁾ 브라운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세 번째 질문에 맞춰져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 책을 통해 노예무역에 대한 반감이 반노예제 사상으로 변화하여 실질적인 제국 및 식민지 정책을 개혁하는 행동으로 옮겨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브라운은 그 핵심이 미국 독립혁명기의 역사적 사건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독립혁명은 영국인들과 아메리카 식민지인들 사이에 영 제국 체제의 도덕적 권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미 노예무역 및 노예제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위기의 시간 동안 반노예제 대의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도덕적 입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식민지인들 뿐 아니라 많은 영국인들도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상대편의 부도덕함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의회들이 영 제국 시스템을 비판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용인하고 있는 대서양 노예무역을 비판하자, 제국정책의 지지자들은 북아메리카에서 행해지는 노예 농장제를 비판하여 그들의 위선적 면모를 공격할 수 있었다.⁹⁾ 이런 식으로, 노예무역 및 노예제에 대한 반감은 미국 독립혁명이 초래한 갈등과 긴장의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인 반

8) Brown, *Moral Capital*, p. 17.

9) *Ibid.*, pp. 371-372.

노예제 이데올로기로 변형되었다. 이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특정 시기에 노예제에 대한 반감을 좀 더 활발히 표현했고 그것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브라운 테제는 노예무역 폐지운동가들의 동기 문제에 대한 오랜 논쟁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처럼 이들이 노예무역 폐지운동에 참여한 동기를 박애주의나 물질적 이해관계의 측면 중 하나로 접근하지 않는다. 대신 미국 독립혁명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당시 눈에 쉽게 띄는 ‘악’인 노예제 및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덕적 위신을 얻을 수 있는 국면이 조성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반노예제 주장이 미국 독립혁명기와 그 후의 시기에 더 유용해”진 것이다.¹⁰⁾ 여기에서, 브라운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학자 존 케인(John Kane)의 ‘도덕자본’(Moral Capital) 개념을 차용해 노예무역 폐지주의자들의 동기를 설명한다. 케인은 도덕자본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차원의 도덕적 위신”으로 정의하였는데,¹¹⁾ 이는 도덕적 구별됨이 세속 사회에서 특정 행동을 촉진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권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정치적 목표는 도덕적 대의를 이루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도덕적 명분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게 도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초기 반노예제 운동을 이끌었던 퀘이커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공동체에서 노예소유주들을 추방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사회적 위신을 고양할 수 있었다. 당시 대표적인 반노예제 운동가였던 토마스 클락슨은 이 이타적인 사명에 자신의 삶을 헌신함으로써 도덕적 명성을 얻고 동시에 “아프리카인들의 자유를 위한 구원자”라는 세속적 명성 또한 획득할 수 있었다.¹²⁾ 브라운 테제는 운동가들이 반노예제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도덕적 신념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개인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보임으로서 그들이 도덕주의자이었는지, 위선자들이었는지에 대한 오랜

10) *Ibid.*, p. 458.

11) John Kane, *The Politics of Moral Capit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7.

12) Brown, *Moral Capital*, pp. 439-442.

논쟁의 틀을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

2. 브라운 테제의 시사점¹³⁾

브라운의 중심 테제는 노예무역 폐지운동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미국 독립혁명으로 대표되는 제국의 위기 상황의 중요성,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노예제도 및 노예무역에 반대하는 것이 도덕자본을 제공하는 상황의 형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노예무역 및 노예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제국정책을 둘러싼 당시 영국과 식민지인들의 치열한 논쟁과 연결되는 고리가 발견될 수 있다. 필자는 브라운이 시사한 이 연결고리의 실재를 제국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담론 분석을 통해 파악한 바 있으며, 이는 브라운 테제가 향후 노예제와 제국정책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방향에 끼친 잠재적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었다.

1770년대부터 영국 의회 안팎에서 노예무역 폐지운동을 주도한 영국의 복음주의운동가들의 수사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당시 노예제 및 노예무역을 공격하는 것이 개인 및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과정 뿐 아니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관철 하는데 유용한 담론적 무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국정책에 대한 상충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노예제 및 노예무역을 반대해야 할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기에 노예제에 반대하는 정치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감리교의 창시자로서 대서양 양안의 복음주의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서술들은 반노예제 담론이 제국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이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18세기 중반부터 노예들을 자신의 종교 공동체에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1774년에는 노예제를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팸플릿인 『노예제에 대한 고찰』(Thoughts upon Slavery)을 출판하기도 했던 웨슬리는 개인적으로는

13) 이 소 챕터의 주된 주장 및 내용은 필자의 다음 논문에서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 하였다. 「복음주의 노예무역 폐지론자들의 도덕자본(Moral Capital)과 종말론적 위기 의식」, 『영국연구』 28호 (2012), 139-143쪽.

제국정책에 대한 충실한 지지자이기도 했다. 웨슬리에게도 기독교 신자의 자유와 공동체 안에서의 평등과 같은 사상들이 중요했으며, 그 결과 그의 저술 곳곳에서는 신념의 자유, 인종·국적을 뛰어 넘는 평등과 같은, 식민지 독립파들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수사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1776년에 출판된 그의 「자유에 대한 고찰」(*Some Observations on Liberty*)에서 웨슬리는 식민지인들이 영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생득적 자유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권리의 근거를 식민지인들과 달리 전통적인 잉글랜드인의 자유 개념과 영국의 법체계에서 찾았다. 사실 웨슬리가 「자유에 대한 고찰」을 저술한 주목적은 식민지 내의 독립파를 공격하려는 것으로, 무엇보다 그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독립 요구”와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⁴⁾ 웨슬리가 보기에 전자에 대한 갈구는 이해할 측면이 있으나, 사실 식민지인들은 영국 법률에 따라 정치적 기본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그는 식민지인들의 독립 주장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요소인 영국의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으로 치부하였다.¹⁵⁾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한 조치로서 웨슬리는 식민지인들의 도덕적 위선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여기에 노예제에 대한 비판 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식민지인들은 영국 의회가 그들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신들이 “노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지만, 웨슬리가 보기에 그들은 자유를 남용하고 있었다.¹⁶⁾ 웨슬리는 실제 노예제에서는 “물건, 자유, 혹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식민지에 있는 수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지 결코 그들의 주인들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그는 아메리카인들이 “흑인들과 동일한 종류의 노예제를 겪고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모든 종류의 토지와 금전과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¹⁷⁾ 웨슬리가 보기에 더욱 큰 문제는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중노동

14) John Wesley, *Some Observations on Liberty: Occasioned by A Late Tract By John Wesley, M. A.* (London: Printed by R. Hawes, 1776), p. 5

15) *Ibid.*

16) *Ibid.*

17) *Ibid.*, p. 25.

을 강요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노예들의 외침에는 귀를 닫고 있는 것이었다.¹⁸⁾ 이런 상황 속에서 식민지인들이 자신들을 본국이 강제한 죄사슬 아래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것은 자기모순에 가까웠다. 웨슬리가 이 책에서 반노예제 담론을 설교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의 도덕적 위선과 구별되는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이었고, 이 도덕적 위선을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강화하는 데 전용할 수 있었다.

반노예제 담론은 제국 체제의 유지와 식민지 독립 사이에서 중간지대에 속했던 이들에게도 도덕적 ‘자본’을 제공하였다. 전직 노예선 선의이자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작가였던 제임스 램지(James Ramsay)는 당시 대다수의 영국인들처럼 독립을 주장하는 식민지인들의 위선적 면모에 분노하였지만, 웨슬리로 대표되는 제국정책의 지지자들과는 다르게 미국 독립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였다. 램지는 “북아메리카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었다”면서 이 새로운 시대 상황 속에서 영 제국의 나아갈 바를 재설정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¹⁹⁾

제국정책 재수립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램지가 택한 방식도 노예제 및 노예무역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는 노예무역을 식민지 독립 이후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 무역정책의 대표적인 예로서 비판하였다. 그는 미국 독립 이후에도 영국 상인들이 스페인을 포함한 잠재적 경쟁국들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노예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노예무역에 대한 지지를 철 지난 옛 정책을 고수하려는 아집으로 치부하였다.²⁰⁾ 램지는 제국정책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아프리카와의 자유 무역의 확대를 주장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도 노예제 및 노예무역을 공격하는 것이 유용한 수사가 될 수 있었다. 램지가 보기에 노예무역의 폐지는 “아프리카의 문명화”가 “영 제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

18) *Ibid.*

19) James Ramsay, *An Inquiry into the Effects of Putting a Stop to the African Slave Trade, and of Granting Liberty to the Slaves in the British Sugar Colonies; by the Author of the Essay on the Treatment and Conversion of African Slaves in the British Sugar Colonies* (London: Printed and sold by J. Phillips, 1784), pp. 12-13.

20) *Ibid.*, p. 21.

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도덕적 각성의 효과를 가진 치료 제였다.²¹⁾ 노예무역을 폐지시킴으로서 영국은 구식 무역 체제에서 벗어나 흑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영국 상품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 도덕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국 상업을 발달시킬”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었다.²²⁾ 노예무역에 대한 램지의 공격은 분명 그의 미래지향적인 제국정책에 도덕적 후광을 덧칠해 주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노예무역에 대한 공격은 제국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 노예무역 폐지운동의 선구자 그랜빌 샤프는 영국인으로서도 드물게 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을 지지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는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에 대해 영국 의회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영국 헌정과 법률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샤프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영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적 생득권에 의해 이 축복된 법률 체계의 한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²³⁾ 그리고 그는 “모든 권리들 중” 입법기관에 자유롭게 대표를 보내는 것을 “권력의 균형 혹은 혼합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 제시하였다.²⁴⁾ 그가 보기에 식민지인들은 이 불가침의 권리를 침범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본토 의회에 대한 저항은 비판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동시대의 복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샤프는 자신의 입장에 도덕적 위신을 더하기 위해 노예무역 비판 담론을 이용하였다. 샤프는 영국이 “매년 5만 명 이상의 불쌍한 아프리카인들을 공급”함으로써 “잔혹함과 억압과 불의로 인한 참화”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21) *Ibid.*, p. 22.

22) *Ibid.*, p. 19.

23) Granville Sharp, *A Declaration of the People's Natural Right to a Share in the Legislature; Which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British Constitution of State* (London: Printed for B. White, 1775), pp. i-ii.

24) *Ibid.*, p. 14.

노예무역을 “영국과 식민지의 죄악”이라고 주장하였다.²⁵⁾ 이를 통해 제국정책을 노예무역이 표상하고 있는 부도덕성과 연결할 수 있었다. 그는 웨슬리와 달리 아메리카에서 행해지는 노예 농장제를 식민지인들의 위선이 아닌 영 제국정책의 도덕적 흠결을 드러내는 예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의회는 “이 가장 사악한 무역을 지속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고, 노예제도의 완화를 허락받기 위한 탄원서를 국왕에게 제출하였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²⁶⁾ 샤프는 영국이 대서양 노예무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중을 설명하고,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노예 농장제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국의 제국정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충분히 강조할 수 있었다. 이는 그가 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담론적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설명된 것처럼 18세기 말 발생한 영 제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반노예제 수사는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도 정치적 주장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종의 도덕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대서양 세계의 반노예제 운동가들이 노예제 및 노예무역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주장에 도덕적 위신을 더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미국 독립혁명으로 촉발된 제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반노예제 수사에 이전과 다른 정치적 의미가 생겼음을 암시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예제도 및 노예무역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18세기 말의 영 제국정책에 논의와 결합되어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관찰할 수 있다.

III. 『도덕자본』의 한계와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

브라운의 18세기 말 영국인들과 식민지인들의 노예제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관찰은 매우 뛰어난 것이지만 관련된 이야기의 전부를 설명해 주

25) Granville Sharp, *The Law of Retribution or a Serious Warning to Great Britain and Her Colonies, Founded on Unquestionable Examples of God's Temporal Vengeance against Tyrants, Slave Holders and Oppressors* (London: B. White and E. and C. Dilly, 1776), pp. 327, 328.

26) *Ibid.*, pp. 312, 314.

는 것은 아니다. 브라운이 시사한 바 있듯이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운동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이 답해져야 한다. a)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에 반하는 가치, 개념, 신념이 영어권 대서양 세계에서 어떻게 발달하고 확산되었는가? b)어떻게 이 생각들이 정치적 사상과 사회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변형되었는가? c)어떻게 반노예제 운동가들이 노예무역 폐지와 노예 해방이라는 성과를 성취할 수 있었는가? 『도덕자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대답을 주지만 반노예제 이데올로기 발흥의 전제가 되는 노예무역에 대한 반감의 기원과 확산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는 브라운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반노예제 감정 자체를 잔인한 무언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악감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예제도에 대한 반감의 확산은 반노예제 감정 자체와 구별되어야 하는 연구주제이다. 이 반감 자체는 자연발생적일 수 있으나 그것은 인위적 노력에 의해 영어권 대서양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었다. 기존의 다른 학자들의 연구들처럼 노예무역에 대한 반감의 영어권 대서양 세계로의 확산과정과 관련된 질문은 브라운의 연구에서도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또한 국가적 위기의 연속상황 속에서 반노예제 대의가 다양한 정치적 목적에 유용한 것이 되었다는 브라운 데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반노예제 수사가 여러 정치적 목적에 유용해진 상황을 18세기 말 제국의 위기상황이 초래한 유일한 결과물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시 영국 의회 내에서 노예무역폐지 운동을 이끌었던 국교회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국가적 위기 국면이 초래한 ‘종말론적 위기감’(Apocalyptic Sense of Crisis)도 노예무역 폐지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 중요한 동기로서 작용했다. 앞서 언급된 클락슨, 샤프, 램지 그리고 윌버포스와 같은 국교회 출신 노예무역 폐지운동가들 뿐 아니라 일부 미국 복음주의자들까지 다수의 종교인들이 당시의 전쟁, 반란, 소요 등을 신의 심판과 동일시하였으며, 국가적 위기가 노예제와 기독교 원칙 사이의 불일치를 계속해서 용인한 결과 나타났

다고 생각했다.²⁷⁾ 영국 의회 내의 반노예제 운동가들의 주장에서 “국가적 죄악이 국가적 형벌을 불러 온다”(national crimes require national punishments)는 반복되는 수사였다.²⁸⁾ 다수의 국교회 복음주의자들에게 이러한 국가적 심판을 불러온 대표적인 죄악은 가장 눈에 잘 띄는 악행인 노예무역이었으며, 이 또한 그들이 더 이상의 국가적 ‘징벌’의 발생을 막기 위해 노예무역을 폐지하려는 실질적 행동을 취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브라운의 『도덕자본』은 18세기 말의 정치적 사건들이 반노예제 담론이 중요해진 국면을 직접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단순화 하여, 영국에서는 그것이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초래하고 일부 정치인의 실질적 행동을 촉발한 동력이 된 것을 간과하였다.

그럼에도 『도덕자본』은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브라운은 노예무역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다루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는 마땅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을 제공하였다. 우선 『도덕자본』은 부자유 노동력의 이주와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확산 과정이었던 대서양 노예무역의 폐지에 있어 제국정책이 보인 영향력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쉽게 제국정책 및 식민주의와 부자유 노동의 확산을 연결시킨다. 물론 양자의 밀접한 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나 제국정책은 노예제 확산의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 것도 아니었고, 제국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은 간접적이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또한 대서양 노예무역 폐지의 과정을 영웅주의와 구조주의 사이의 이분

27) 당시 복음주의자들이 국가적 위기를 노예무역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harp, *The Law of Retribution*, 7, 67-68, 76; Benjamin Rush, *An Address to the Inhabitants of the British Settlements in America, upon Slave-Keeping* (Philadelphia: Printed and sold by John Dunlap, 1773), 30; Morgan John Rhees, *Letters on Liberty and Slavery: In Answer to a Pamphlet, Entitled, 'Negro-Slavery Defended by the Word of God,' by Philanthropos* (New York: R. Wilson, 1798), pp. 23, 53, 58.

28) *The Parliamentary History of England, from the Earliest Period to the Year 1803* (London: T. C. Hansard, 1818), XXXII, pp. 150, 763; *The Parliamentary Debates from the Year 1803 to the Present Time*, 41 vols. (London: T. C. Hansard, 1803-20), VIII, col. 971.

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것을 알려준 것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일 것이다. 노예무역 폐지운동에 대한 연구는 어쩌면 지금까지도 노예무역 폐지주의자들을 성인 또는 위선자로 나누는 접근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브라운은 본래 현대 정치학에서 도덕적 위선이 어떻게 특정 행동을 촉진하고 정당화 하여 일종의 세속권력이 되어 가는지를 분석하였던 ‘도덕자본’ 이론을 차용하여 노예무역 폐지운동가들의 동기의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이 논의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반노예제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꼭 한 가지 배타적인 동기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이 책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브라운 테제는 당시 노예무역 폐지운동가들이 도덕자본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정황을 제시함으로써, 노예무역 이슈에 대한 개인적 견해 차원의 논쟁이 제국정책을 둘러싼 국제외교적 차원의 논의로 전환되는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식민주의, 디아스포라, 부자유 노동이라는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서양 노예무역 및 노예무역 폐지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모두 이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지만, 막상 이 셋을 연결한 종합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제국의 발달이 부자유 노동을 강요하고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배타적 발전가능성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술된 것처럼 막상 18세기 말에는 제국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노예제 이슈와 결합하고 있었다. 그리고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이전에 이미 수백만의 흑인 노예들이 대양을 건너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구성했었으며 그것에 대한 강력한 폐지 움직임이 존재했던 것을 이해했을 때, 근대시기 이후 부자유 노동의 인구와 범위가 일관되게 확대되었다는 해석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부자유 노동인구의 대륙 간 이주 및 디아스포라 집단의 형성은 19세기에 행해진 것 뿐 아니라 18세기에 존재했던 원형들에 주목해야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자본』은 식민주의, 디아스포라, 부자유 노동력이라는 주제들 자체가 다양한 형태와 발전 경로를 가진 것임을 일깨워 주며, 이런 면모를 고려한 중

C. L. 브라운의 『도덕자본』 (Moral Capital)을 중심으로
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대학교, wilberforce2@gmail.com

주제어(Key Words):

대서양 노예무역(the Atlantic Slave Trade), C. L. 브라운(C. L. Brown), 도덕 자본(Moral Capital), 제국 정책, 부자유 노동력(Forced Labor), 디아스포라(Diaspora)

(투고일: 2016. 10. 23, 심사일: 2016. 11. 05, 게재확정일: 2016. 11. 14)

<국문 초록>

윤영희

이 연구는 부자유 노동력, 디아스포라, 제국정책이라는 근대사의 중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대서양 노예무역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C. L. 브라운(Christopher Leslie Brown)의 『도덕 자본: 영국 노예무역 폐지주의의 기원들』의 논지와 시사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책은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부자유 노동이 확대된 과정 뿐 아니라 그 흐름이 중단되고 폐지되는 과정까지 설명하여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 책은 반노예제 이데올로기의 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인도주의 혹은 경제적 동기 중 하나에 무게를 두고 설명하던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공한다. 브라운 테제는 운동가들이 반노예제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도덕적 신념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개인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보임으로서 그들이 박애주의자이었던지, 위선자였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의 틀을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

마지막 지점에서 노예무역 및 노예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제국정책을 둘러싼 당시 영국과 식민지인들의 치열한 논쟁과 연결되는 고리가 발견될 수 있다. 18세기 말 영 제국의 도덕적 권위의 위기 국면에서, 제국 정책의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노예제와 노예무역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견해에 도덕적 위신을 더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반노예제 수사가 개인 및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과정 뿐 아니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관철 하는데 유용한 담론적 무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e Debate on the British Imperial Policy and the Abolition
of the Atlantic Slave Trade, Focusing on C. L Brown's *Moral
Capital*

Yoon, Young Hwi

This study analyzes arguments and implications of *Moral Capital: Foundation of British Abolitionism* by Christopher Leslie Brown(Chapel Hill: North Carolina University Press, 2006), in order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mportant themes in the modern history such as forced labor, diaspora and the imperial policy. Brown's thesis broadens the scope of research areas, explain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antislavery movement as well as the expansion of forced labor through the Atlantic slave trade. Moreover, his work breaks fresh ground in the debate of abolitionists' motivation. *Moral Capital* emphasizes the transcendence of abolitionist motivation beyond the dichotomy between humanitarianism and material interests.

In this poin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ssue of slavery and the discussion about the justification of the imperial policy could be found. During the critical moments of the American Revolution, critics of the imperial policy as well as proponents of the British constitution found a means to assert their moral superiority in antislavery discourse. This shows political expediency of antislavery arguments; attacks on slavery could serve a range of purposes as a rhetorical weapon to support particular opinions.

■ 특집 ■

유색인 여성들과 아이티혁명기 자유의 여정
: 이사벨 아옌데의 소설 『바다 밑의 섬』을 통해서

권 윤 경

I. 서론

대서양 세계에서 노예와 자유민의 신분 차이, 인종적 정의에 대한 법적 정의와 사회적 관습은 제국마다, 지역마다 다양했다. 대서양 세계처럼 제국 간, 지역 간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바다를 통한 이동이 활발한 경우 이러한 자유의 모호성은 때로는 부자유민들에게 기회의 공간이 되기도 했다. 동시에 이는 한 곳에서 얻은 자유가 다른 곳에서는 도전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노예들이나 유색인들은 자유를 획득하거나 지키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떠났으며, 동시에 어디에 가든 피부색에 따른 낙인 때문에 뒤따르는 차별이나 재(再)노예화(reenslavement)의 위협과 끝없이 싸워야 했다. 대서양 노예제는 ‘인종적 노예제(racial slavery)’였고, 비유럽인들의 피부색은 종속 상태를 나타내는 떨칠 수 없는 낙인이었다.

프랑스혁명과 아이티혁명은 자유의 가능성과 불확실성 양쪽 모두를 극적으로 확대시켰다. 프랑스령 서인도제도 식민지의 핵심이었던 생도맹그(Saint-Domingue; 독립 후 아이티(Haïti)로 개칭)에서는 1791년부터 노예들의 대반란과 함께 아이티혁명이 일어났다. 반혁명 세력들의 위협에 맞서 흑인 무장 노예들의 군사적 지원이 절실했던 혁명 프랑스는 1794년 전면적 노예해방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포고된 원칙으로서의 자유는 실제 식민지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굴절과 왜곡을 거쳤다. 또한 혁명 프랑스가 선포하고 나중에 아이티가 독립전쟁을 통해 획득한 노예해방은 다른 노예제 사회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혼란은 혁명의 시대가 촉발한 대량 이주 때문에 심화되었다. 미국 독립 혁명부터 시작된 혁명의 물결은 정치적 망명객들, 침략과 내전을

피해 달아난 난민들, 혼란을 틈타 도망친 도망노예들, 전쟁의 판도를 따라 이동하는 군인들의 행렬을 만들어냈다. 아이티혁명기 섬을 떠난 난민들의 수는 4만 5천 명이 넘었으며, 이들은 신세계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 나갔다.¹⁾ 마치 오늘날처럼 혁명의 시대 대서양 세계는 난민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다.

이들 중 절반은 당연히 여성들이었고, 그 중 대부분은 유색인 자유민들과 노예들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이티혁명의 이야기는 이들의 경험을 포괄하지 못했다. 아이티혁명의 영웅 서사는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를 위시로 한 남성 해방노예들의 무장 투쟁을 집중 조명했고, 그 반대편의 반혁명 서사는 폭도들에 의해 고통 받는 결백한 백인들—특히 백인 여성들의 수난—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유색인 여성들, 특히 노예 여성들을 중심에 놓았을 때 아이티혁명과 이 시기 자유를 위한 투쟁은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 젠더는 혁명기에 계속 요동쳤던 지위, 계급, 인종의 개념과 실천을 구성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대서양 세계의 경계선들을 가로지르며 이들이 추구하고 경험했던 자유는 어떠한 것이었을까?²⁾

- 1) 아이티혁명기 난민에 대해서는 R. Darrell Meadows, “Engineering Exile: Social Network and the French Atlantic Community, 1789-1809,” *French Historical Studies*, 23-1(2000), pp.67-102.
- 2) 이 주제에 대한 선구적 연구들은 80년대 말부터 출현했다. Hilary Beckles, *Natural Rebels: A Social History of Enslaved Black Women in Barbados* (London: Zed Books Ltd., 1989); Barbara Bush, *Slave Women in Caribbean Society 1650-1838*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Marrietta Morrissey, *Slave Women in the New World: Gender Stratification in the Caribbean*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9). 연구사에 대해서는 Bridget Brereton, “Searching for the Invisible Woman,” *Slavery and Abolition*, 13-2(1992), pp. 86-96 참조. 프랑스령 서인도제도 유색인 여성(특히 여성 노예)에 대한 기본적 연구들은 Arlette Gautier, *Les Soeurs de Solitude: La condition feminine dans l’esclavage aux Antilles du XVIIe au XIX siecle* (Paris: Editions caribeennes, 1985); Sue Peabody, “Nègresse, Mulâtresse, Citoyenne: Gender and Emancipation in the French Caribbean, 1650-1848,” in Pamela Scully & Diana Paton, eds., *Gender and Emancipation in the Atlantic Worl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pp. 56-78; David P. Geggus, “Slave and Free Colored Women in Saint Domingue,” in David Barry Gaspar & Darlene Clark Hine, *More Than Chattel: Black Women and Slavery in the America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Bernard Moitt, *Women and Slavery in the French Antilles, 1635-1848*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여기서 역사가들은 유색인 여성들을 어떻게 단순히 침묵된 희생자가 아닌 역사적 주체로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일찍이 이 주제를 개척한 부시(Barbara Bush)의 말처럼 유색인 여성들은 가부장제, 인종차별주의, 계급적 착취라는 “삼중의 억압”에 시달렸다.³⁾ 심지어 혁명의 순간에도 시민-군인 동형론에 기초한 프랑스혁명의 전투적 공화주의는 무기를 든 남성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위한 특권적 통로를 제공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제약된 조건 속에서도 여성 노예들은 때로는 체제와 싸우고, 때로는 체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최대한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하고자 했다. 전쟁, 혁명, 이주로 남성들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을 통해 가족과 세대와 문화가 이어진 것이야말로 이들의 생존 능력과 유연성을 입증한다.

문제는 이들을 경험 세계를 일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서 증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노예들에 대한 사료도 극히 적지만 여자 노예들에 대한 사료는 더더욱 그렇다. 남은 것은 주로 농장주들의 기록과 편지, 재판이나 범죄 기록들, 노예 양도나 판매 증명서들 속에 여기저기 흩어진 파편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들뿐이다. 예를 들어 스콧(Rebecca Scott)과 에브라르(Jean Hébrard)가 공저한 『자유의 문서들』은 1770년 서아프리카로부터 생도맹그로 끌려 온 로잘리(Rosalie)라는 여성 노예로부터 2차대전기에 이르기까지 몇 세대에 걸친 한 유색인 가족의 자유를 위한 오딧세이를 그린다.⁴⁾ 그러나 그중 로잘리에 대한 자료는 극히 적어서 저자들은 『마르탱 게르의 귀향』에서 데이비스(Natalie Zemon Davis)가 그랬듯이 동시대의 비슷한 사례들을 병치함으로써 모자란 사료 증거들을 간접적으로 채우고 상황을 추정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사료의 부족을 고려할 때 픽션은 교육적 활용도가 매우 높다. 여성 노예의 경우 파편화된 자료들이 대부분이라 사료만으로 누군가의 일생 전체를 재구성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알려진 유색인 여성들의 경우에도 군사적 투쟁에 참여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주종을

3) Bush, *Slave Women in Caribbean Society*, p. 8.

4) Rebecca J. Scott & Jean M. Hébrard, *Freedom Papers: An Atlantic Odyssey in the Age of Emancip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이룬다. 픽션은 이러한 한계들을 우회하여 여성 노예의 일상적 삶을 일대기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상상적 통로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아이티혁명을 다룬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책은 거의 없으며, 섬을 벗어난 혁명기 이주의 역사를 그린 책 역시 드물다.⁵⁾ 그 중 2009년에 출간된 이사벨 아옌데(Isabel Allende)의 소설 『바다 밑의 섬』은 드물게 혁명기 여성 노예의 자유의 여정을 그릴 뿐 아니라 수많은 유색인 여성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다른 작품들에 비해 구성과 문체가 평이하고 길이가 짧아서 훨씬 가독성이 좋다. 이 때문에 서구에서 아이티혁명을 소개하는 대표적 문학 작품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⁶⁾

아옌데는 칠레 출신의 작가로 친척인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이 쿠데타로 살해당한 후 망명하여 이후 주로 미국에서 활동해 왔다. 남아메리카의 마술적 리얼리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이자 현대사의 온갖 역경을 뚫고 살아남는 강인한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한 페미니즘적 작품들로 명성이 높다. 이 책 역시 아옌데의 전작들처럼 격동의 역사를 배경으로 여성의 주체적 삶을 그리고 있지만 아이티혁명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아옌데는 처음에는 카트리나 사태 이후 뉴올리언스를 배경으로 한 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료 조사 중 뉴올리언스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은 아이티혁명 후 몰려 온 만여 명의 아이티 난민이었음을 알고 작품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⁷⁾ 즉, 이 소설은 미국의 역사, 특히 ‘남부’의 탄생이 어떻게 아이티혁명 및 아이티 디아스포라와 엮여 있는지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아옌데의 소설을 안내서 삼아 이 소설의 주인공인 여성 노예

5) 드물게 여성 노예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는 André Schwarz-Bart, *La Mulâtresse Solitude* (Paris: Seuil, 1972)가 있지만 내용이 이 논문의 목적과 맞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았다.

6) Isabel Allende, *La Isla Bajo el Mar* (New York: Harper Collins, 2009); *Island Beneath the Sea* (New York: Harper Collins, 2010).

7) Alexandra Alter, “Isabel Allende on Superstition and Memory,” *Wall Street Journal* (2010, Apr 23), Retrieved from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48704448304575196020575568424> (검색일: 2016년 7월 1일).

자리테(Zarité)-통칭 테테-와 그 주변의 유색인 여성들이 따라간 자유의 여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다. 하지만 아옌테의 소설 자체는 그렇게 뛰어난 문학적 완성도를 보여주지 않는다. 정형화된 인물들은 평면적이고, 전개는 멜로드라마 같으며, 역사적 설명의 개입이 지나치게 많다. 아래 내용에서는 소설과 함께 관련된 역사 연구들을 되짚으며 소설의 역사성을 점진해 보고 이러한 인물상 및 플롯이 도출된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는 한편, 소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다. 역사 연구와 픽션 사이의 대화를 통해 위에서 말한 사료의 한계를 보충하고 유색인 여성들이라는 침묵된 역사적 주체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대서양사와 노예제 문제를 여성사적 관점에서 넓게 조망하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집필되었기에 서인도제도 노예제 하 유색인 여성들의 삶이라는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접근 밖에 되지 못함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

II. 혁명 전야 생도맹그: 노예제 하 유색인 여성들의 삶

1770년에서 1793년까지 생도맹그를 다루는 1부는 1770년 프랑스 귀족 남성 툴루즈 발모랭이 아버지 사후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섬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이 시기는 생도맹그의 설탕 경제가 번영의 절정에 달한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생도맹그 지배층이었던 대백인들(grand blancs)의 상당수는 작위를 가진 부재지주였다. 20살의 계몽주의자였던 발모랭은 처음에는 노예제 체제의 잔혹성에 질겁하지만 점차 이것이 자신과 고향의 가족을 부양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자비로운 주인’으로 정당화하게 된다. 여기서 주인 대신 노예제의 필수 요소인 공포와 잔인성의 지배를 체현하는 것은 감독관(commandeur) 캅브레이다. 농장에서는 왕이나 마찬가지로 그는 내키는 대로 강간하고, 도망친 노예들을 잡아 팔다리를 자르고, 매일 누군가를 채찍질 한다. 발모랭은 그를 혐오하지만 대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해주는 캅브레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여기서 묘사되는 식민지 사회는 발모랭의 세련된 우아함과 캅브레의

사디즘적 잔인성사이를 물 흐르듯 오간다. 한쪽에는 품격 높은 대화가 오가는 살롱, 제복 입은 노예들이 정중히 절하는 대저택, ‘서인도제도의 파리’라고 불리던 생도맹그의 중심 도시 르캅(Le Cap)의 풍요로움이 있다. 그러나 우아한 귀부인들조차 도망 노예들을 천천히 처형하는 잔혹한 의식을 부채질하며 참관한다. 중간항해(Middle Passage: 삼각무역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노예들을 실어오는 중간 항로), 대농장의 혹독한 노동 조건, 노예사냥에 대한 묘사들은 연루된 모든 이들을 야수로 만드는 노예제의 지옥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역사서를 축약 설명하는 듯한 아엔데의 묘사 방식이 생도맹그 노예제의 잔혹한 현실을 성공적으로 재현했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영미권에서 아이티혁명 소설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벨(Madison Smartt Bell)의 『모든 이들의 반란』처럼 이를 치밀하게 묘사한 작품들의 경우 지나친 선정주의라는 비판에 맞닥뜨렸다.⁸⁾ 특히 여성 노예에 가해진 가혹한 폭력에 대한 묘사는 의도와 상관없이 포르노그래픽한 선정성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홀로코스트의 경우처럼 노예제라는 극단적 폭력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실험과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1부에서는 인종, 계급, 지위에 따른 식민지의 네 가지 여성 유형이 등장한다. 주인공인 몰라토(보통 백인 남자와 흑인 여자 부모) 노예 테테, 퀴드룬(quadroon: 백인 남자와 몰라토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1/4 아프리카 혼혈) 자유민이자 고급 매춘부인 비올레트, 발모랭과 결혼하는 에스파냐 귀족 백인 여성 유지니아 데 솔라르,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 흑인 노예 치료사 탕트 로제(‘로제 이모’)이다.

그녀는 고급 매춘부였던 몰라토 어머니에게 태어나 십대 때부터 어머니의 업을 물려받아 일하다가 발모랭과 고객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 정열적이고 성적 매력이 풍부한 비올레트는 혼혈 유색인 여성에 대한 백인 남성들의 성적 환상을 종합해 놓은 모양새이다. 프랑스 식민지의 경우 초반에는 극단적인 성비 불균형 때문에 백인 남성과 유색인 여성의 결합이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17세기 말부터 식민지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다른 인종간의 결합은 법적 규제와 사회적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8) Madison Smartt Bell, *All Souls' Rising* (New York: Pantheon, 1995).

불구하고 유색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축척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인구는 계속 늘어났다. 그 간극에서 몰라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환상이 생겨났다. 이들은 혼혈의 결과로 선천적으로 성적 욕망이 강하고 도덕적 자제력이 약한 ‘유혹녀’로 태어난다고 간주되었다. 백인 남성들에게 이들은 욕망의 대상임과 동시에 결혼 제도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협적 존재였다.⁹⁾ 노예제를 비판하는 이들조차 식민지 사회의 타락을 두고 백인 남성이 아니라 혼혈 여성들의 성적 방종을 탓했다.

이러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구현함에도 불구하고 비올레트의 캐릭터가 생기를 잃지 않는 것은 온갖 편견들을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게 이용하는 그녀의 냉정한 사업가 기질 때문이다. 자신을 어머니처럼 돌봐주는 흑인 여자 노예 톨라와 유사 가족을 이룬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성적 매력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보장해 줄 수단, 즉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연인인 프랑스 주둔군 대장 톨레의 청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10여년 이상 계속한다. 백인 남성의 애정은 결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매춘에 대한 비올레트의 일종의 전문가적 초연함은 식민지 사회에서 체계화된 유색인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부산물로 볼 수 있다. 여성 노예들에 대한 일상화된 성추행과 강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의 주된 ‘쓰임새’ 중 하나가 매춘업이었다. 도시에는 매음굴에서 일하는 여자 노예들이 있었고, 대농장에서는 농한기가 오면 도시 매음굴로 여자 노예들을 ‘임대’하여 수익을 올렸다. 많은 여성 노예들은 부수입을 얻기 위해 항구나 도시에서 매춘을 했다.¹⁰⁾

성적 착취야말로 테데의 삶의 주요 모티브이다. 발모랭은 사업차 쿠바로 갔다가 에스파냐 귀족 여성 유지니아에게 반해서 그녀와 결혼한다. 여기서

9) 많은 연구들 중 Yvonne Fabella, “‘An Empire Founded on Libertinage’: the Mulâtresse and Colonial Anxiety in Saint Domingue,” in Nora Jaffary, ed., *Gender, Race, and Religion in the Colonization of the Americas*, pp. 109-124; 로런트 두보이스, 박윤덕 역, 『아이티혁명사』 (삼천리, 2015), 116-118쪽.

10) 이에 관련된 한국 논문으로는 김인선, 『미국 노예제 시기 흑인여성노예에 대한 성적 착취: 흑인여성의 섹슈얼리티, 저항, 생존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41집(2015.5), 1-35쪽.

비올레트가 소개하여 유지니아의 시녀로 데려온 노예가 9살 난 테테이다. 테테는 세네갈 출신 여자 노예가 중간항해 도중 백인 선원에게 강간당해 낳은 몰라토 노예이다. 혁명기에 과들루프(Guadeloupe) 노예 반란의 영웅이 된 몰라토 여자 노예 솔리튀드(Solitude)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은 흔했다. 테테의 어머니는 출산 후 발광하여 갓난아기를 죽이려다 실패하고 자살한다. 갓 태어난 테테는 한 영락한 프랑스 부인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가 9살에 발모랭 집안으로 가게 된다. 식민지 노예제 내부의 계서제에서 몰라토에 크레올(creole; 생도맹그에서는 식민지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을 지칭)인 테테는 그나마 상위에 속했다. 열은 피부의 크레올들은 가내 노예로 선호되었다.

테테의 발육 상황을 지켜보던 발모랭은 11살 때부터 그녀를 지속적으로 강간하기 시작한다. 프랑스 식민지의 경우 자메이카의 농장주 티슬우드(Thomas Thistlewood)의 일기에 비견할 만한 세밀한 ‘강간 일지’는 없지만 주인이나 감독관에 의한 성적 착취는 노예제의 일상이었다.¹¹⁾ 생도맹그의 한 설탕 대농장에서 500명 노예 위에 군림하던 한 감독관은 60명 넘는 아이들을 잉태시켰다.¹²⁾ 테테는 주인의 강간을 또 하나의 ‘집안일’로 생각하며 견딘다. 발모랭에게 테테와의 잠자리는 음주나 독서와 같은 습관이다.

“발모랭은 이렇게 잠자리를 할 때마다 테테가 무슨 생각을 할 지 결코 궁금해 하지 않았다. 말을 탈 때 말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때때로 그는 젊은 노예를 취하기도 했지만 이는 잠깐의 강간 이상으로 가지는 않았고, 그나마 지금 읽는 책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처럼 즐겁지도 않았다.”¹³⁾

테테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주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11) Trevor Burnard, *Mastery, Tyranny, and Desire: Thomas Thistlewood and His Slaves in the Anglo-Jamaican World*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4).

12) Moitt, *Women and Slavery in the French Antilles*, pp. 99-100.

13) Allende, *Island Beneath the Sea*, p. 105.

불확실한 운명이다. 첫 아이인 아들 장마르탱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주인이 테테 몰래 비올레트에게 입양 보내 버렸고, 둘째인 딸 로제트는 발모랭의 적자인 모리스의 놀이 친구로 같이 키울 것을 허락 받는다. 주인의 변덕에 따라 언제라도 딸과 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테테는 깨닫는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자신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러한 운명을 반복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아예 미리 생을 끝내 버렸음을.

서인도제도의 노예제 지역 대부분이 노예 인구의 재생산에 실패했지만 생도맹그의 낮은 출산율은 악명이 높았다. 출생률은 대략 3% 미만이었으며, 절반 이상의 여성 노예들은 출산 경험이 없었다.¹⁴⁾ 또한 근육강직성 경련(mal de mâchoire)과 같은 특유의 질병에 의한 유아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후자의 경우는 섭의 기후와 전염병, 모체의 영양 부족과 불결한 위생 상태 때문이었지만 백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7년전쟁 이후 노예무역을 통한 노예 공급이 자주 교란되자 비로소 노예들의 출산률 재고에 관심을 쏟게 된 식민지 당국과 농장주들은 산모와 산파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돌렸다. 여성 노예들은 선천적으로 열등하고 모성이 부족하며 주인에게 반항하기 위해 일부러 낙태하거나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절망한 끝에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는 어머니들도 드물게 있었는데 이 경우 산모는 극형에 처해졌다. 특히 백인들을 독살하려던 1758년 마칸달(Mackandal)의 음모 사건 이후 독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서 산파들은 항상 감시와 의심의 대상이었다.¹⁵⁾

이러한 상황에서도 테테에게 삶의 의미와 생존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들은 있다. 가족을 만들고 유지할 능력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노예들은 끊임없이 유사 가족을 만들어 서로를 지탱했다. 어릴 적 같이 살던 집의 늙은 흑인 노예 오노레는 테테의 유사 대부가 되어 기니아와 아프리카 전통들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테테의 몸속에 요동치는 아프리카 춤과

14) Moitt, *Women and Slavery in the French Antilles*, pp. 80-100; Geggus, "Slave and Free Colored Women in Saint Domingue."

15) Karol Weaver, "'She Crushed the Child's Fragile Skull': Disease, Infanticide, and Enslaved Women in Eighteenth-Century Saint-Domingue," *French Colonial History*, 5(2004), pp. 93-109. 지식 살해와 관련된 한국 논문으로는 김인선, 『흑인노예의 자식 살해와 모성: 1856년 마가렛 가나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39집(2014.5), 1-38쪽.

음악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그녀의 수호신인 부두교(voodoo) 사랑의 신 에르줄리 목상을 깎아 준 것도 오노레이다. 부두교는 노예들이 가져온 아프리카 신앙이 생도맹그에서 여러 믿음 체계들과 뒤섞여 토착화된 종교이다. 발모랭의 집으로 간 후 그녀의 대모 격이 된 것은 나이 든 흑인 여자 노예인 탕트 로제이다. 당시 대농장에서는 여자 노예 한 명에게 건강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들은 탕트 로제처럼 아프리카 전승 지식을 가진 치료사이자 약초사인 경우가 많았으며 산과를 겸하기도 했다.

동시에 탕트 로제는 부두교의 비밀 사제(mambo)로서 칼렌다(kalenda 혹은 kalinda)라고 불리는 노예들의 집회를 주관했다. 아메리카 전역에서 노예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처럼 아프리카식 춤, 노래, 종교적 도취가 어우러진 집회들이 있었으며, 이를 위한 갖가지 조직들이 꾸러졌다. 칼렌다는 테테에게는 아프리카 정체성과 자유를 향한 열망을 일깨워 주었고, 도망노예들에게는 탈주를 위한 비밀 네트워크를 제공했다. 길로이(Paul Gilroy)와 같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연구자들은 음악이야말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영혼이라고 말한다.¹⁶⁾ 아프리카 음악은 아프리카 문화를 전승할 뿐만 아니라 대서양 세계를 횡단하며 갖가지 문화적 변용을 거듭한 혼종적 문화의 결정체였다. 가사의 대안적 세계관과 특유의 선율을 통해 노예들은 현실에서 거부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 테테는 이렇게 말한다.

“음악은 세월, 기억, 그리고 내 안에 웅크린 그 짐승-두려움-을 날려 버리는 바람이다...세계가 요동친다. 리듬은 바다 밑의 섬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지축을 흔들고 나를 번개처럼 관통하며 내 슬픔을 가져간다. Papa Bondye(부두교의 창조신)가 그 슬픔들을 씹어 삼켜서 나를 정결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복은 두려움을 정복한다. 복은 내 어머니의 유산이며 내 피 속에 있는 기니아의 힘이다. 내가 복과 함께 있으면 누구도 나에게 해를 입힐 수 없으니, 나는 사랑의 여신인 에르줄리처럼 강력하고 채찍보다 더 빨라진다....”

16) Paul Gilroy,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3).

복은 성스러우니 신들이 이를 통해 말하신다.”¹⁷⁾

그러나 노예들의 복 소리는 발모랭의 아내 유지니아의 광증에 일조한다.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광기의 피나 계속된 임신과 유산을 탓하지만 사실 유지니아를 미치게 하는 것은 생도맹그에서의 삶이다. 흑인들에 대한 그녀의 미신적 두려움은 절대다수의 노예들에 포위되어 이들을 폭력과 공포로 누르며 사는 백인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반영한다. 이 섬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발모랭과 유지니아에게 식민지는 “산자와 죽은 자가 손잡고 거니는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이지만,¹⁸⁾ 테테를 비롯한 노예들에게 죽은 자들의 영혼이나 부두교의 신들은 산자처럼 친밀한 존재이다. 아프리카 전승이 말하는 “바다 밑의 섬”에는 죽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봉기의 날이 오면 죽은 자들도 산자들의 군세에 합세할 것이다. 아옌테가 마술적 리얼리즘 기법을 통해 그리는 이러한 주술과 영혼의 세계는 노예제 사회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요소이기도 하다.¹⁹⁾

유지니아의 광증이 심해지자 역설적으로 발모랭 일가는 점차 테테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테테 말고는 제대로 된 대화 상대도 없는 발모랭, 테테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유지니아, 테테를 엄마로 여기는 발모랭의 아들 모리스, 테테의 관리 하에서만 돌아가는 집안일들. 실제로 테테가 맡은 직분인 가정부 자체가 노예제의 역설을 입증한다. 백인들은 노예, 그것도 여자 노예의 지성을 결코 믿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가사전반의 관리를 맡겼던 것이다. 대농장에서 여자들은 육체 노동의 위계에서도 최하층에 속했지만, 테테와 같은 가내 노예들의 경우 처우 면에서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왔다. 테테는 부엌에서 일하던 아프리카 출신 노예 감보와 비밀스럽게 사랑에 빠져 처음으로 인간다운 애정을 경험한다.

17)Allende, *Island Beneath the Sea*, pp. 1-2.

18)Allende, *Island Beneath the Sea*, p. 8.

19)예를 들어 Vincent Brown, *The Reaper's Garden: Death and Power in the World of Atlantic Slave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그녀와 비슷한 경우 여성 노예들에게는 제한된 자유로의 통로가 존재했다. 혁명 전 자유를 얻는 통로는 개별적 해방(manumission: 법적, 전면적 해방인 emancipation과 구분)이었는데, 해방되는 노예들의 60-70%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었다. 즉, 노예 첩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은 주인이 여자와 아이들을 해방시킨 경우였다. 프랑스 정부의 흑인법전(Code Noir)은 원래 노예 첩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노예와 자녀들까지 해방시킬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식민지의 법과 세부 규정들은 이러한 해방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수정되었다. 혁명 전 생도맹그의 경우 노예 첩들 중 3-4%(많아도 10% 미만)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⁰⁾ 그러나 어미와 자식들 모두 해방시키는 경우는 드물었고, 남자 아이만 해방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법적 절차에 따르는 비용을 피해서 ‘사실상(libre de fait) 해방’인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소유주가 죽거나 파산하면 자유가 위태로워졌다. 유언장을 통해 해방된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마찬가지였다.²¹⁾

III. “자유, 평등, 망명”²²⁾: 혁명 속에서의 삶과 이주의 경로

프랑스혁명이 발발하면서 발모랭의 대농장에도 불안한 기운이 감돈다. 도망노예들과의 연락책이었던 탕트 로제를 비롯하여 노예들은 하나 둘 모습을 감추고, 곧 아이티혁명 발발을 알린 1791년 노예들의 대반란이 일어난다. 노예들의 무장 집단에 들어갔던 감보는 생라자르 대농장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몰래 테테를 방문하여 도망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테테는 친아들처럼 키운 모리스를 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망노예들이 몰라토인 로제트를 해코지할까봐 두려워 감보의 요청을 거절한다. 아프리카 전사 계급 출신으로서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감보 역시 가부장적 사고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테테가 낳은 아이가

20) Peabody, “Négresse, Mulâtrese, Citoyenne,” p. 77.

21) Moitt, *Women and Slavery in the French Antilles*, pp. 151-172.

22) 책 제목에서 따옴. Matthew Smith, *Liberty, Fraternity, Exile: Haiti and Jamaica after Emancipatio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14).

자신의 아들인줄 알았던 감보는 로제트가 발모랭의 자식이라는 것보다 대를 이을 수 없는 딸이라는 사실에 더 절망한다. 결국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은 테테의 몫으로 남겨진다.

그날 밤 테테는 발모랭과 모리스를 탈출시켜 주는 조건으로 자신과 딸에 대한 해방 문서를 얻어낸다. 그녀는 그날부터 그 문서를 한시도 몸에서 떼놓지 않는다. 많은 역사가들이 지적하다시피 자유를 위한 여성 노예들의 투쟁에서 문서 작성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테테처럼 문맹인 여성 노예들조차 식민지 체제 내에서 문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해방 노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민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유색인들은 피부색에 따른 지위의 불안정성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출생증명서, 결혼 증명서, 시민권 증명서, 자녀들의 세례 증명서, 부권 인정 증서, 양도 매매 증서, 소유주의 각서 등등 최대한 많은 문서를 만들어서 공증해 놓는 습관이 있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상속이나 재산 이전이 벌어져 새 소유주가 이들의 자유민 신분을 문제삼는 경우 이 문서들은 유색인들의 자유민 신분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책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자유의 문서』의 로잘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흑인 자유민들에게 팔려갔던 그녀는 나이 든 하층계급 프랑스 이민자 남성인 뱅상과 여러 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혁명 정부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된 후 그녀는 자신과 아이의 자유민 신분을 위해 여러 방책을 강구한다. 혁명의 혼란과 영국군 침공으로 해방 문서가 공증이 되지 않자 파트너인 뱅상으로부터 해방 문서를 급조하기도 하고, 뱅상을 부친으로 한 아이의 세례 문서를 만들기도 한다. 노예제폐지 여부가 불분명한 가운데 최대한 안전망을 만들어 놓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²³⁾

테테 덕분에 가까스로 르캅에 도착한 발모랭 일가는 백인들의 음모, 노예해방령 선포, 투쟁 루베르튀르의 등장 등 아이티혁명의 주요 사건들에 휘말린다. 이후 농장주들이 세상의 종말로 기억하게 되는 1793년, 르캅이 불타고 학살이 벌어질 때 테테는 절망한 발모랭을 일으켜

23) Scott & Hébrard, Freedom Papers, Chapter 2-3 참조.

세워 아이들과 함께 탈출한다. 감보는 루베르튀르의 측근이 되어 혁명의 주역이 되었지만, 두 아이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테데는 결코 혁명에 가담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발모랭의 보호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 그녀는 그와 함께 쿠바로 탈출한다. 테데처럼 수많은 백인들이 노예들과 함께 탈출했고, 이후 농장주들의 선전물들은 이 노예들의 ‘충성’을 폭도들의 ‘배은망덕함’과 대비시켰다. 그러나 주인과 동행하기를 선택한 노예들의 경우 테데처럼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아옌데의 소설은 감보와 테데의 선택을 이분화하여 보여주지만 혁명기 유색인 여성들의 선택은 훨씬 다양했다. 도망노예 집단들에서도 많은 여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탕트 로제처럼 종교적 지도자로 나선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 과들루프에 서 있는 솔리튀르의 동상은 혁명이 열어 놓은 급진적 권리 투쟁과 군사적 반란의 길에 직접 참여한 여성들의 모습을 대변한다. 아이티독립전쟁에 대한 기록들에는 포탄 속을 뚫고 무기를 나르거나 처형자들을 비웃으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는 여성 투사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아이들을 들쳐 업고 나와 프랑스 관무관들에게 노예 해방을 호소한 노예 여성들도 있었고, 여성들을 차별하는 공화국의 임금 정책에 반대하여 투쟁한 해방노예 여성들도 있었다. 그리고 버려진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선취하거나 채마밭을 늘려 수익을 올리는 여성 사업가들도 있었다.

혼란의 생도맹그를 뒤로 하고 발모랭 일가가 선택한 망명길은 당시 수많은 생도맹그 백인들이 택한 길이기도 했다. 생도맹그에서 쿠바 산티아고 항구까지는 거리도 얼마 안 되었고, 쿠바 당국도 망명자들의 운명에 동정적이었다. 다른 많은 대백인들과 마찬가지로 발모랭 역시 횡대서양적인 사업 및 투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섬을 떠났어도 알거지가 되지는 않았다. 봉기 때 살해당한 이웃 농장주의 비밀 계좌까지 사취한 발모랭은 처남인 산초 데 솔라르의 도움을 받아 루이지애나에서 다시 한 번 설탕 대농장을 일으킬 결심을 한다. 프랑스어권인데다 노예제 지역인 루이지애나는 생도맹그 농장주들이 가장 선호한 망명지였다.

로잘리 역시 이후 아이티독립전쟁의 혼란을 피해 쿠바로 피신했다. 여기서 자신의 자유민 신분 문서를 공증 받지만 그녀의 자유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많은 농장주들이 동행한 노예들의 노예 신분을 되살리는 판국이였다. 설상가상으로 대백인들의 뒤를 이어 하층계급 망명민들이 줄을 잇고 1808년 프랑스와 전쟁이 벌어짐에 따라 쿠바 당국은 프랑스 난민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린다. 문제는 1807년 미국의 반노예무역 법령은 노예 이송을 금지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신분으로는 대서양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이였다. 결국 로잘리는 10살 난 딸 엘리자베스를 자유민인 대모에게 맡겨서 루이지애나로 보내고, 자신은 아이티로 돌아간다. 이후 로잘리의 행적은 알 길이 없다.²⁴⁾

IV. 뉴올리언스에서의 자유: 미국에 도착한 생도맹그 난민 여성들

소설의 2부에서는 1793년에서 1810년까지 이제 제 2의 고향이 된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의 삶을 그린다. 원래 프랑스인들의 정착 식민지였던 루이지애나는 7년전쟁 패배 후 에스파냐로 넘어갔다가 1800년 나폴레옹에 의해 수복되었다. 그러나 생도맹그 상실로 아메리카 제국의 꿈을 접은 나폴레옹은 1803년 이 땅을 헐값에 미국에 양도했고 ('루이지애나 매입'), 덕분에 미국은 국토를 2배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 루이지애나의 크레올 백인 사회로 성공적으로 편입한 발모랭은 그리스식의 거대한 장원 저택과 설탕 대농장을 개장한다. 발모랭처럼 미국 남부에 정착한 생도맹그 난민들이 노예제도, 남부의 문화, 인종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많은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²⁵⁾

24) Scott & Hebrard, *Freedom Papers*, Chapter 3.

25) 90년대 이후 연구만 몇 가지 언급하면 Carl A. Brasseaux & Glenn R. Conrad, eds., *The Road to Louisiana: The Saint-Domingue Refugees 1792-1809* (Lafayette: University of Southwestern Louisiana, 1992); Susan Branson and Leslie Patrick, "Étrangers dans un pays étrange: Saint-Domingue Refugees of Color in Philadelphia," in David Geggus, ed., *The Impact of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Atlantic World*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01); Paul Lachance, "Repercussions of the Haitian Revolution in Louisiana," in *The Impact of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Atlantic World*; Nathalie Dessens, "The Saint-Domingue Refugees and the Preservation of Gallic Culture in Early American New Orleans," *French Colonial History*, 8(2007), pp. 53-69.

뉴올리언스에서 테테는 예전처럼 가정부 노예 역할을 계속한다. 일단 위기를 벗어나자 테테가 문서로 보장받은 자유는 그야말로 “종이 짝이나 마찬가지(paper thin)”임이 분명해 진다.²⁶⁾ 발모랭은 노예가 주인의 생명을 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살 이전에는 해방시킬 수 없게 한 주(州) 법에 따라 테테의 해방을 거부한다. 사실 테테는 주인의 생명을 구했지만 법에 어두운 그녀는 발모랭의 말에 반박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발모랭이 뉴올리언스 유력 가문의 딸인 오르탕스 드 기조와 결혼하면서 다시 한 번 테테의 삶은 불안정해진다. 결국 오르탕스가 성질을 부리면서 로제트는 수녀원으로, 테테는 농장으로 보내진다. 보통 가내 노예들에게 농장 노예로의 강등은 엄청난 충격을 동반했지만, 테테는 대농장에서 노예들끼리의 유사 가족 관계에 편입되어 오히려 공동체를 발견한다. 테테와 친해진 감독관의 아내인 머피 부인은 그녀에게 자신도 “백인 노예,” 즉 아일랜드 출신 계약노동자였다고 털어놓는다.

아이티 독립이 선포되고 쿠바에서 생도맹그 난민 추방령이 내려지면서 테테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속속 뉴올리언스에 도착한다. 생도맹그 출신 백인들의 압력에 굴복한 연방 정부가 1809년부터 반노예무역 법령 적용을 면제해 줌에 따라 수천 명의 흑인 노예들과 자유 유색인들이 유입되었다. 거리에는 프랑스어가 넘쳐나고 그와 함께 생도맹그 문화가 이식된다.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이 춤추던 콩고 광장(Place Congo)은 곧 부두교 집회 장소가 된다. 뉴올리언스 부두교 역사의 전설적 인물인 여사제 사니테 테테(Sanité Dédé) 역시 생도맹그로부터 온 것으로 묘사된다. 뉴올리언스 특유의 혼종적 종교 문화는 에스파냐 출신 수도사인 앙트완 신부에게서 잘 나타난다. 성인으로 불리는 앙트완 신부는 자신은 에르줄리의 딸이라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테테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의 신은 너의 Papa Bondye와 그저 이름만 다를 뿐 똑같다.
너의 신들(loas)은 내 성인들(saints)과도 같아. 인간의 마음에는
모든 신성들을 위한 자리가 있지...내 딸아, 여기서는 추문이 되지

26)아이티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경험한 재노예화의 위험을 연구한 스콧의 표현. Rebecca J. Scott, “Paper Thin: Freedom and Re-enslavement in the Diaspora of the Haitian Revolution,” *Law and History Review*, 29(No- vember 2011), pp. 1061-1087.

않는 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 네 마음대로 부두교를 믿어도 좋다. 주일은 신의 날이니 아침에는 미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콩고 광장에 가서 너의 신들과 춤추렴. 뭐가 문제겠니?”²⁷⁾

나중에 테테는 생도맹그 출신 흑인 해방노예 재커리와 사랑에 빠져 아들 오노레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는 사니테 데테와 앙트완 신부 양쪽으로부터 영세를 받는다. 이렇게 프랑스인, 에스파냐인,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이 가지고 온 문화들이 섞여서 오늘날까지도 뉴올리언스를 특징짓는 이국적이고 혼종적인 문화를 만들었다.

새로 도착한 난민들 중 최고의 생존 능력을 뽐내는 것은 역시 비올레트이다. 아이티혁명 중 남편 틀레와 사별한 비올레트는 뉴올리언스의 여인들을 대상으로 화장품과 옷을 팔고 조언을 해주는 일종의 미용 사업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플라사주(plaçage)를 주선하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플라사주란 백인 남자(때로는 유색인 자유민)와 유색인 여자들 사이의 사실혼 관습을 말하는데 프랑스어권과 에스파냐어권 식민지에 널리 퍼져 있었다. 램퍼트가(Rampart Street)와 같이 오늘날 뉴올리언스의 유서 깊은 프랑스 구역들에는 이 유색인 커플들을 위한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다. 상호 합의에 의해 보호자 남성은 집, 연금,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했다. 비올레트는 유색인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플라사주를 위한 대규모 무도회(Bals Cordon Bleu)를 개최한다. 초대받은 부유한 백인 남성들은 여자들을 고르고 그 어머니들과 교섭하여 플라사주를 시작할 수 있었다. 비올레트는 테테를 비롯한 생도맹그 난민 여성들 여럿을 끌어들이 일종의 사업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녀는 이렇게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며 아들(사실 테테가 낳은 아들) 장마르탱을 위한 유리한 결혼을 꿈꾼다. “그녀의 경험으로 볼 때 열은 색 피부와 돈은 대체로 뒤틀리지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손자들이 혜택 받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했다.”²⁸⁾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꿈꾸는 신분 세탁이며 자유로의 점진적 여정이다. 인종적

27)Allende, *Island Beneath the Sea*, p. 277.

28)Allende, *Island Beneath the Sea*, p. 360.

편견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태어난 그녀는 아들이 흑인이나 더 짙은 피부의 유색인과 결혼하는 것, 즉 이 도정에서 후퇴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 실제로 1750년대 이후 인종차별적 조치들이 강화되기 이전 생도맹그에서는 이런 식으로 몇 세대에 걸쳐 계급 상승을 해서 ‘피부색을 씻어내고’ 백인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비올레트의 모습은 생도맹그 출신 혼혈 여성들이 루이지애나에 퍼뜨린 유색인 여성에 대한 성적 스테레오타입(‘뉴올리언스의 쿼드룬 미녀들’)을 보여준과 동시에, 당시 루이지애나 사회에서 유색인 자유민들이 내뿜던 사회적 활력을 재현하고 있다.²⁹⁾

한편 서른 살이 되던 해 테테는 그녀의 해방 문서를 본 앙트완 신부의 개입 덕분에 마침내 자유롭게 된다. 자유의 몸이 되던 날 관청 앞뜰에 앉아 그녀는 환희와 공포 양쪽에 떠난다.

“자유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무 도움도, 보호도, 안전도 없다는 뜻이라는 셀레스틴의 경고나 발모랭의 위협이 내 머리 속에 울리고 있었다. 일거리를 찾지 못하거나 병이 들면 나는 우르솔라희 수녀들이 밥을 주는 거지들의 행렬에 서게 될 것이다.”³⁰⁾

실제로 이런 이유로 완전한 해방 대신 반쯤 독립한 노예로 남아 있는 경우들도 많았다. 그러나 어쨌든 테테의 경우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루이지애나로 온 유색인 난민들은 문서 증거를 통해 스스로의 자유민 지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도망 노예로 간주되었다. 이를 악용하여 흑인 자유민들까지 노예로 만드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한 사례로 생도맹그 난민인 아델라이드 메타예(Adélaïde Métayer)라는 한 해방노예 여성은 생도맹그에서 자신과 아이들의 자유를 이중으로 보장했다. 국민공회의 법에 의해 해방되었고, 나중에 옛 주인에게도 돈을 지불하고 해방 문서를 받아낸 것이다. 하지만 전 주인의 사업 파트너가 이들을 발견하고는 전 주인의 빚을 갚으라며 아델라이드와 아이들을 노예 경매에 붙이게

29)Emily Clark, *The Strange History of the American Quadroon: Free Women of Color in the Revolutionary Atlantic World*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3) 참조.

30)Allende, *Island Beneath the Sea*, p. 341.

한다. 뉴올리언스 법정은 아텔라이드의 해방 문서에 어린 아들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아들에 대한 경매를 진행시킨다. 그 후에도 이 채권자는 비슷한 수법을 반복해서 계속 아텔라이드 가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며, 7차례에 걸친 소송 끝에야 그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³¹⁾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데에게는 또 한 번의 비극이 닥친다. 어릴 때부터 가깝게 자라 이제 성장한 모리스와 로제트가 신분과 인종의 벽을 넘어서, 무엇보다 근친상간이라는 금기를 넘어서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 역시 하나의 클리셰인데, 근친상간이라는 주제는 생도맹그를 비롯하여 노예제 식민지를 다룬 소설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모티브이기 때문이다.³²⁾ 백인 남성들에게 노예들에 대한 무제한의 성적 방종을 허용하는 사회에서 근친상간은 상존하는 위협이었다. 백인 남성들이 근친상간에 대해 지녔던 금기와 매혹이라는 양가 감정은 인종간 결합(métissage)에 대한 양가 감정과도 얽혀 있었다.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모순을 상징하듯 이 소설들의 주인공 여성들은 대부분 비극적 운명을 맞는다. 테데는 근친상간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한다.

“로제트가 팔릴까봐, 혹은 그 애의 아버지가 내게 그랬듯 그 애를 강간할까봐 두려워 그 애를 내게서 떼어놓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 몸, 한 영혼이나 마찬가지였다. 남자들이 소녀들이 다 커서 무르익었는지 보려고 더듬는 식으로 주인님이 그 애를 만지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³³⁾

보스톤의 기숙학교에 간 이후 확고한 노예제폐지론자가 된 모리스는 로제트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 발모랭에게 경멸로 맞서며 노예제와 근친상간 사이의 인과관계를 꼬집는다.

31)Scott, “Paper Thin,” pp. 1072-1087.

32)프랑스 식민지의 경우 Doris L. Garraway, *The Libertine Colony: Creolization in the Early French Caribbea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참조.

33)Allende, *Island Beneath the Sea*, p. 322.

이사벨 아엔데의 소설 『바다 밑의 섬』을 통해서

“근친상간은 아주 심각한 거다, 모리스.”

“더 심각한 건 노예제죠.”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큰 상관이 있죠, 나리. 아버지가 노예를 추행할 수 있도록 해 준 노예제가 없었더라면 로제트는 내 누이가 아니었을 테니까요.”³⁴⁾

결국 아무도 근친상간 결혼을 허용치 않자 테테는 도망노예들을 숨겨주는 배의 선장을 만나 선장의 직권으로 배 위에서 둘의 결혼식을 올려준다. 그러나 임신한 로제트가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자녀들의 상속권을 위협할까봐 걱정한 오르탕스는 길거리에서 시비를 걸어 로제트가 투옥되게끔 한다. 당시의 인종차별적 법은 자신의 뺨을 때린 오르탕스를 마주 때린 것만으로 로제트에게 2년 형을 선고한다. 뒤늦게 아내의 공작을 알아챈 발모랭의 개입으로 로제트는 풀려나지만 옥중생활로 건강을 상해서 아들 저스틴을 낳고 곧 사망한다. 소설의 마지막은 그 모든 상실에도 불구하고 테테가 낳고 키운 후손들-장마르탱, 모리스, 저스틴, 재커리와 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족의 계보를 상기하며 끝난다. 남자들은 모두 죽거나 떠나버렸지만 여자들은 남아서 가족을 지키고 기억을 전승한다.

“바로 어제도 나는 광장에서 사니테 테테의 마법의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춤추고 또 났다. 때때로 모성과 사랑의 여신인 에르줄리가 와서 내게 씩씩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뛰어 바다 밑의 섬에 있는 내 죽은 이들을 만나러 간다. 이것이 내 이야기다.”³⁵⁾

이렇게 1810년 뉴올리언스에서 테테의 이야기는 가까스로 평화를 찾은 채 끝난다. 그러나 이 시기 루이지애나에서 해방노예 유색인 여성에게 해피엔딩의 전망은 그리 크지 않았다. 미국은 평등의 나라이니 자유 유색인들의 처지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꿈꾸는 비올레트에게 산초는 말한다. “착각은 금물이야. 그들은 영국인, 프랑스인, 에스파냐인들을

34) *Ibid.*, p. 413.

35) *Ibid.*, p. 460.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편견이 심하다고.”³⁶⁾ 실제로 19세기 이후 루이지애나에서 인종차별적 체제가 강화되면서 노예들은 물론 유색인 자유민들은 점차 증대하는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유의 문서』에서 어릴 때 대모와 함께 루이지애나에 도착한 로잘리의 딸 엘리자베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1830년 프랑스에서 7월혁명과 식민지 개혁의 소식이 들리자 그녀는 가족을 이끌고 프랑스로 향한다. 이후로도 이 집안은 인종차별을 피하고 사회적 상승을 이루기 위하여 프랑스, 벨기에, 멕시코, 루이지애나 사이를 중횡무진 오갔다.³⁷⁾

V. 결론: 자유의 의미

평론가들이나 독자들은 이전 아옌테의 주인공들에 비할 때 테테는 적극성과 진취성이 떨어진다고 종종 지적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테테의 극단적으로 제약된 사회적 조건을 생각할 때 납득할 만한 인물 설정이며, 동시에 노예제 사회에서 저항이나 주체성(agency)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성찰하게 만든다. 프랑스혁명과 아이티혁명 이후 노예제에 대항한 자유나 저항은 으레 보편적인 선언문과 노예해방 법령, 물리적인 직접 저항이나 무장투쟁을 통한 급진적 권리 획득, 더 나아가 독립 국가의 수립(black nationalism)과 결부되었다. 그러나 노예제 사회 속에서 살던 이들에게, 특히 유색인 여성들에게 자유란 한 번의 선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 끝없이 자신과 주변의 네트워크를 재창조하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이 속에서 테테, 비올레트, 로잘리들은 역사적 급변의 와중에 최대한 자신이 아는 자유로운 삶에 다가가기 위해 애썼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혹은 재노예화의 위협을 피해 대서양 세계를 떠돌아다녔다.

유색인 여성들의 역사적 경험은 자유에 대한 기존의 법적, 정치적 관념들을 재고하고 이에 대해 보다 인류학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한다. 가부장제는 노예제 사회의 유색인 여성들을 이중으로 억압했다. 게다가

36) *Ibid.*, p. 359.

37) Scott & Hebrard, *Freedom Papers*.

유색인 여성들의 지위는 남성 파트너나 보호자에게 예속된 경우가 많아서 항상 불안정했다. 테테와 같은 이들에게는 법뿐만 아니라 결혼, 동거, 후원과 피보호 관계 및 각종 유사 친족관계들(fictive kinship)과 같은 사적인 연결망이 자유를 얻기 위한 주요 자원이었다. 또한 직접적 저항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 교섭과 타협, 그리고 교묘한 조종(manipulation)이 자유를 획득하는 수단들이었다. 선입견과 달리 유색인 여성들은 문서에 입각한 서구 법 체제를 이용하는 데에 놀라울 정도로 기민했다. 이러한 모습은 아이티혁명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카프카(Judith Kafka)가 이야기하듯 자유를 위한 여성 해방노예들의 투쟁은 많은 경우 추상적 대의가 아니라 특정 인물들(농장주, 관리인, 공화국 관료, 군사 지휘관)과 특정 상황들(임금이나 휴일 정책, 소유주의 변화, 정치적 혼란)에 결부된 일상적, 점진적 노력들로 이루어졌다.³⁸⁾

유색인 여성들이 자유를 일궈내는 데에 특히 중요한 요소는 가족이었다. 가족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은 자유와 핵심적으로 결부되어 있었다. 테테의 삶에서 보듯이 이들에게 자유란 자신의 의향대로 파트너를 고르고 아이들을 빼앗길 염려 없이 키울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 제도와 형태는 정부와 권력자의 최우선적 관심사이기도 했다. 구체제 프랑스 정부로부터 독립 후 아이티 지배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자들은 교회와 국가에 의해 승인받는 결혼을 장려했다. 법적 결혼에 의한 가부장적 가족은 안정적 임금 노동 체제 및 새로운 사회질서의 등뼈로 칭송되었다. 그러나 이는 해방노예 여성들의 자유 개념과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 아이티의 실제 사회적 조건과도 맞지 않았다.³⁹⁾

이들에게 가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변화하는 것이었다. 당국이 아프리카적이고 부도덕한 것이라고 비난했던 가족이나 성적

38)Judith Kafka, "Action, Reaction and Interaction: Slave Women and Resistance in the South of Saint Domingue, 1793 -94," *Slavery and Abolition*, 18(1997), pp. 48-72.

39)Elizabeth Colwill, "Freedwomen's Familial Politics: Marriage, War and Rites of Registry in Post-Emancipation Saint-Domingue," in K. Hagemann, G. Mettele & J. Rendall, eds., *Gender, War and Politics: Transatlantic Perspectives, 1775-1830* (London: Palgrave, 2010).

결합의 형태들(혼전 성교, 미혼모와 사생아, 일부다처제, 여성 가장들, 대부모 관계, 플라사주와 같은 사실혼, 후원과 피보호)이 이들에게는 자유를 위한 현실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수단이었다. 테테 역시 해방 후 재커리와 사실혼 관계로 아이들을 낳으면서도 법적 결혼을 하려는 생각은 품지 않는다. 그녀에게 가족은 자신의 아이들과 유사 대부모들, 그리고 이웃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였다. 생도맹그 노예들의 경우 낮은 나이에야(평균 40대 중후반) 사실혼 파트너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적 결혼은 가족의 최종 형태를 확정하는 것이었지 가족 관계의 핵심은 아니었다.⁴⁰⁾ 현재에도 아이티 부부관계의 60-85%는 plasaj라고 불리는 사실혼이고, 30-60%의 가족은 여성이 가장이다.⁴¹⁾

동시에 젠더는 노예제 사회의 유지나 해체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였다. 두보이스의 말처럼 생도맹그와 같은 인종주의적 노예제 사회는 “정신분열적 사회”였다. 법은 계속 유럽계와 아프리카계 주민들을 갈라놓고 인종을 엄밀하게 구분 지으려 했지만, 정작 발모랭과 같은 백인들은 노예들을 강간하고 유색인 첩들을 들여 계속 혼혈 인구를 늘임으로써 스스로의 체제를 좀먹었다.⁴²⁾ 생도맹그는 아메리카 식민지들 중 자유 유색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사회였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이념은 성(性)과 젠더를 이용했다. 비올레트와 같은 유색인 여성은 백인 남성을 타락시키는 성적 방종(libertinage)의 화신으로 묘사되었으며, 백인들은 이 과도한 성(性)적 이미지에 유색인 계급의 열등성을 투사했다. 반면 백인 여성은 순결과 정절의 상징으로서 백인 피의 순수성을 담보하는 매개체로 간주되었다. 노예제가 무너진 후에도 가부장제와 억압적 젠더 이념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남거나 재강화되었다. 아이티에서는 노예해방이 전쟁(혁명전쟁 및 아이티독립전쟁)과 맞물려 진행되었고 그 유산으로 사회가 군사화되어 젠더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젠더에 입각한 이러한 권력 관계는 사료 형성을 결정지었다. 아이티혁명의 역사는 혁명 전 여성 노예들을 둔감하고 동물 같은 존재로 묘사한 사료

40) Moitt, *Women and Slavery in the French Antilles*, p. 86

41) Colwill, “Freedwomen’s Familial Politics,” p. 71.

42) 두보이스, 『아이티혁명사』, 116쪽.

일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솔리튀드와 같은 여성 투사들, 비올레트와 같은 여성 사업가들, 로잘리처럼 기민한 어머니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단 말인가? 바바라 부시는 아직 여성 노예들의 삶이 ‘진지한’ 역사학의 주제조차 아니었던 시절 자신의 경험을 토로한다. 그녀는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크레이턴(Michael Craton)이 노예 노동자들에 대해 남긴 선구적 저작인 『보이지 않는 사람(남자)을 찾아서(Searching for the Invisible Man)』를 모델로 삼아 “보이지 않는 여자 노예들”을 찾아 나섰다.⁴³⁾ 일단 찾기 시작하자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여자 노예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는커녕 온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료들에 재현된 여성 노예들은 거의 전적으로 기록자인 백인 남성들의 욕심, 환상, 두려움, 욕망, 그리고 당대 젠더 이념의 산물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에만 관심을 쏟았고, 반대로 노예들은 자신들의 속마음이나 가장 내밀한 사생활을 주인으로부터 감추었다. 주인들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저항 행위들이나 자율성의 증거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⁴⁴⁾

그렇다면 우리는 테테와 같은 여성 노예들의 삶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부시는 이 사료들을 “결을 거슬러(against the grain)” 읽으며 사료의 형성에 개입한 식민주의 이념을 내파하고, ‘상상적 공감능력(imaginative empathy)’을 동원하여 지워진 이들의 삶을 재구성했다. 부시를 비롯한 1세대 연구자들이 경험했듯이 주류 역사가들의 사료 실증주의는 이러한 여성사가들의 작업을 ‘진짜’ 역사의 하위에 두거나, 그들이 참조한 사료들을 ‘가치 없는’ 혹은 ‘신빙성 없는’ 자료들로 폄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노예제에 대한 여성사적 연구들은 지난 20여 년에 걸쳐 침묵된 여성 노예들의 삶과 경험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노예제에 대한 지배적 개념들(폭력, 종속, 저항,

43) Michael Craton, *Searching for the Invisible Man: Slaves and Plantation Life in Jamaic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44) Barbara Bush, “Searching for the “Invisible Woman”: Working with (and subverting) the archives” in *Working With the Past*, organised by Asiya Islam, Equality and Diversity Adviser,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on the 12th March to celebrate Women’s History Month and to promote the rich Women’s Library archives, recently relocated to LSE library.

주체성)을 급진적으로 재고하며, 궁극적으로 사료 형성에 관련된 권력 체제 자체를 규명하고 전복하여 역사학적 방법론을 쇄신하는 데 기여해 왔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연구는 극단적 폭력을 경험했던 역사적 주체들에 대한 역사가의 윤리적 자세 일반에 대해 성찰을 요구한다. 여성 노예들을 억압했던 폭력에는 비단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서고에서 이들의 존재를 지우거나 왜곡하는 인식론적 폭력도 포함된다. 발모랭이 테테가 자신에 대해 평생 품었던 격렬한 증오에 대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주인 계급은 노예들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했다. 이는 그들이 만든 사료를 통해 역사가들에게로 옮겨왔다. 그리하여 트루요(Michel-Rolph Trouillot)가 비판하듯 성실한 실증주의 역사가들은 종종 18세기 농장주들의 관점을 되풀이하곤 했다.⁴⁵⁾ 여성 노예를 침묵시키는 문서고의 인식론적 폭력을 해체하는 작업에 천착한 푸엔테스(Marisa Fuentes)는 자신의 작업이 “역사의 윤리, 그리고 흑인들의 삶을 침묵시키고 이들을 억압했던 폭력에 대한 무관심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고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역사가들의 의무는 우리의 역사학적 담론과 실천 속에서 그들의 종속과 상품화가 또 다시 영속화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역사가가 할 수 있는 과거에 대한 “보상(redress)의 몸짓”일 것이다.⁴⁶⁾

창원대학교, yunkwon1794@gmail.com

키워드(Key Words):

아이티혁명(Haitian Revolution), 여성 노예(female slave), 자유(liberty), 젠더(gender), 이사벨 아엔테(Isabel Allende)

(투고일: 2016. 10. 23, 심사일: 2016. 11. 05, 게재확정일: 2016. 11.10)

45) 미셸-롤프 트루요, 김명혜 역, 『과거 침묵시키기』 (그린비, 2011), 192-195쪽.

46) Marisa J. Fuentes, *Dispossessed Lives: Enslaved Women, Violence and the Archiv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6), p. 12.

이사벨 아옌데의 소설 『바다 밑의 섬』을 통해서

<국문 초록>

유색인 여성들과 아이티혁명기 자유의 여정
: 이사벨 아옌데의 소설 『바다 밑의 섬』을 통해서

권 윤 경

이 논문은 유색인 여성들, 특히 노예 여성들과 이주를 중심에 놓고 아이티혁명기에 벌어진 자유를 위한 투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자 한다. 혁명기 유색인 여성들은 더 나은 자유의 조건을 찾아, 그리고 재노예화(reenslavement)의 위험을 피하여 대서양 세계의 경계를 가로질렀다. 여기서는 이사벨 아옌데(Isabel Allende)의 소설인 『바다 밑의 섬』을 안내서 삼아 소설의 내용과 역사적 연구들을 병치하여 아이티혁명기 유색인 여성들의 자유로의 여정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아이티혁명의 서사는 정치적, 법적 자유와 무장 투쟁을 중시하지만 유색인 여성의 경험으로 초점을 옮기면 자유의 의미와 자유를 얻는 경로는 훨씬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발턴 여성들의 침묵된 삶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노예제와 혁명 연구에서 자유, 저항, 주체성(agency)의 의미를 재고하고자 한다.

<Abstract>

Isabel Allende's *Island Beneath the Sea* and Woman of Color's Journey for Liberty at the time of Haitian Revolution

Kwon, Yun Kyoung

This article attempts to redefine the struggles for liberty in the era of the Haitian Revolution from the experiences of the colored women (female slaves in particular). In this age of the Atlantic Revolution, women of color crisscrossed the Atlantic communities for the sake of better conditions for preserving liberty or to avoid the threat of re-enslavement. Here, we follow a female slave's transatlantic odyssey for liberty from revolutionary Saint-Domingue through Cuba to New Orleans, which Isabel Allende depicts in her novel, *The Island Beneath the Sea* (2009). Complemented by historical researches about female slaves and women of color, her story illuminates other aspects of liberty articulated by family, fictive kinship and sisterhood that were invisible in the established narratives of the Haitian Revolution based on armed struggles and political independence. By reconstructing the silenced voices of those subaltern women, we will be able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liberty, resistance and agency in studies of the Haitian Revolution and slavery.

■ 특집 ■

C. L. R. 제임스와 카리브의 탈식민화

하영준

I. 머리말

1958년 4월 C. L. R. 제임스는 거의 30년 만에 자신의 모국인 트리니다드로 돌아왔다. 그를 초대할 것은 우리에게 『자본주의와 노예제』로 잘 알려진 윌리엄스(Eric Williams)였다.¹⁾ 제임스와 윌리엄스는 오랜 친분 관계가 있었다. 윌리엄스는 제임스가 트리니다드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학생이었다. 이들의 학문적 관계는 제임스가 1932년에 영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곧 윌리엄스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로 유학을 가서 역사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제임스로부터 자신의 박사논문에 관련된 도움을 받았다. 이후 윌리엄스의 박사논문은 『자본주의와 노예제』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²⁾ 대서양 플랜테이션 노예제가 근대 산업 자본주의의 출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박사논문의 핵심 주장은 상당 부분 『블랙 자코뱅』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것이었다. 윌리엄스에게 제임스는 일종의 학문적 스승이었다.

1) 이 시기 제임스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Paul Buhle, *C. L. R. James: The Artist as Revolutionary* (New York: Verso, 1988), pp. 142-1153; Kent Worcester, *C. L. R. James: A Political Biograph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6), pp. 147-171; Dave Renton, *C. L. R. James: Cricket's Philosopher King* (London: Haus Books, 2007), pp. 121-143을 참조.

2) Selwyn Ryan *Eric Williams, The Myth and The Man* (Jamaica: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Press, 2009) p. 35.

그러나 윌리엄스는 제임스의 정치적 신념을 따르지는 않았다. 윌리엄스는 영국 지배로부터 트리니다드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반식민주의 민족주의자였지만, 제임스와 같은 국제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었다. 윌리엄스는 트리니다드로 귀국해서 민족주의 정당인 〈민중민족운동(Peoples National Movement)〉을 조직하고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트리니다드의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제임스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국제적으로 반식민주의 투쟁을 지지했던 제임스는 기꺼이 도움에 응했다. 그래서 1955년 윌리엄스는 런던에서 제임스의 도움을 받으며 〈민중민족운동〉의 당 강령을 준비하기도 했다. 〈민중민족운동〉은 곧 영국령 트리니다드의 자치의회에서 다수정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56년 선거에서는 약 39%를 득표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자신의 당을 단순히 정치적 명망가들의 선거정당이 아니라 잘 조직된 대중 정당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그는 제임스에게 당을 조직하는데 다시 한 번 도와주기를 요청했고, 제임스는 이에 기꺼이 응하게 되었다. 1958년 제임스는 윌리엄스의 초청으로 귀국한 후, 곧 〈민중민족운동〉의 당 기관지였던 《네이션(Nation)》의 편집장이 되었다.

제임스가 윌리엄스를 도와 ‘민중민족운동’에 참여한 선택은 자신의 정치 신념을 위배한 것처럼 보였다. 1950년 초부터 그가 일관되게 사회주의 체제와 좌파 정당의 관료주의와 전위주의를 비판하면서 대중의 ‘자기 조직화’를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민중민족운동〉은 이러한 대중의 자기 조직화라고 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이 조직은 이념적으로 민족주의 정당이었지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정당이 아니었다. 지도자였던 윌리엄스와 당 주류를 이루던 세력은 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다.³⁾ 이들은 압도적으로 흑인 중간계급 출신이었고 혁명가인 제임스가 오랫동안 경멸해왔던 바로 식민지 지식인과 관료계급이거나, 곧 그렇게 될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식민지 독립이란 식민지 고위관직을 자기 계급의 구성원이 차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3) Walton Look Lai, “C. L. R. James and Trinidadian Nationalism,” Paget Henry & Paul Buhle, eds., *C. L. R. James's Caribbean* 2n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6), p. 176.

민족주의와 엘리트주의로 회귀하는 듯 보인 제임스의 선택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대중의 자율성과 ‘자기활동’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배반한 것이자, 마르크스주의적 원칙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다.⁴⁾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연구자들 또한 그의 정치적 선택이 미국 체류 동안에 발전시켜왔던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전략과는 달랐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쪽에는 제임스가 민족주의로 완전히 경도되었다는 부정적 평가가 존재했다. 허슨(Baruch Hirson)은 제임스가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긴장을 사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비서구 사회의 정치 전략으로 민족주의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⁵⁾ 이러한 선택은 자신의 마르크스주의적인 신념과 계급정치의 포기를 명백히 의미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제임스가 완전히 새로운 정치 전략을 발전시키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로젠가르텐(Frank Rosengarten)에 따르면, 제임스가 동유럽의 반소 봉기들과 비서구 지역의 반식민주의 운동을 경험하면서 그람시적인 ‘민족민중 전략’을 발전시켰다.⁶⁾ 제임스의 정치적 선택은 인종과 계급들의 창조적인 연대를 기반으로 하여 카리브 제도 전체를 포괄하는 연방 국가를 형성하려고 했던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제임스가 그람시적인 새로운 정치 전략을 발전시켰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민족주의 입장과 원칙적으로 타협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했다. 제임스는 민족주의와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자율성과 ‘자기 활동’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 또한 포기하지 않았다. 제임스의 선택에 담겨있는 정치적 일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4) 이러한 견해를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은 트리니다드 체류 시기에 제임스와 동행했던 그의 세 번째 부인, 셀마 제임스(Selma James)였다. 그녀는 제임스가 혁명적 사회주의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평가했고, 그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했다. Frank Rosengarten, *Urbane Revolutionary: C. L. R. James and the struggle for a New Society*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08), p. 123.

5) Baruch Hirson, “Communism and Socialism in Africa: The Misdirection of C. L. R. James,” *Searchlight South Africa*, 1-4(1990), pp. 64-73.

6) Frank Rosengarten, *Urbane Revolutionary*, pp. 117-122.

체류 시절 그가 국가자본주의론에 입각하여 결론내린 제국주의 정책과 식민지 상황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야 한다. 제임스가 이후 카리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반식민주의 투쟁을 위해서 추구했던 정치 전략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제임스의 논의는 단편적으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제임스 연구자들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누락 때문에 제임스 연구자들은 그가 트리니다드에서 추구했던 정치 전략을 갑작스러운 입장 전환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입장 전환을 기존 신념의 포기나 새로운 전략의 발전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임스는 1950년대 초까지 스스로가 발전시켰던 제국주의와 제3세계의 상황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영국령 카리브의 반식민주의 투쟁을 활성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민중민족운동〉의 참여를 선택한 것이었다.

II. 식민지 저항운동과 대중정당의 필요성

제임스가 자신의 독자적 분석을 발전시키게 된 것은 자신이 한 때 지지했던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Leon Trotsky)의 2차세계 대전 이후 상황에 대한 예측 실패와 관련이 있다. 트로츠키에 따르면 식민지 국가에서는 민족 자본가계급이 제국주의 세력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노동 계급의 힘을 통해서만 민족 해방과 사회 개혁이 성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과 달리 식민지 해방은 중국의 경우가 잘 보여주듯,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공산당이 이끄는 농민계급에 의해서 쟁취되었다. 이러한 식민지 해방의 과정은 쿠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소수 지식인집단이 이끈 농민 계급이 독재 체제를 몰아내고 해방을 쟁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임스는 트로츠키의 예측 실패가 무엇 때문인지 조사해야만 했다. 그리고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농민계급의 지닌 정치적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분석적 결론으로 얻게 되었다.

제임스에 따르면, 트로츠키의 예측 실패는 전후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변화 때문이었다. 트로츠키의 예측은 다음 세 가지 가정에 기초해

있었다.⁷⁾ 첫째 유럽 제국주의 국가의 독점자본은 식민지 국가들에 자본을 수출하고 이들 나라를 산업화 시킨다. 둘째 식민지 산업화 과정에서 토착 자본가계급은 제국주의 권력이나 대외 자본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셋째 식민지 내 산업화된 지역에서 자본가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노동자 투쟁은 노동자계급이 민족해방 투쟁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농업 개혁을 통해서 농민계급을 정치적으로 이끌고, 도시의 중간 계급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제임스는 트로츠키의 분석과 예측이 전후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분석했다.⁸⁾ 제임스에 따르면, 유럽 독점자본주의는 더 이상 자본을 식민지로 수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미국 자본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며, 자국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식민지 나라들에게 제공하는 국가 대부는 이들 나라를 산업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 기지를 유지하기 위한 제한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식민지 나라들의 산업화는 트로츠키의 예측과는 달리 매우 느린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식민지 사회에서 농민반란이 지배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중간계급 지식인들이 이러한 농민반란을 이끌게 되었고, 이러한 반란을 통해서 식민지 해방이 성취 되었다고 분석했다.

제임스는 자신의 초기 분석에서 중국의 공산화와 중국공산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⁹⁾ 그는 중국 공산당이 소련의 스탈린주의 공산당이나 서구 노동조합을 장악한 관료계급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중국공산당은 노동계급이나 농민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중간계급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인식했다. 제임스는 중국공산당의 주축을 이루는 식민지 중간계급이 자본가계급은 아니지만, 식민지 해방과 함께 곧 관료 지배 계급으로 변신할 것이며, 자신의 나라를 전체주의 사회로 이끌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대중의

7) C. L. R. James, (written in Collaboration with Raya Dunayevskaya and Grace Lee) *State Capitalism and World Revolution*(1950) 3rd. (Chicago: Charles H. Kerr Publishing Company, 1986), p. 71.

8) *Ibid.*, p. 72.

9) *Ibid.*, p. 73.

자기활동, “진정한 대중 혁명(genuine mass revolution)”이 중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¹⁰⁾ 이러한 예상은 매우 선견지명이 있는 분석이었다. 실제로 식민지 중간 계급 지식인들이 이끄는 대다수 식민지 해방운동은 그와 같은 국가 관료화와 독재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제임스는 자신의 이러한 예측을 발전시키고 정교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정은 역설적으로 노동계급 중심주의와 서구 중심주의로부터 단절하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트로츠키의 예측 실패와 함께 제임스의 식민지 해방운동에 대한 수정된 분석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시각에서 어떤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에서 농민계급은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농민계급은 후진적이고 원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한 계급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도시계급 가운데 한 계급, 즉 자본가계급이나 노동자계급이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끌어야만 했다.¹¹⁾ 그러나 제임스의 수정된 분석에 따르자면, 자본가계급이나 노동자계급 없이도, (식민지 중간계급 지식인이 이끄는) 농민계급에 의해서 식민지 해방은 성취될 수 있었다. 농민계급도 식민지 해방의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¹²⁾ “이러한 조건 아래서, 농민 반란을 단순히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잔여물, 이들 반란을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받은 후에야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정통 트로츠키주의의 이론은 시대착오적인

10) C. L. R. James & Grace C. Lee, *Facing Reality* (1958) (Chicago: Charles H. Kerr Publishing Company, 2006), p. 83.

11) Hal Draper, *Karl Marx's Theory of Revolution: The Politics of Social Classes*, Vol 2. (New York & 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78), pp. 348-351.

12) 정통 트로츠키주의자인 뢰비(Michael Löwy)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노동 계급을 이념적으로 대표하면서 농민 계급을 지도했다고 주장한다. “1930년대부터 당원의 압도적 다수가 농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정치적 충성과 사회주의 변혁의 강령을 유지하였다. 농촌을 통한 오랜 ‘우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은 중국 프롤레타리아의 유기적 정당으로서 본래의 성격을 유지했다...농민은 어느 만큼은 중국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했던 도구였다...중국 공산당이(상당 정도의 관료적 경향에도 불구하고)-역사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노동계급의 당이었던 만큼, 혁명 과정의 정치적 지도력은 ‘프롤레타리아적’이었다고 규정해야 한다.” Michael Löwy, *The Politics of Combined and Uneven Development* (London: Verso, 1981), pp. 128-129.

것이 되었다.”¹³⁾

만약 농민계급이 식민지 해방의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급진적인 지식인들이 식민지에서 노동계급이 성장하기를 기다릴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농민계급을 조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식민지 독립과 민족 해방의 전략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카스트로와 게바라가 쿠바에서 실천했던 전략이었다. 중국뿐만 아니라 가나, 인도 그리고 쿠바까지 이러한 식민지 해방 투쟁을 통해서 제국주의로부터 (신)식민지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임스는 지식인과 농민 주도의 식민지 해방 전략이 관료 지배의 국가 자본주의체제를 낳을 뿐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서구 혁명과는 다른, 즉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농민계급에 의존하지만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참여’에 기초한 식민지 해방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제임스는 이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제 3세계의 혁명과 관련하여) 정치 노선의 문제로서...그 문제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한 사회를 고려하면서, 지지하거나 반대한다고 말한다. 좋거나 싫다고 말한다. 훌륭하거나 나쁘다고 말한다. 혁명적이거나 반혁명적이라고 말한다. 사회주의적이거나 자본주의적 또는 국가자본주의적이거나 그런 종류의 어떤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잃게 되는 것은 모든 분석이 역동적이고 살아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혁명적 시기라는 사실에 대한 통찰력을 잃고 있다...

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국가들(nations)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근본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산업화된 국가들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세계가 존재함 없이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들의 미래가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다. 이들 국가들이 살아가고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여부이다. 즉 이들 나라의 민중이 이들 나라의 변형에 참여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종류의 방향이나 운동을 유지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여부이다. 다른 말로, 쿠바에서 경험하고

13)C. L. R. James, *State Capitalism and World Revolution*(1950), p. 72.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참여(broad participation from below)를 경험하고 있는가?”¹⁴⁾

그리고 이러한 식민지해방 전략은 농민을 ‘아래로부터’ 조직하는 대중정당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정당은...저발전된 (underdeveloped) 나라들에서 여전히 타당성을 가진다. 말하자면, 산업이 아직 지배적이지 않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적이지 않는 곳에서 정당은 여전히 타당성을 지닌다. 이들 지역에서 정당이 지니는 지속적인 타당성의 한 증거는 이들 지역에서 정당들이 획득하고 있는 승리이다.”¹⁵⁾ 제임스는 농민계급이 노동자계급의 지도 없이도 반식민주의 투쟁을 전개할 수 있지만, 이들이 지닌 분산적이고 파편화된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중정당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론을 그는 간디(Mohandas K. Gandhi)의 <국민회의당(Congress Party)> 과 응크루마(Kwame Nkrumah)의 <인민회의당(Convention People’s Party)> 이 각각 인도와 가나의 반식민주의 투쟁을 주도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이끌어내게 되었다.

제임스가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에 생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57년에 일어난 영국령 가나(Ghana)의 독립이었다. 가나 독립을 이끈 것은 응크루마와 그가 이끄는 <인민회의당> 이었다.¹⁶⁾ 응크루마는 제임스로부터 젊은 시절부터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은 범아프리카주의 혁명가였다. 따라서 응크루마는 가나가 독립한 해, 자신의 나라로 제임스를 초대하였다. 제임스는 약 10일 간 가나의 각지를 돌아다니며 독립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여기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 그는 가나에서 돌아온 직후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나는 응크루마의 책을 분석할 것이고, 식민지 혁명에 대한 『블랙

14) C. L. R. James, Martin Glaberman ed., “Theory and Practice(1969),” *Marxism For Our Times: C. L. R. James on Revolutionary Organization*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99), p. 189.

15) C. L. R. James, *Modern Politics*(1960) (Detroit, Michigan: Be Wick/ed, 1973), p. 92.

16) C. L. R. James, “The People of the Gold Coast(1960),” Anna Grimshaw ed., *C. L. R. James Reader*, (Oxford UK& Cambridge USA: Blackwell, 1992), pp. 347-353.

자코뱅』과 레닌주의 이론의 이론적 전제가 되는 것과 완전히 결별하거나, 이를 질적으로 새롭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으로서) 아프리카 혁명은 더 이상 서구 유럽의 혁명에 종속된 것이나 그 보완물로서 간주할 수 없습니다.”¹⁷⁾

제임스는 “가나 혁명(Ghana Revolution)”에서 ‘자기 조직화’의 식민지적 형태, 또는 달리 말해서 비서구적인 형태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제임스는 1956년에 등장한 헝가리의 ‘노동자 평의회’를 서구 유럽의 대중이 발전시킬 수 있었던 ‘자기 조직화’의 최고 형태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노동자평의회’라는 ‘자기조직화’의 형태는 노동자계급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제임스는 농민계급이 다수를 이루는 식민지 대중의 ‘자기 조직화’는 이와는 다른 형태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같은 형태는 제임스가 가나의 〈인민회의당〉이 구현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한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이였다. 이러한 조직 형태는 유럽 공산당이 기초한 레닌주의 전위정당과는 다른 형태의 정당이었다. 제임스는 〈인민회의당〉을 다음과 같이 극찬했다. “유럽 제국주의에 직접적으로 종속된 이후, 열대 아프리카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가운데 두드러진 정치적 성취는 〈인민회의당〉의 조직화였다.”¹⁸⁾

제임스에게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을 통한 식민지의 해방은 서구 유럽의 노동자 평의회와 함께 자본주의 체제 내부로부터 은밀히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의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다. 제임스에 따르면 〈인민회의당〉은 당원이 최고 많았을 때 가나 전체 인구의 20%인 약 백만 명에 달했고, 이후 감소했을 때도 오십만 명 정도였던 대중정당이였다. 〈인민회의당〉은 이러한 조직적 기반으로 1951년 자치의회 선거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고, 영국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추진할 수 있었다. 제임스는 〈인민회의당〉이 가졌던 거대한 대중 동원력과 조직력을 식민지 대중,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계급의 ‘자기 활동’ 또는 ‘자기

17)C. L. R. James, “Letters on Politics: 20 March 1957,” *C. L. R. James Reader*, p. 269.

18)C. L. R. James & Grace C. Lee, *Facing Reality* (1958), p. 82.

조직화'의 한 형태라고 (잘못) 생각했다. “서구에서 이제 시대착오적이 된 오래된 정치 형태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식에서 사용하는 이들 주민들의 태도와 정신에서 저발전 나라들은 낡은 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일부분이 되었다.”¹⁹⁾

제임스는 1957년 가나의 독립으로 〈인민회의당〉이 통치정당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권력을 잡은 이후 체제와 정당이 “부패”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권력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혁명이 영구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⁰⁾ 가나가 다른 식민지 나라들의 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인민회의당〉이 지닌 참여 민주적 성격이 독립이후 새롭게 등장한 국가 기구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민회의당〉과 가나 정부는 여전히 식민 상태에 놓여 있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아프리카의 해방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제임스는 가나 경제의 후진성 때문에 국가가 경제를 조직하는 데 주도권을 쥌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주도권은 위로부터 경제를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도입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제임스는 가나의 농업과 산업 생산이 20세기 서구에서 발전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형태와 접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덴마크나 벨기에의 농업 협동조합 (Farming Cooperatives), 이스라엘의 협동농장(Collectives), 영국의 직장 위원회(Shop Stewards) 등과 같은 조직 원리들이 도입되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제임스는 아프리카의 전통과 역사가 새롭게 등장한 독립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부족 전통의 민주적 본능과 실천을 새로운 국가 권력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은 영국 정부가 식민 지배를 위해서 왜곡한 ‘추장제’가 아니었다. 왜곡된 추장제는 새의 깃털과 양산으로 치장되고, 대좌에 앉아 있는 작은 폭군에 불과했다. 복원되어야 할 것은 부족장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쫓아내는 부족들의 민주적 전통이어야 했다. 제임스는 〈인민회의당〉과 가나 정부가 이러한 민주적 정책과 전통을

19) *Ibid.*

20) C. L. R. James, “Letters on Politics: 20 March 1957,” p. 270.

추구할 때만이 근대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것이라고 주장했다.²¹⁾

그러나 〈인민회의당〉과 가나정부는 제임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듯 참여 민주적인 대중정당이나 혁명 정부가 아니었다.²²⁾ 그것은 점차 개인숭배와 일당 독재, 그리고 국가자본주의가 결합된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인민회의당〉은 창립 때부터 당 대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응크루마가 개인적으로 임명하는 조직 구조를 갖고 있었다. 게다가 〈인민회의당〉의 거대한 대중 동원력도 아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인위적으로 조직된 것이었다. 이러한 당 조직과 대중동원의 비민주적인 형태는 응크루마가 1961년에 당의 종신 서기장이 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이 시기에 그는 당 기관과 입법부를 포함한 국가 기구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다. 또한 응크루마는 야당 의원들을 수시로 체포, 투옥했고 1963년에는 야당 자체를 사실상 해산시켰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응크루마에 대한 개인숭배도 제도화되었다. 모든 언론기관이 그를 언급할 때 ‘오사지에포(Osagyefo, 구세주라는 의미)’라는 칭호를 사용해야만 했다. 제임스는 이러한 모든 사실이 분명하게 알려지게 된 1963년 응크루마와 정치적으로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²³⁾

III.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과 서인도연방의 건설

1958년에 제임스가 트리니다드의 민중민족운동에 참여했을 때, 그는

21) *Ibid.*

22) 니시가와, 『제 3세계의 발자취: 파키스탄, 가나, 이집트, 쿠바』(서울: 거듭, 1983) 46-48쪽. 응크루마의 아프리카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Jitendra Mohan, "Varieties of African Socialism," Jeremy Jennings ed., *Socialism: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London: Routledge, 2003), pp. 290-291, 299-301, 320-322. 아프리카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의 아프리카적인 변종이라는 주장은 Baruch Hirson, "Communism and Socialism in Africa," pp. 64-73. 참조.

23) C. L. R. James, *Nkrumah and The Ghana Revolution* (London: Allison & Busby, 1977), pp. 181-182, C. L. R. James, "The Rise and Fall of Nkrumah," *C. L. R. James Reader*, pp. 358-361.

가나의 〈인민회의당〉과 유사한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을 조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중국·인도·가나·쿠바에 이르기까지 제 3 세계에서 식민지 대중의 ‘자기 조직화’는 민족주의적인 형태를 취했고, 대중정당에 기초해서 식민지 해방을 이룩했거나 투쟁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임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반인종주의 투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발전시켰던 ‘자기 조직화’ 전략을 식민지 문제에 적용하게 되었다. 자기 조직화 전략이란 대중의 자율성과 투쟁성을 신뢰하면서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자운동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대중 운동 조직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민족 국가의 최종적 실패 (final failure of the national state)”를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식민지 민중의 ‘자기조직화’가 취하는 민족주의적인 형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했다.²⁴⁾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적 반식민주의 투쟁을 참여 민주적 형태로 조직화하고자 추구했다. 그래서 제임스는 자신이 (잘못) 상상했던 가나의 〈인민회의당〉 처럼, 트리니다드의 민중민족운동을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대중정당은 식민지 민중의 ‘자기 활동’과 ‘자기 조직화’를 더욱 더 고무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었다.

“서인도 대중의 정치적 분위기는 매우 고양된 상태이다...그들은 자신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심오한 변화를 자각하고 있고, 새로운 토대를 찾고 있다...대중 민주주의 정당은 새로운 체제의 전위로서, 공동체 내에서 일하는 정치 조직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사회 조직이라고 스스로를 간주해야 한다...만약 우리가 새로운 개념과 조직 등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낡은 것이 여전히 혼란과 무질서를 창출하면서 거짓된 형태에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대중정당은 민중의 발전하고 있는 의식이 구체화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민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스스로 의식할 수 있게 만든다.”²⁵⁾

24)C. L. R. James, *Modern Politics*(1960), p. 84.

25)C. L. R. James, *Party Politics In The West Indies* (Port of Spain, 1962).

따라서 제임스는 〈민중민족운동〉의 조직이 지닌 엘리트 정당적 성격을 극복하고 대중의 ‘자기 활동’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엘리트 정당은 식민지 입법위원의 후보자 지명 및 정당 정책을 소수의 엘리트나 실력자가 결정하는 특성을 지녔다. 그래서 제임스는 일반당원들이 당 주요 인사를 통제할 수 있게 하여 당이 사회적으로 더욱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강령을 가진 정치 정당으로서 자신의 선출직 입법위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는 당의 정치적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영향력 확대만을 골몰하는 당의 선출직 입법위원들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당의 정책이나 이념을 실천하기보다는 선거 승리를 위한 캠페인에만 주력하기 때문에 당은 사회적 기반을 상실한 엘리트 중심의 명사 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있었다. 제임스는 당기관지인 《네이션》이 입법위원이나 당·정부 관료들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들의 정책이나 행동을 공공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²⁶⁾

제임스가 1958년부터 약 2년 동안 〈민중민족운동〉의 기관지인 《네이션》의 편집장으로 했던 활동은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제임스는 정치정당이 참여 민주적으로 해당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체계화되고 잘 조직된 자체 당 기관지, 즉 당의 이념과 정책을 담은 대중매체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윌리엄스에게 《네이션》이 일주일에 두 번은 출판되어야 하며 안정된 정기 발행을 위해서 당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임스는 자신과 《네이션》의 당내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집장은 당 중앙기구의 성원이 될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²⁷⁾ 편집장이 당의 입법위원이나 당의 엘리트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26) C. L. R. James, "Without Malice," *Nation*, 17 April 1959.

27) C. L. R. James, *Party Politics In The West Indies* (Port of Spain, 1962), p. 41.

그러나 제임스가 추구했던 당 기관지를 통한 당내 민주화 전략은 처음부터 일정한 제약이 존재했다. 응크루마는 독재의 길로 결국 나아갔지만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이자라고 자임했고 가나 국가가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결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며 당시 영국 노동당의 온건한 사회 민주주의적 정책조차도 좋아하지 않았다. 윌리엄스와 〈민중민족운동〉의 당내 주류는 중간계급 출신의 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자였다. 당내 주류는 제임스를 당권 투쟁의 경쟁 상대로 간주하고 있었고 제임스가 지닌 마르크스주의 혁명가로서의 과거 행적에 불신을 갖고 있었다.²⁸⁾ 이들은 제임스가 당을 장악해서 공산주의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당 내에서는 제임스가 공산주의자들의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게다가 제임스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 정책의 결정기구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다. 그의 당내 위치는 전적으로 윌리엄스의 보증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임스의 말과 행동에는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윌리엄스에게 당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고, 자신의 마르크스주의적인 정치성향마저 억제해야만 했다.²⁹⁾ 제임스는 민족주의적 자유주의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최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의 건설이라는 목표와 함께 제임스가 탈식민화의 과제로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서인도연방(West Indies Federation)’의 건설이었다. 1958년부터 시작된 탈식민화의 과정에서 영국 식민당국은 자메이카·트리니다드·바베이도스·소앤티리스 제도의 작은 섬 등을 모아서 서인도연방을 만들자고 제안했다.³⁰⁾ 추진 목적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섬들을 합쳐서 효율적이고 안정된 규모를

28) James Millette, “C. L. R. James and the Politics of Trinidad and Tobago, 1938-1970,” Selwyn R. Cudjoe and William E. Cain eds., *C. L. R. James: His Intellectual Legacie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5), p. 333.

29) Selwyn Ryan *Eric Williams, The Myth and The Man*, p. 360.

30) Eric Williams, *From Columbus to Castro: The History of the Caribbean* (New York: Vintage Books, 1984), pp. 474-475; Olwyn M. Blouet, 신정환·문남권·하상섭 옮김, 『현대 카리브의 삶과 문화』 (서울: 한국외국어대 출판부, 2008), pp. 66-67쪽.

가진 국가로 독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독립에 앞서 서인도를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효율적인 단위로 구성할 목적에서 연방의 수도가 트리니다드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에 설치되고 1958년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서인도연방의 장래는 밝지 않았다. 한편으로 서인도 주민들은 연방을 추진하는 영국 식민당국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식민당국이 서인도연방을 서인도 식민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쉽게 식민지를 관리·감독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서인도를 구성하는 영국령 섬들은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상이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지방색이 강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의가 득세하고 있었다.

제임스는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도 서인도 연방을 지지했다. 당시의 진보적 입장을 가진 대다수처럼, 제임스도 서인도연방이라는 큰 규모에서 경제가 계획될 때만이 진정한 탈식민적인 국가가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인도의 섬들은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영국에 의존해 있었고, 상호 간의 유대가 부족한 상태였다.³¹⁾ 따라서 연방형성은 서인도 지역의 경제를 상호 밀접하게 만들고 영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제임스는 서인도연방이 정치적 목적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전후 카리브 지역에서 영국은 쇠퇴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권력 이전은 카리브의 탈식민 과정을 왜곡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영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미소 냉전을 제국주의 세력 사이의 갈등으로 간주했던 제임스는 쿠바와 같이 소련에 의지하는 해결책을 거부했다. 쿠바사태에서 알 수 있듯 소련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제국주의 국가에 불과했다. 제임스는 암묵적으로 반동회의에서 선언된 비동맹 중립외교를 지향했다. 제임스는 이러한 목적에서 서인도연방이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치적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31) C. L. R. James, "Parties, Politics and Economics," *Spheres of Existence*, p. 155.

당시 미국과의 정치적 긴장관계가 트리니다드의 차과라마스(Chaguaramas)에 있는 미 해군 기지 문제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었다. 미국은 1940년 9월 구축함 50대를 보내어 영국을 도왔고 담페로 버뮤다·자메이카·안티구아·가이아나·트리니다드 등지에서 해군 기지를 확보했다.³²⁾ 차과라마스는 이때 건설된 미 해군기지 가운데 하나였다. 윌리엄스와 〈민중민족운동〉은 1957년부터 영국 정부가 양도한 차과라마스를 미국이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윌리엄스는 미국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수 세기 동안 서인도제도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군사기지로 사용되었고 전쟁을 일삼는 이들의 군사적 약탈품으로 취급되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이러한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³³⁾ 그는 영국이 미국과 기지반환 협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트리니다드가 서인도연방뿐만 아니라 영연방에서도 탈퇴하겠다고 대중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트리니다드의 독립정부가 들어서면 식민지 체제 아래에서 체결된 조약들을 무효화시키고 미국과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제임스는 윌리엄스의 이러한 정치적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제임스는 미 해군 기지 반환 투쟁을 아이티 혁명의 역사와 연결시키며 서인도 국민의 탈식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임스는 윌리엄스가 트리니다드 민중의 열망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뛰어난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는 현실 정치인이었다. 윌리엄스가 기지반환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미 정부가 영국 식민당국이나 서인도 연방정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정치적 파트너로 간주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윌리엄스가 미국의 정치적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트리니다드에서 그의 정치적 위상과 대표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1960년 5월에 윌리엄스는 자신이 원했던 것, 즉 미 정부가 자신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목적했던 성과를 얻게 되자 윌리엄스는 공개적으로 ‘독립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했고 트리니다드는 서방 진영의

32)Eric Williams, *From Columbus to Castro*, pp. 426-427.

33)C. L. R. James, “From Toussaint L’Ouverture to Fidel Castro(1962),” *C. L. R. James Reader*, pp. 310-311.

일원으로서 영연방과의 유대를 포기하지 않고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 구성원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냉전 갈등에서 미국(과 영국)의 편에 서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윌리엄스의 연설을 듣고 당시 미국 관리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연설은 윌리엄스와 제임스의 결별을 상징했다...연설 이후 우리는 그(윌리엄스)와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³⁴⁾

제임스는 윌리엄스의 정치적 행보에 크게 실망했다. 그는 1960년 3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윌리엄스에게 《네이션》의 편집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가 명확한 정치적 원칙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잊었거나 알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네. 나는 나 자신을 〈민중민족운동〉에 완전히 종속시켜 왔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네.”³⁵⁾ 사실상 윌리엄스는 이미 제임스를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었다. 제임스가 가졌던 국제 혁명가로서의 명성은 이제 정치적 부담이 되었으며, 또한 그가 정력적으로 옹호했던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침식할 수 있었다. 미국의 압력과 윌리엄스의 목인을 배경으로, 당내 우파는 제임스를 공격할 구실을 찾았다. 이들은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네이션》의 경영 상태를 조사한 다음 제임스가 재정적으로 잘못 운영했다고 공격했다. 제임스는 재정 남용 혐의에 답변하도록 당 규율위원회에 소환되었다.³⁶⁾ 그러나 제임스는 당 규율위원회의 소환을 거부하고, 1960년 10월에 당을 떠났다. 윌리엄스와 당 주류는 이를 빌미로 제임스가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에서 추방당했다고 선언했다.

당을 떠난 후 런던으로 돌아 온 이후 제임스는 자신이 추구했던 정책이 하나하나 좌절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참여 민주적으로 쇄신하고자 했던 〈민중민족운동〉은 더욱더 엘리트 정당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그가 탈식민적 국가 수립의 정치적·경제적 토대로서 간주했던

34) Selwyn Ryan *Eric Williams*, p. 361.

35) Kent Worcester, *C. L. R. James: A Political Biography*, p. 159.

36) Walton Look Lai, “C. L. R. James and Trinidadian Nationalism,” pp. 193-195.

서인도연방은 1962년에 붕괴하게 되었다. 연방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자메이카에서 1961년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서인도연방 탈퇴 안이 54% 대 46%의 투표로 가결되자, 곧 트리니다드도 연방에서 탈퇴했다. 1962년 5월 영국의회는 서인도 연방을 공식적으로 해체했고, 같은 해 자메이카와 트리니다드는 개별적으로 독립했다. 제임스는 이러한 서인도의 상황 전개에 분노했고, 연방이 해체된 직접적 원인을 트리니다드의 윌리엄스와 자메이카의 맨리(Norman Manley) 같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돌렸다. 제임스는 특히 윌리엄스가 지금까지 성취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돌아서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만약 서인도의 정치가들이 서인도 민중에게 경제 발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전망이라도 제출했다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의 중심에 민중을 두었다면, 맨리는 국민투표와 총선거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만약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상이 차과라마스를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그의 캠페인이 공격적으로 공표했던 목표를 유지했다면, 그의 목소리는 서인도에서 연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호소가 되었을 것이다. 모든 섬의 많은 사람들은 매우 힘 있는 미국인들에 대항해서 싸우고 승리한 서인도 정치가들을 보고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것이다.”

IV. 식민지 중간계급과 신식민주의

제임스는 탈식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프리카와 카리브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하고 배반적인 행동을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보지 않았고, 이들이 기반하고 있던 식민지 중간계급의 허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서인도의 흑인 중간계급은 인종주의와 역사적 조건 때문에 오랫동안 식민지 사회의 중심적 역할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지만 거대 규모의 산업이나 농업을 경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했고 정치 정당이나 정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적도 없었다. “생산에 대한 지식, 정치 투쟁의 지식, 민주적 전통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는 전무하다... 그 계급은 경제생활의 중심으로부터 배제되어왔고 여전히 그러하다. 그들은 어떤 실제적인 정치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며, 어떤 정치적 전통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흑인 중간계급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특성에 대한 잘 알고 있지 못했으며, 식민지 해방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비전도 없었다. 이들은 자신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이익 추구에만 골몰했다.³⁷⁾

“서인도인의 특성은 존재하는가? 서인도 국민은 존재하는가? 서인도 국민이란 무엇인가?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이들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서인도 중간계급은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떨어져 있다. 되도록이면 정부의 후원 아래 정부의 비용으로 일자리·자동차·냉장고·해외여행 등등 이것들이 그들이 가진 관심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들 스스로가 어떤 해외 세력과 어떤 사회 계급과, 어떤 사회사상과 동맹하거나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인가? 를 알지 못한다...이러한 무지는 이들의 서인도 민족주의가 가진 상상력의 극단적 한계인 것처럼 보인다.”³⁸⁾

제임스에게 흑인 중간계급의 허약성과 상상력의 빈곤은 탈식민 이후에도 식민지 지배문화가 잔존하게 되는 이유였다. “영국의 매너, 관습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절차에 정력적으로 순응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 그리고

37)C. L. R. James, “The West Indian Middle Class(1961),” C. L. R. James, Paul Buhle ed., *Spheres of Existence: Selected Writings* (Westport, Connecticut: Lawrence Hill&Co., 1980), pp. 131-134. 제임스의 탈식민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동시대의 파농(Frantz Fanon)이 했던 분석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파농은 1961년에 탈식민사회의 중간계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식민지 체제 말기에 권력을 인수 받은 중간 계급은 미성숙한 부르주아지이다. 실제적으로 아무런 경제력도 없고 그들이 추종하려는 식민지 본국의 부르주아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민족부르주아지는 깊은 나르시시즘에 빠져 스스로 본국 부르주아지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확신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립은 중간 계급을 극도로 궁지로 몰아넣고 그들 내부에 재앙과 같은 반발을 유발시키고 그들은 이전 식민지 본국의 도움을 안타깝게 요청하게 된다...엄밀히 말하자면 저개발국의 진정한 중산 계급의 역사적 사명은 부르주아지로서의 자신과 자본주의의 도구로서의 자신의 성격을 부정하고 자신을 기꺼이 민중이라는 혁명적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Frantz Fanon, *Les Damnés de la terre*(1961), 박종철 옮김,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서울: 광민사, 1979), 111-112쪽 참조.

38)C. L. R. James, “The West Indian Middle Class(1961),” pp. 135-136.

그것에 대한 수용은 그들이 항상 해왔던 것이다.” 제임스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는 식민지 교육의 혜택을 통해서 주입된 것으로, 이들 흑인 중간 계급이 자신의 계급적인 허약성을 보충하는, 다르게 말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몇 세기 동안 그들은 민중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지위·교육·관습·매너를 가지는 것을 자신들의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가졌다. 서인도에서 교육의 역할은 강력한 영향을 가졌다.”³⁹⁾ 제임스는 흑인 중간계급의 종속된 정체성이 독립 이후 새로운 정치적 지배층으로서 이들이 다시금 식민 지배자들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흑인 중간계급의 종속적 협력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식민지 민중의 자기 조직화와 민주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를 새로운 경로 위에 둘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이를 방해할 모든 사람들에 대항해서 대중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심지어 공산주의자임을 자임하는 사람들조차 그와 같은 방향을 감히 취하지 못한다... (이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모든 주제는 특별히 위험하다. 주민 대중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거대 규모의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민중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감수성 있는 대중을 부여했다...몇 세기 동안 고역을 감당해왔던 서인도의 보통 사람들은 매우 넉더리를 낸다. 그들은 결코 옛 주인을 새로운 주인으로 대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⁴⁰⁾

제임스는 1960년에 ‘민족민중운동’을 탈퇴한 이후 곧 런던으로 돌아왔고, 1965년이 되어서야 다시금 트리니다드의 현실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다. 제임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를 추구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계급 정치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었다. 이러한 강조점의 변화는 독립 이후 본격화된 인종 적대의 정치 때문이었다. 트리니다드는 아프리카계·인도계·중국계 등으로 구성된 다인종

39) *Ibid.*, p. 137.

40) *Ibid.*, pp. 138-140.

사회였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계와 인도계였다. 전자는 주로 유전 산업과 도시에, 후자는 설탕 산업과 농촌에 각각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인종적 상황은 트리니다드의 독립 과정에서 고스란히 정치적으로 반영되어 아프리카계에 기반을 둔 〈민중민족운동〉과 인도계에 기반을 둔 〈민주노동당(Democratic Labor Party)〉의 양당 체제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들 인종 분리적인 양당 체제는 트리니다드 사회에서 인종적 적대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토양이었다.⁴¹⁾ 제임스는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이러한 인종적 적대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전략은 아프리카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유전 노동자들과 인도계가 다수인 설탕 노동자들의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자, 아프리카계 노동자들과 인도계 농민의 연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⁴²⁾

제임스는 〈민중민족운동〉과 〈민주노동당〉이 트리니다드에서 민족적 공동체의 창출이 아니라 인종들 사이에 의심과 적대만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임스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계급에 기초해서 인종적 화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이 트리니다드에서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낙관적 근거는 1965년 파업 때 유전과 설탕 노동자들의 연대 활동이었다. 이들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법적으로 통제하고자 시도했던 윌리엄스정부의 산업 안정법(Industrial Stabilization Act)에 연합해서 대항했다. 제임스는 인도계 노동자들이 아프리카계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리니다드의 크레올 문화에 공통적으로 기초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해가 계급적 연대의 기초 위에서만 충족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제임스는 1966년 윌리엄스와 〈민중민족운동〉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운동가들과 대학 내의 좌파 세력들을 규합해서 〈노동자농민당(the Workers and

41) 트리니다드의 인종 적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임스의 노력과 관련해서는 하영준, 「트리니다드 인도계 이주노동자들의 (탈)크레올화, 1936-66: C. L. R. 제임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제 39집(2016), 249-277쪽을 참조.

42) C. L. R. James, "West Indians of East Indian Descent(1965)," *IBIS Pamphlet* No. 1, (Trinidad 1965), p. 3.

Farmers Party)》을 결성하게 되었다.⁴³⁾ 제임스가 부의장이 된 이 정당은 결의는 높지만 소규모의 허약한 정당이었다.

제임스와 노동자농민당은 자신들의 주요한 정책으로 농지개혁을 제시했다.⁴⁴⁾ 농지 개혁은 트리니다드 농업을 지배했던 플랜테이션 대농장을 해체하고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이었다. 제임스는 농지 개혁이 새로운 농업 생산자계급을 창출하고 생산력을 향상시켜 곡물 수입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농지개혁이 불러일으킬 생산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은 농민들을 문화적·과학적 전망을 가진 주민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동자농민당>은 농지개혁이 잔존하는 식민지 경제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인도계의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농업 공동체를 해체하여 인종적, 문화적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제임스와 <노동자농민당>은 국가 계획 경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유화에 기초한 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개별 기업들의 국유화를 지양하면서 경제 발전의 전체 방향에 대한 전략만을 국가가 제시한다는 의미였다. 제임스가 국가계획 경제를 주장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그가 가나의 움크루마와 <인민회의당>에게 권고했던 ‘위로부터’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도입하는 경제 전략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농민당>은 1966년 선거에서 대패했다. <민중민족운동>이 52.4%, <민주노동당>이 34%를 차지한 반면, <노동자농민당>은 3.5%를 획득해서 한 석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했다.⁴⁵⁾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결과였다. <노동자농민당>은 계급정당을 표방했지만 아래로부터 대중의 참여를 통해서 조직되지 않았고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급조된 선거정당에 불과했다. <노동자농민당>은 제임스가 구상해왔던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이 아니었다. 이러한 선거정당을 통해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깊게 뿌리내려 있는 인종적 분리와

43) 노동자농민당의 결성 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하영준, 「트리니다드 인도계 이주노동자들의 (탈)크레올화」, 270-271쪽을 참조.

44) Paget Henry, C. L. R. James, "James and the Caribbean Economic Tradition," *C. L. R. James's Caribbean*, pp. 165-171.

45) Selwyn Ryan *Eric Williams, The Myth and The Man*, p. 379.

적대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었다. 게다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지나친 성급함을 보였다. 제임스는 이 선거 패배에 큰 충격을 받았고 곧 런던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노동자농민당>도 얼마 있지 않아 곧 해체되게 되었다. 제임스는 이후 더 이상 트리니다드의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V. 맺음말

제임스의 정치적 낙관론에는 서인도 공통의 크레올 문화가 아프리카계와 인도계 사이에 인종을 넘어선 계급적 연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의 기대가 깔려 있었다. 그는 서인도가 지니는 민족적 정체성의 토대에는 ‘실향민(expatriates)’이라는 공통의 정서가 있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기초해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을 가능성을 탐색했다.⁴⁶⁾ 백인 지배자들, 흑인 노예와 자유인들, 인도계 이주민들 등 어느 누구도 그 단어가 허용하는 의미에서 ‘토박이(native)’가 아니었다. 서인도는 선주민인 인디언들이 인구학적으로 거의 전멸되었기 때문에 토착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럽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들과는 달리 자신의 토착 언어, 토착 종교, 토착 문화 등이 없었다. 서인도 주민은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이주한 처음부터 서구적 생활방식을 훈련 받았다. 서구화된 근대적 생활 방식은 인도계 이주민이 다수를 이루는 영국령 기아나에서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적 생활 방식의 수용은 식민지 사회의 일방적인 동화가 아니라, 재구축과 상호 형성의 과정이었다. 서인도인들은 서구문명을 습득하고 변형시켜 자신만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⁴⁷⁾ 제임스는 유럽계·아프리카계·인도계·중국계 등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서인도라는 지역적 토대에 기초한 민족 형성을 꿈꾸었다. 이러한 전망은

46) 이와 관련된 세부적 논의는 하영준, 「트리니다드 인도계 이주노동자들의 (탈) 크레올화」, 259-269쪽과, C. L. R. James, “From Toussaint L’Ouverture to Fidel Castro(1962),” p. 313을 참조.

47) C. L. R. James, “Presence of Blacks in the Caribbean and its Impact on Culture(1975),” C. L. R. James, *At the Rendezvous of Victory: Selected Writing* (Westport, Connecticut: Lawrence Hill & Co., 1980), p. 218.

인종 본질주의에 기초한 정치적 갈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아프리카계 출신이었던 제임스는 인도계 이주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서인도의 크레올 정체성의 중심적 특징으로 그리고 있는 ‘사탕수수 농장과 흑인 노예제’로부터 시작되는 서인도의 역사 경험은 전적으로 아프리카계의 경험이었지, 인도계의 경험이 들어설 여지는 없었기 때문이다.⁴⁸⁾ 그는 아프리카계와 인도계 사이의 연대를 위한 토대로서 문화적 통합성(문화적 총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인도계 노동자들이 아프리카계와는 다른 방식에서 토착될 수 있을 가능성을 무시하였다. 따라서 제임스는 트리니다드의 다양한 인종 사이에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여기에 기초해 문화적 혼성과 정치적 연대를 창출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문화 정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었다.

또한 문화 정치를 전개할 주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제임스가 서인도의 정치 전략으로 구상했던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의 문제이다. 이것은 농민이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식민지 사회의 해방을 위한 정치 전략이었다. 제임스는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을 통해서 식민지 민중, 특히 농민의 투쟁과 자발성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제임스의 이러한 시도는 노동자 계급만이 유일한 혁명 주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농민을 새롭게 중심에 두는 제 3세계의 변혁 전략이라는 점에서 전통 마르크스주의의 서구중심주의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제임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식민지 근대성의 모순이 낳은 대중의 역동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중정당을 여겼다는 점에서 좀 더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제임스에게 대중정당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장악이나 유지가 아니라 대중의 ‘자기 활동’과 ‘자기 조직화’를 고무하고 활성화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임스가 추구한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의 건설 방식이

48) *Ibid.*, p. 296; C. L. R. James, “The Making of the Caribbean People(1966),” pp. 173-190.

현실성 있는 전략이었는데 하는 점이다. 제임스는 민족주의 정당을 내부로부터 개혁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지만, 이러한 전략은 오히려 자신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제임스는 식민지 해방 운동의 혁명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기초해서 이러한 자신의 전략을 추구했다. 가나의 〈인민회의당〉과 트리니다드의 〈민중민족운동〉은 참여 민주주의적인 성격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나 곧 상실하게 되었다. 이들 정당은 오히려 반민주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타락은 단순히 식민지 중간계급의 허약성과 무능력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영국 식민지배의 유산, 노동운동의 파편화, 인종적·문화적 분리 등 광범위한 사회적·문화적 조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⁴⁹⁾ 제임스 스스로가 조직했던 〈노동자농민당〉조차 선거 승리를 당면한 주요 문제로 삼으면서 참여 민주주의적인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했다. 제임스가 서구 사회민주당이나 공산당 같은 노동자 정당들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비판해왔던 전위주의와 관료주의가 다시금 등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서구 사회와 비서구 사회의 정치 전략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임스가 1940-50년대 미국 체류 시기에 발전시켰던 정치 전략을 기초로 반식민주의적 실천을 하는 것이 타당했다. 선거승리와 권력 장악을 위해서 대중정당을 조직·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인종·젠더 등 다양한 부분들의 ‘자기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옹호하는 동시에 이러한 부분 운동이 지닌 본질주의화 성향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정치 전략은 광범위한 연대를 창출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문화 정치와도 접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인 정치적·문화적 전략 대신에 급조된 선거 정당에 기초한 선거 승리라는 잘못된 시도는 비서구적인 해방 전략을 추구했던 제임스의 노력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신이 비판했던 서구 좌파 운동의 관료적 타락과 유사한 정치적 결과를 낳게 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제임스의 정치적 시도는 자신의 크레올 마르크스주의의

49)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하영준, 「트리니다드 인도계 이주노동자들의 (탈)크레올화」, 272-276쪽 참조.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제임스는 서인도 사회의 특징을 서구 문화의 전유라는 크레올적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제도, 특히 정당정치를 영국령 서인도라는 식민 사회에 적절한 방식으로 지역화하고 토착화하고자 시도했다. 그가 추구했던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이라는 형태는 이러한 제임스의 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제임스가 마르크스주의를 식민지 사회의 지역적 조건에 맞게 크레올화하고자 했던 시도는 전후 식민지 해방 운동을 지배했던 민족주의적 흐름에 적응하려는 시도이자 이를 보다 민주적 형태로 변용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그는 영국령 서인도의 민족주의를 탈식민적 방식으로 즉 단일하고 고정적 정체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실향민’라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체성에 기초한 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임스의 이러한 시도는 식민지 민중의 ‘자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고무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 전략 속에 영국령 서인도 사회의 다양성과 다층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

서울여자대학교, hayoungjun@hanafos.com

주제어(key Words):

C. L. R. 제임스(C. L. R. James), 에릭 윌리엄스(Eric Williams), 콰메 응크루마(Kwame Nkrumah),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Participatory Democracy Party), 크레올마르크스주의(Creole Marxism)

(투고일: 2016. 10. 23, 심사일: 2016. 11. 05, 게재확정일: 2016. 11.14)

<국문초록>

C. L. R. 제임스와 카리브의 탈식민화

하영준

이 연구는 1950년대 말 이후 C. L. R. 제임스가 자신의 모국인 영국령 서인도의 식민지 독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기를 다루고 있다. 제임스 연구자들은 이 시기 제임스의 활동을 앞선 1940년대 미국 체류 시기와는 정치적·사상적으로 단절된 것처럼 다루어왔다. 제임스가 서인도 독립 운동에 참여하면서 레닌주의적 전위정당 개념을 거부하고 노동계급과 대중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이단적 마르크스주의자에서 엘리트주의적 민족주의자로 전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임스의 탈식민적 전략이 그가 1940년대 동안 이단적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발전시켰던 전망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제임스는 자신이 서구적 맥락에서 발전시켰던 이단적 마르크스주의를 1950년대 식민지 해방운동의 정치적 분출이라는 상황에 비추어 수정하고 영국령 서인도의 지역 조건에 맞게 ‘크레올화(creolization)’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전통 마르크스주의의 예측과 달리 전후 식민지 해방운동을 주도한 것이 노동 계급이 아니라 농민 계급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정치 활동을 “아래로부터” 확장할 수 있는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의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은 영국령 서인도에서 반식민지 투쟁이 식민지 엘리트 지식인과 중간계급의 부정적 영향(신식민주의)으로부터 벗어나 민중의 열망에 기초하여 진정한 독립과 해방을 획득할 수 있게 도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임스의 정치적 시도는 영국령 서인도 사회의 다양성과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중의 ‘자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고무하는 데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

<Abstract>

C. L. R. James and the Postcolonial Politics in the Caribbean

Ha, Young-jun

This study deals with the period that C. L. R. James ha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independence of the British West Indies since the late 1950s. James researchers have treated James's anti-colonial struggles in the British West Indies as politically and ideologically disconnected from his marxist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40s and the early 1950s. It is said that James was apparently quite converted to West Indies nationalism from unorthodox marxist views which rejected the Leninist concept of the vanguard party and emphasized the autonomy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masses. This study contends that James' political strategy for national independence was based on perspectives that he developed as a heretical marxist during the 1940s.

James attempted to revise his marxism in the post-colonial situations since the 1950s and to creolize it in the local conditions of the British West Indies. Unlike predictions of orthodox marxism, he recognized that the peasant class, not the working class, in the colonies took the lead in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fter World War II, and raised the need to expand their political activities 'from below' through a participatory democratic mass party. It would help the anti-colonial struggle in the West Indies to get away from the negative influence (neo-colonialism) of the colonial intellectuals and the middle class, and to obtain true independence and liberation based on people's aspirations. But James' political attempts eventually failed to encourage the 'self-activity' of the colonial masses, because they did not reflect diversity and difference in the British West Indies.

■ 논문 ■

배제의 논리로서 ‘인종주의’의 역사적 기원:
고대세계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와 노예의 조건에
대한 인식

신 동 규

1. 머리말

근대 이전 피부색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을 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행위인가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인종주의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한다. 특히 20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문화의 차이를 강조하는 ‘신인종주의(Neo-racism)’가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식민지화된 아프리카에서의 원주민 억압정책이나 유대인에 대한 히틀러의 ‘최종해결’ 등 대량학살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더 이상 두개골과 입술 모양 또는 피부색 등 신체적 특징과 상상력에 근거한 혈통과 종자를 기준으로 인간의 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20세기 전반기까지 제국주의 시대에 흔하게 나타난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위계질서보다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을 기준으로 인간의 본성을 정의하고 우열을 나누면서 제국주의의 문명화 사명의 논리를 강화하고, 전지구적인 지배질서 체제를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작동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 파시즘의 정치적 실패, 제국주의의 역사적 패배는 계몽의 시대에 과학의 이름으로 체계화된 비합리적인 인종의 구분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네스코(UNESCO)는 모든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일한 종에 속한다는 과학적 견해를 지지해 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인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적 편견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인종주의에 근거한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왜 인종주의는 계속되는가? 답은 인종주의의 역사성에 있다. 그것은 인종주의가 집단 내부나 외부의 이질적 요소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에 대한 우월감으로 표출되거나 공포나 적대감이 내포된 담론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인종주의는 인간이 이질적 요소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특징에 따라서 정의된다. 신인종주의라는 이미 오래된 신조어의 탄생은 인종주의의 이러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유대주의를 근대적 개념이 아닌 고대 세계부터 있었던 현상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종주의를 볼 때 근대를 지배했던 생물학적 결정론과 신체적 특징에 따른 구분에 의거한 인종주의가 오히려 예외적이며 특수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종(Race)’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종류의 주장에 대해 ‘시원적 인종주의(proto-racism)’라는 이름표를 덧붙이는가 하면,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새로운 차별에 신인종주의라는 딱지를 붙이는 행위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한 근대적 인종주의를 하나의 시대적 맥락을 가진 개념으로 분리해내고, 그를 통해 인간의 이성이 발전시킨 근대의 비합리성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고대의 시원적 인종주의이건, 19세기의 인종주의이건, 20세기의 신인종주의이건 모두가 차이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 낸 타자성을 통해 주류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경계 밖으로 내몰리는 집단에 대한 시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근대의 ‘인종주의’는 유사과학이 만들어낸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구성된 배제의 논리에 붙여진 이름이며, 우리는 역사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배제의 논리를 이 개념을 통해 사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인종주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중 하나인 문화적 차이에 기반을 둔 동원과 배제의 논리에서 민족주의와 조우하게 된다. 어원상으로 ‘인종(Race)’과 ‘민족(Nation)’의 의미가 가지는 중첩성과

‘에스닉(ethnic)’에서 파생된 여러 특징들이 교차하는 복잡성 속에서 인종과 개인, 민족과 공간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정치성을 보게 된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하나의 종인 인간이 언어적 혹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타자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고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종을 구분 대신 문화적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취지로 발표된 1950년 유네스코의 ‘인종문제(The Race Question)’에 대한 선언은 지속적인 배제의 논리를 담은 인종주의에 대한 물이해와 시대적 한계를 담고 있다. 인류를 단일한 종으로 인정하고, 언어-문화적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인종(Race)’을 ‘에스닉 집단(ethnic groupe)’으로 대체하고자 제안하는 이 선언문은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한 근대적 인종주의의 종말을 고했을 뿐, 차이를 통해 타자를 인식하는 동인의 본질을 꿰뚫지는 못했다.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에스닉 집단’을 통한 구분은 우생학과 같은 유사과학을 극복할 수 있는 있었지만, 이후 특정 사회에 속한 하위 문화 공동체가 ‘인종적 집단’으로 규정되는 현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결국 현대사회는 ‘인종 없는 인종주의’라고 불리는 문화적 차이에 기반을 둔 신인종주의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특정한 ‘에스닉 집단’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적 특징은 피부색, 두개골 형태 등 제국주의 시대의 인종주의에서 신체적 특징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대 세계의 타자 인식 방식을 통해 인류역사에 있어서 신인종주의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인종주의가 사실은 오래된 문화적 요소였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종주의는 인간의 본성인가? 왜 우리는 고대 세계의 타자 인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타자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2. 그리스의 외부인 인식과 문화적 민족주의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생각건대, 도도네인들이 여인들을 ‘비둘기’라고 부른 것은 그녀들이 이방인들이라 그녀들이

하는 말이 비둘기 울음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뒤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자 그들은 ‘비둘기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다. 그녀가 비헬라스어를 말하는 동안에는 그녀의 말이 그들에게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쯤으로 들렸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비둘기가 어찌 사람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비둘기를 겁다고 한 것은 여인이 아이굽토스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굽토스의 테바이와 도도네에서 예언하는 방법은 서로 비슷하며, 제물로 바친 짐승의 내장을 보고 예언하는 기술은 아이굽토스에서 온 것이다. 아무튼 축제와 행렬과 제물 바치는 의식을 세상에서 맨 먼저 시작한 것은 아이굽토스인들이고, 헬라스인들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배웠다. 그 증거로, 이런 관행들은 아이굽토스에서는 아주 오래됐으나 헬라스에는 최근에야 도입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 고대 그리스인들은 스스로를 헬레네스(Hellenes)라고 칭하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비그리스인을 바르바로이(Barbaroi)라고 불렀다. 그리스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치 바바(barbar)라고 소리나는 것처럼 들렸고, 그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바바’거리는 사람들을 바르바로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인들이 언어가 다른 외부인을 인식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헤로도토스가 말하는 것을 요약하자면, 비둘기 소리는 다른 언어를 뜻하며, ‘검은 비둘기’는 피부색이 검은 이집트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그리스 세계는 이집트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리스인들이 만났던 바르바로이 중에는 피부색이 검은 흑인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건데 그리스인들은 - 특히 헤로도토스 자신은 - 흑인들을 헬레네스의 문화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인식했을 뿐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당대 그리스의 기록은 이집트인으로 묘사되는 흑인들이 우수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말해준다. 이집트 문명을 단순하게 흑인 문명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프리카 문명의 일부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따르면 아프리카 문명은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포함된 문명권이었다.

1) 헤로도토스, 천병희 역, 『역사』 (서울: 숲, 2009), 196쪽.

어쨌든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인들을 우수한 문명을 가진 사람들로 묘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들을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민족’으로 간주했다. “이 프삼미스가 아이굽토스의 왕이었을 때, 엘리스인들의 사절단이 그를 방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설한 올림피아 경기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아름다운 축제라고 자부했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민족인 아이굽토스인들조차 이를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엘리스인들이 아이굽토스에 도착하여 용건을 말하자 프삼미스 왕은 아이굽토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자들을 불러오게 했다.”²⁾ 헤로도토스의 이러한 인식은 제국주의 시대의 ‘문명화 사명’ 같은 논리가 근대적 산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고대 세계에서 흑인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문명의 전파자였다. 그리고 근대적 학문체계가 유럽 문명의 발상지로 정의한 그리스 세계는 흑인이 전파한 기술과 문화의 수혜자였다. 헤로도토스가 살았던 시기, 그리고 그보다 이전 시기 고대 그리스인들은 근대인들이 흑인들에 대해 흔히 가졌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현저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헤로도토스는 “캄뷔세스가 사절단을 보낸 이들 아이티오피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잘생겼다고 한다. 그들의 관습은 다른 민족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³⁾라고 전하면서, 관습의 차이를 이야기할 뿐이다. 차이만을 이야기하는 헤로도토스의 관점은 신비로움으로 포장하여 열등함을 드러내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과는 사뭇 다르다.

“1910년 6월 13일, 아서 제임스 벨푸어(Arthur James Balfour)는 영국 하원에서 ‘이집트에서 처리하여야 할 여러 문제’에 대해 연설했다.”⁴⁾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고대의 관점과 근대 이후 형성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집트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이드는 “벨푸어는 영국의회의 의원으로서 영국, 서양, 서양문명의 이름으로 당대의 이집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단순히 또 하나의

2) 같은 책, 258쪽.

3) 같은 책, 288쪽.

4)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1991), 68쪽.

식민지가 아니라, 서양제국주의의 성공을 입증하는 소재였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영국에 의해 병합되기까지 동양의 후진성을 할하는 소위 학문적 실례로만 이야기 되는 존재였다”⁵⁾라고 강조하면서 제국주의의 확장과 함께 이집트에 대한 인식이 고대의 관점과 확연하게 다르게 변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제국주의 시대가 만들어 놓은 지리적 경계, 문화적 경계와는 다른 관계들이 고대 세계에 설정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음에는 언어의 차이를 가리키는 헬레네스와 바르바로이 사이의 관계는 점차 이민족에 대한 그리스인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변화해갔다. 특히 헬레네스는 점차 문화적 공동체로 정의되었다. 이소크라테스(Isocrates)가 기원전 380년에 있었던 올림픽 제전에서 한 연설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지금껏 우리의 도시[아테네]는 사고와 언변에서 인류 최고였으며, 아테네의 제자들은 다른 세계의 교사가 되어왔습니다. 아테네로 말미암아, 이제 ‘헬레네스’라는 이름은 하나의 종족이 아니라 지성을 의미하게 되었고, 공동의 피를 나눈 자들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문화를 공유한 자들이 ‘헬레네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⁶⁾ 이러한 이소크라테스의 주장처럼 아테네의 문화 수준은 당시 인류 최고였을까? 당대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 에우독소스(Eudoxos)가 과학과 문화의 중심을 그리스가 아닌 이집트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아테네의 웅변가 이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진실이라기보다 신념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의 많은 지식인들이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헤로도토스 또한 『역사』에서 그리스가 이집트의 문화적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거의 모든 신들의 이름이 아이굽토스에서 헬라스로 도입되었다. 나[헤로도토스]는 신들의 이름이 비헬라스인들에게서 유래했음을 몸소 탐문하여 알아냈으며, 대개 아이굽토스에서 유래했다고 확신한다. 앞서 언급한 포세이돈과 디오스쿠로이들 말고는, 그리고 헤라, 헤스티아, 테미스, 카리스 여신들과 네레우스의 딸들 말고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모두 옛날부터 늘 아이굽토스 땅에 있어왔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굽토스인들이 하는 말을

5) 같은 책, 73쪽.

6) 마틴 버널, 오홍식 역, 『블랙 아테나』 (서울: 소나무, 2012), 160쪽.

그대로 전하고 있다. 아이큐토스인들이 그 이름을 모르겠다는 신들의 경우, 포세이돈을 제외하고는 펠라스고이족이 이름을 붙인듯하다. 헬라스인들은 포세이돈을 리뷔에인들에게 배웠다. 리뷔에인들만이 처음부터 포세이돈이란 이름을 알았고, 그를 늘 숭상했기에 하는 말이다.”⁷⁾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경에 활동한 크란토르(Krantor)는 “플라톤의 동시대인들은 그가 『국가』를 창안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제도를 배웠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플라톤]를 비웃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체론 (De Caelo)』에서 이집트인들의 문화적 우수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신분제를 창안한 이집트인들은 사제들에게 여가를 주었고 이를 통해 사제들은 수학을 발전시키면서 이집트는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진 문화를 향유하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렇게 축적된 이집트의 수리기술은 천문학을 비롯한 기하학과 대수학의 총체였으며, 그에 비하면 그리스인들은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⁸⁾ 이소크라테스의 신념과 선동은 아마도 더욱 객관적 기준에 의거했을 에우독소스, 헤로도토스, 크란토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인식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는 이 차이의 의미를 근대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 차이가 헬레네스를 정의하고 다른 집단을 타자화 시키는데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문화를 매개로 헬레네스의 통합을 주장하는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이소크라테스에게서 헤르더(J. G. Herder)의 사상으로 요약되는 18세기 독일의 문화적 민족주의의 요체가 발견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프라나메츠에 따르면 “민족주의란 문화적으로 불리함을 느끼는 민족들의 반작용이다. 그 반작용은 허약함과 불안정감에서 나오는 반작용이 아니고, 특정 조건들이 형성되었을 때의 반작용이다.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서로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이러한 민족들이 동일한 이념과 동일한 진보의 개념들을 공유하지만 그들 중 일부가 이러한 이념들을 성취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다른 민족들보다 나쁜 위치에 있거나 혹은 그렇다고 느끼는

7) 헤로도토스, 『역사』, 192쪽.

8) 마틴 버널, 『블랙 아테나』, 167쪽.

곳에서, 민족주의는 번창하는 경향이 있다.”⁹⁾ 문화적 민족주의가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그리스의 지위와 문화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소크라테스의 선동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었던 18세기 독일의 상황과 헤르더의 문화의식과 닮아있다. 즉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스를 근대적 언어로 읽어낸다면 마이네케(Meinecke)의 문화-민족(Kulturnation)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틴 버넬(Martin Bernal)이 지적하듯 고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오늘날 민족주의라고 정의하는 것과 유사한 감정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¹⁰⁾ 이소크라테스의 민족의식은 한 개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에 대한 이집트의 우월성을 느끼고 있었던 당대인들의 인식과 그에 대한 반작용과 함께 작동하는 그리스적 정체성의 - 헬레네스 - 형성 과정은 바르바로이를 타자화하는데 ‘문화’적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본 그리스의 문화적 정체성과 노예의 조건

헤로도토스가 살았던 시대보다 한 세기가 흐른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대 유사 과학이 만들어낸 인종적 구분과는 정반대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은 과학의 이름으로 비과학적인 인종주의 담론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블루멘바흐(Blumenbach)나 모턴(Morton)같은 근대인들의 생물학적 결정론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리아인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의 인종적 위계질서와는 다른 타자 인식이 고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밭 달림’과 ‘날개 달림’은 풀 [種]에서 차이를 낳는데, ‘흙’과 ‘검음’은 그렇지 못하다. [...] 한쪽은 정의(定義)이고 다른 한쪽은 밀감(재료)이기 때문에, 정의 속에 든 반대성들은 풀에서 차이를 낳지만, (풀이) 밀감과 함께 잡힌 것’(밀감과 풀의 복합물

9) 존 프라나메츠, 「민족주의의 두가지 유형」, 유젠 캄벤가 편, 손인수, 심창희 역, 『민족주의의 이해』 (서울:문음사, 1987), 54쪽.

10) 마틴 버넬, 『블랙 아테나』, 66쪽.

속에 든 반대성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검음’은 꿀의 차이를 낳지 못한다. 그리고 흰 사람과 검은 사람 사이에는 꿀의 차이가 없다. 이 사람들 저마다에 이름을 하나씩 붙이더라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여기서 밀감(재료) 같은 것이며, 밀감은 어떤 차이도 낳지 못하기 때문이다. [...] 왜 이 말(馬)이 사람과 꿀에서 다른가? 그것들에 대한 정의가 밀감과 함께 있는데도 말이다. 그것은 그것들에 대한 정의속에 반대성(반대되는 성질)이 (구성 요소로서 들어) 있기 때문이다. 흰 사람과 검은 말 사이에도 반대됨이, 그 꿀에서 반대됨이 있다. 그러나 사람이 희고 말이 검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둘 다 희다고 치더라도 꿀에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¹¹⁾ 아리스토텔레스는 흰 사람과 검은 사람 사이에는 종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을 동일한 종으로 파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그의 저작 속에서 상당히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정치학』에서는 “모든 동물 중 유독 사람만이 언어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과 동물을 나누는 기준을 로고스(logos)인 언어라고 강조한다.¹²⁾ 그리고 로고스의 의미는 이성으로까지 확대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언어 능력을 가진 모든 인간을 하나의 특별한 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수사학』에서 피부색이나 체격 조건 보다, 나이와 윤리적 가치관이 사람의 특징을 나누는 기준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한다. “예를 들어 절제하는 자의 절제는 바람직한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론과 정직한 욕망을 그 상관 관계로 갖는다. 반면 무절제한 자의 무절제는 동일한 대상을 다루면서도 반대의 결과들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분을 잠시 접어두고, 사람들의 다양한 자질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검토해보자. 아마도 우리가 흑인이거나 백인, 키가 크거나 작다면, 우리가 말했던 어떠한 결과들도 규칙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노인이거나 젊은이, 정당한 자이거나 부당한 자라면, 거기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¹³⁾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피부색과 상관없이 인간을 동일한 종으로

11) 아리스토텔레스, 김진성 역주, 『형이상학』 (서울: 이체이북스, 2001), 442-444쪽.

12) 아리스토텔레스, 라종일 역, 『정치학』 (서울: 올재, 2015), 21쪽.

13) 아리스토텔레스, 이종오 역, 『수사학』 (서울: 리젠펙, 2007), 153-154쪽.

파악하고 있다. 오히려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 내는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피부색과 신체조건을 통해 인간의 종을 구분했던 근대적 사고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종주의자인가 하는 물음에 의문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종주의적 태도를 견지했다고 보는 시각은 그가 노예제를 옹호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종류가 다르게,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집단과 지배받도록 되어 있는 집단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한 데에서 기인하였다.¹⁴⁾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은 인종(race) 개념의 출발점인 ‘종자’와 ‘혈통’을 구분하는 속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적 속성을 자연적인 인간 본성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유대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정의나, 고귀한 혈통을 중요시 했던 고비노의 인종주의와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종주의자인가? 그가 살았던 고대 그리스 세계에는 인종주의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사실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스스로가 -특히 피부색에 따른- ‘인종’은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는 논리적 구조를 체계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흰 사람과 검은 사람 사이에는 종의 차이가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 인식과, 혈통의식을 통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규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인식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상호 모순적이다. 이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더 극명한 논리적 대립을 보여 주었던 노예가 되는 상황과 조건을 살펴보자. 이 상황과 조건은 바로 자연적 상태의 노예라고 간주되는 노예들 사이의 결혼으로 태어나는 ‘모태예속민’들과,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해 자유인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근원적인 모순위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정복활동을 통한 노예 수급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을 기술하면서 노예제를 옹호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살펴본다면 당시 노예제를 옹호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취한 논리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4)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26쪽.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의 속성을 가진 자연적 상태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노예 상태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을 진정한 노예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런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부모가 포로가 되어 노예로 팔린다면 노예나 노예의 자손이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인들은 전쟁포로를 노예로 하는 원칙을 옹호하면서도 그런 사람을 노예라고 부르기를 꺼려하며 야만인만을 노예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견해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며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논한 자연적인 노예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야만인들처럼 어디에서나 본질적으로 노예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인들처럼 어디에서나 본질적으로 자유인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¹⁵⁾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노예의 존재와 그를 통한 노예성의 혈통적 전승을 통해 노예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예속된 상태인 노예들의 근원에 대해 논하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견해는 사실 자연적 노예 상태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옹변해주기도 한다. 즉 자연적 노예 상태의 시초를 입증할 계보학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앞에서 언급한 이소크라테스가 ‘헬레네스’를 인식하는 방식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인인 헬레네스와 노예인 야만인(바르바로이)로 구분하는 방식을 통해 자연적 노예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후에 로마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듯,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가 노예와 자유인을 나누는 경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당시 그리스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한다. 이 구절은 “당연하게도 야만인[외부인]들은 그리스인에 의하여 지배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야만인[외부인]과 노예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라고 해석한다.¹⁶⁾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주장의

15)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30쪽.

16) 같은 책, 18쪽.

핵심은 자연적 노예 상태의 조건은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전제조건 통해 혈통 관계에 의한 노예 본성의 세습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정복활동을 통한 노예 수급을 정당화 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피지배 집단에 속한 인간의 본성을 자연적 노예 상태로 규정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은 노예제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종주의자라기 보다는 당시 그리스 사회를 지탱하는 노예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체제유지론자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합당해 보인다. 우리는 “피지배계급이 잘 복종하고 혁명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게 하려면 그들 사이에서의 우애의 정신이 없어야 한다”¹⁷⁾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서 그의 정치적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티앙 드라캥파뉴(Christian Delacampagne)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통해서 적어도 그가 근대 시대에 앞서 인종주의의 원형을 제시 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⁸⁾ 특히 대항해 시대의 개막과 함께 있었던 라스카사스와 세폴베다의 논쟁에서 인종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세폴베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제1권의 논지를 인디언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옹호한 것은 명시적으로 노예제였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세폴베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끄집어 낸 것도 노예제 옹호의 논리였지 인종주의 그 자체는 아니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종주의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근대적 인종주의와는 다른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나, 근대적 인종주의가 형성하는 출발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세폴베다를 동일하게 인종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체제로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답하는 것이 가장 역사적 맥락을 잘 반영한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드라캥파뉴가 주장하듯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대적 인종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근대의 인종주의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17) 같은 책, 59쪽.

18) Christian Delacampagne, *Une histoire du racisme* (Pari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2000), p. 71.

논리를 이용하고 전유하는 방식을 규명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헬레네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을 그들의 ‘문화’로 정의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제를 옹호하고 노예의 본성을 자연적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서, 그를 근대적 의미를 가진 ‘인종주의자’라고 정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신인종주의적 정의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근대의 의미의 인종주의에서 상대화시킨 시원적 인종주의자라는 의미에 가두어 차별할 필요도 없어진다.

4. 로마의 사회적 위계 질서: 문화적 차이와 구별짓기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 그는 146년 렙티스 마그나(Leptis Magna)에서 태어나 16세에 로마로 이주했다. 라틴어를 구사했던 그는 강한 카르타고어 억양으로 놀림의 대상이었으나, 그리스 철학과 문학에 정통한 법률가이자 뛰어난 행정가로 성장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황제의 눈에 들어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특히 콤모두스(Commodus) 치하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히스파니아에서 호민관과 프라이토르를 지냈으며, 갈리아 루그두넨시스¹⁹⁾와 판노니아²⁰⁾의 총독을 지냈다. 아우렐리우스의 죽음과 콤모두스의 암살, 페르티낙스(Pertinax)의 실정, 디디우스 율리아누스(Didius Julianus)의 권좌 찬탈로 이어지는 혼란한 상황에서 당시 시리아 총독 페스케니우스 니게르(Pescennius Niger)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신성한 로마를 지켜낼 구원자로 추앙받는 동시에 황제의 예우를 받아 브리타니아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클로디우스 알비누스(Clodius Albinus)와 도나우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각자가 통솔하는 군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스스로 황제를 칭하였다. 이들 중 로마에 가장 먼저 입성하여 황제의 권좌를 차지한 이가 바로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였다.²¹⁾

19) 현재 프랑스 북부에서 리옹에 이르는 지역.

20) 현재의 헝가리, 오스트리아, 발칸반도 일대.

21) Allen M. Ward, Fritz M. Heichelheim, Cedric A. Yeo, *A History of the Roman People* (London: Pearson, 2009), p. 370.

셉티미우스 세베루스는 현재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근교에서 출생했다. 2세기 후반에 제작된 세베루스의 가족 초상화에는 다른 인물들과 달리 그의 피부가 유독 어두운 색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피부색이 어두운 흑인 계통의 사람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로마의 시민이었던 그의 병사들은 그를 황제로 옹립했으며, 로마제국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황제를 인정했던 것이다. 로마 제국의 장구한 역사에서 흑인 황제 즉위는 예외적 사건이라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황제로 즉위 할 당시 로마 주교 빅토르(Victor) 1세 또한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족 출신이었다. 로마 주교직은 4세기부터는 교황으로 불리게 되며, 빅토르 1세는 예수의 제자 베드로를 계승한 14번째 교황으로 기록되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예외적 사건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의 정치적 결단력과 군사적 배경이 그가 황제가 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권력을 장악하기 까지 보여준 이력은 근대적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로마는 정복지역 출신이라도 능력만 있다면 인재를 중용하는 개방적인 능력주의 사회였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즉위하기 이전 트리아누스(Traianus), 아우렐리우스, 피우스(Pius)는 모두 로마의 관점에서는 정복지 출신의 이방인 황제였으며, 원로원의 의원들도 다수가 속주에서 태어나고 그곳에 정치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²²⁾ 로마인들의 관심은 제국으로 편입된 외부인들을 어떻게 새로운 시민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데 있었으며, 이들과의 융합을 부국의 원천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제국 내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로마의 시민권 안으로 포섭하는 것은 통치 영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피에타스(공경심)을 불어넣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로마인들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 사회 질서의 요체였다. 혼합정치체가 공화정의 안정을 기반으로 제국을 만들었다면, 제국을 유지하는 힘은 개방성과 다양성에서 나왔다.

22) 안희돈, 『네로 황제연구』 (서울: 다락방, 2004), 94쪽 ; 정기문, 「로마인은 어떻게 제국이 되었는가-로마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9호(2008), 300-301쪽.

제국과 식민지, 백인 식민주의자와 유색인 원주민 사이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이며 하향식의 단선적 관계는 근대적 질서일 뿐이며, 고대 로마제국에서 출신지와 피부색은 통치를 위한 사회적 위계를 형성하는데 부차적인 요소였다.

흑인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시 백인 노예의 존재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기원전 73년 트라키아인 노예 스파르타쿠스(Spartacus)가 일단의 검투사들을 이끌고 노예 해방을 선동하였을 때 갈리아인과 게르만인들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은 가이우스 마리우스(Gaius Marius)가 킴브리아 전쟁에서 생포해온 전쟁 포로들로 농장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미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던 전쟁 포로들을 고된 노역으로 내몰았던 것이 강력한 저항의 원인이었으며, 로마를 위기로 몰아넣은 이유였다. 스파르타쿠스가 게르만인과 켈트인으로 구성된 부대와 트라키아인과 근동인으로 편성된 부대를 중심으로 마르쿠스 크라수스(Marcus Crassus)와 결전을 치루었다는 사실은 당시 노예 구성에서 백인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²³⁾ 아프리카를 기점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연결되는 대서양 무역을 통한 노예 거래는 ‘흑인=노예’ 또는 ‘아프리카인=노예’라는 등식을 만든다. 그러나 고대 로마가 만든 지중해 세계의 노예는 철저하게 제국의 영토를 기준으로 그 외부에서 만들어졌다. 이 노예 형성 구조는 로마를 중심으로 점차 주변부로 확장되는 제국적 성격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남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제국의 정복지에서 만들어지는 노예들은 백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흑인 노예라는 표상은 근대적 산물일 뿐이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로마 제국이 만든 노예에 대한 표상은 정복지 주민이나 전쟁 포로로서 피부색이나 두개골 형태 등 신체적 특징으로 로마인들과 구분할 수 없었다.

근대 세계의 대서양 삼각 무역이 노동력 공급지인 아프리카라는 공간에 노예의 정체성을 가두어 버렸다면, 고대 로마는 자신의 법이 미치는 영토 밖에 존재하는 이들을 노예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어떤 자유인

23) Allen M. Ward, Fritz M. Heichelheim, Cedric A. Yeo, *A History of the Roman People*, p. 393.

동맹국의 시민도 속주 관할 하에서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기원전 104년 원로원 포고에도 나타나듯, 법적 공동체 밖의 ‘인구’만이 로마의 합법적인 노예가 될 수 있었다.²⁴⁾ 근대 세계에서 노예에 대한 인식이 ‘특정한 곳(아프리카)에 속한 사람들’로 확장되면서 에스닉(ethnic)적 특징을 가진 노예집단이 타자화되었다면, 로마제국은 ‘특정한 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즉 로마의 시민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대상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위계질서를 확립했다. 고전기 로마법이 노예를 ‘법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했던 것도 ‘법의 주체’인 시민의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노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되는 대상의 조건은 - 피부색, 곱슬머리, 입술 모양, 두개골 형태 등 - 신체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의해 보호 받는 영역에 포함되었는가 하는 소속과 시민권 획득의 유무에 의해 규정되었다.

로마인들에게 혈통의 순수성이라는 개념 역시 시민권의 도덕적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로마에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행위는 주인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수단임과 동시에 자유를 갈망하는 노예들에게 충성심을 고취하는 방편이었다. 충성스러운 노예들이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로마의 전통이자 관행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공화정 말기의 혼란한 정국이 안정되자 공적 기준의 마련과 새로운 자유민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 문제가 대두되었다. 노예제 입법과 관련하여 수에토니우스는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전기에서 “그는 인민을 순수하게 그리고 외국인과 노예의 피에 의한 일체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매우 신중하게 부여하였고 노예해방에 제한을 두었다.[Suet. Aug. 40.3]”라고 진술하였다.²⁵⁾ 수에토니우스의 ‘외국인과 노예의 피에 의한 오염’ 문제는 당대의 로마인들이 노예제 확립의 필요성을 혈통의 순수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⁶⁾ 이러한 진술은 고대 로마의 노예제 입법의 동기가 근대적 의미의 인종주의에 기반을 두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24) 김창성, 「노예제의 이해와 역사수업-로마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 22호(2011), 9쪽.

25) 케이트 R. 브레들리, 차진환 역, 『로마제국의 노예와 주인: 사회적 통제에 대한 연구』 (서울: 신서원, 2001), 138쪽에서 재인용.

26) 같은 책.

그러나 브래들리(K. R. Bradley)가 강조하듯 특정한 인종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지 않은 이 진술은 “사회적, 도덕적 의미”에서 파악해야만 한다.²⁷⁾ 즉 혈통의 순수성이란 로마의 시민권이 야만적 습성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과 로마의 문화적 정체성이 이질적 문화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즉 수에토니우스가 말한 혈통의 순수성이란 생물학적 특징을 구별하는 요인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5. 맺음말

우리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노예가 -로마 시대에도 나타나듯 - 특정 문화집단의 외부인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근대적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면, 이소크라테스에게서 헤르더의 잔상을 불러냈듯이, 문화-민족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자의 면모를 더욱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러한 경향 - 근대적 언어로 설명하자면 지금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것 - 이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를 위해 작동할 때 그 안에서 근대 세계에서 인종주의라고 부르는 현상이 만들어낸 동일한 지배의 논리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를 로마 제국의 사회 경제적 통치 메커니즘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로마가 만든 세계에서 노예가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은 로마의 영토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 혹은 로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로마의 가치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예는 로마 문명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들이거나 로마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경계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노예가 된다는 것은 로마 문명을 향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즉 노예는 로마 시민에 반대되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노예의 조건과 시민의 조건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는 ‘로마 문화’였다. 로마가 흑인 황제와 백인 노예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였다는 사실은 피부색에 기반을 둔 인종 정치가 근대 세계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화’의 차이가 위계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대 로마 사회의

27)같은 책.

단면은 근대 질서와 거리가 멀었지만 근대를 극복하고 진화한 현대사회의 신인종주의적 문제들과 맞닿아 있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식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고대와 현대세계를 연결해주는 타자화의 기준이 ‘문화’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근대 민족주의의 배제 논리와 인종주의의 배제 논리가 같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신인종주의적 사회위기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혈통과 피부색에 기반을 둔 근대의 인종주의가 오히려 예외적 현상이라는 가설을 세운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까?

창원대학교, jajusdk@naver.com

키워드(Key Words):

인종주의(racism), 신인종주의(neo-racism), 문화(culture), 노예(slave), 고대세계(antiquity)

(투고일: 2016. 10. 23, 심사일: 2016. 11. 05, 게재확정일: 2016. 11.10)

<국문초록>

배제의 논리로서 ‘인종주의’의 역사적 기원:
고대세계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와 노예의 조건에 대한 인식

신 동 규

인종주의(Racism)란 무엇인가? 고대의 시원적 인종주의(proto-racism)이건, 19세기의 인종주의이건, 20세기의 신인종주의이건 모두가 차이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 낸 타자성을 통해 주류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경계 밖으로 내몰리는 집단에 대한 시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소크라테스(Isocrates)가 헬레네스를 문화공동체로 정의한 것이나 로마가 흑인 황제와 백인 노예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였다는 사실은 피부색에 기반을 둔 인종 정치가 근대 세계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화’의 차이가 위계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대 로마 사회의 단면은 근대 질서와 거리가 멀었지만 근대를 극복하고 진화한 현대사회의 신인종주의적 문제들과 맞닿아 있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식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고대와 현대세계를 연결해주는 타자화의 기준이 ‘문화’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근대 민족주의의 배제 논리와 인종주의의 배제 논리가 같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신인종주의적 사회위기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Historical origins of the Racism as a logic of exclusion:
Difference of Cultural identity in antiquity and Perception of
Slaves Conditions

Shin, Dongkyu

What is Racism? Whatever it is the proto-racism in antiquity, the racism in 19th century or the neo-racism in 20th century, all is related to the perspective on the group excluded from the community, or expelled out of the boundary. This perspective is made by the alterity which is formed by the perception of differences. In Ancient Greek, Isocrates considered the Hellenes as a cultural community and in the Roman Empire, a black emperor and white slaves coexisted together. These show that racial politic, based on skin color, is the products of modern period, and that the cultural difference is more important criteria for the order of rank than any others points. Though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Ancient Greek, Roman Empire and Modern Society, these aspects observable in antiquity are connected with the questions of neo-racism which has evolved in modern society.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e Culture is the most important criteria for alterity. It means that the logic of racism and that of nationalism has the same historical origin and that the social crisis caused from the neo-racism is not a exceptional phenomenon in human history.

■ 논문 ■

케네디 동화주의의 양면성과 1965년 개정 이민법의 한계

임 현 식

I. 머리말

본고는 1965년 개정 이민법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이 법안의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던 케네디 대통령(John F. Kennedy)의 동화주의에서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오스카 핸들린(Oscar Handlin)이 지적하였듯, 이민은 미국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며 이민법은 미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다양한 시도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이민이 미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1965년 개정 이민법은 1960년대 미국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1965년 개정 이민법은 1875년 이민법이 제정된 이래, 미국의 제한적인 이민 정책에 제동을 가했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1924년 국적기원법(1924 National Origins Act)의 쿼터제 원칙을 폐기하고, 우선권제(Preference) 원칙을 도입하여 그 이후 미국 사회의 인구학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실질적인’ 시발점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 법안이다. 특히 1965년 개정 이민법은 현대 미국 이민자들의 출신국가가 다양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다문화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65년 개정 이민법이 1924년 국적기원법의 원칙으로 지속되었던 쿼터제 원칙, 즉 북서유럽 국가의 이민의 특혜를

부여하였던 인종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였다는 점에 집중해보면 이 법안은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65년 개정 이민법이 통과되는 과정과 우선권제의 원칙을 적용하였던 미국 의회의 목적을 살펴본다면, 이 법안이 인종주의적인 원칙을 폐기하고 모든 국가의 동등한 이민 쿼터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 아니었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1965년 개정 이민법은 인종차별적인 쿼터제를 폐지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이민의 우선순위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이민자들의 가족들에게 배정되었다. 이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북서유럽의 출신의 이민자들에게 이민의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미국 의회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렇다면 1965년 개정 이민법이 이와 같은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이 법안은 이민 개혁안에 찬성하였던 진보적인 의원들과 보수적인 의원들 간의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발생한 결과물이다. 이는 1965년 개정 이민법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인, 1965년 8월 25일 미국 89대 의회 하원의 이민개혁안 토론에서 가장 잘 나타나있다. 87대 의회에서부터 이민 개혁안을 주도하였던 임마누엘 셀러(Emanuel Celler) 의원은 이민개혁안이 갑작스러운 인종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¹⁾ 88대 의회 내에서 이민 개혁안에 회의적인 움직임을 주도하였던 마이클 페이건(Michael Feigan) 의원, 제럴드 포드(Gerald Ford), 클라크 맥그레고르(Clark MacGregor)은 가족초청이민,²⁾ 유럽에 우선권 부여,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쿼터 부여 등의 조항이 이민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진보적인 성격(쿼터제 폐지)와 보수적인 성격(가족초청이민/우선권제)의 이중성은 미국 의회에서 진행된 여러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발생한 결과물이었다.

1) 89th Congress, *Congressional Record: Proceeding and Debates of the 89th Congress first sectio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5), p. 21579.

2) 89th Congress, *Congressional Record: Proceeding and Debates of the 89th Congress first section*, pp. 21584-21585, p. 21810, p. 21951.

동시에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양면성은 냉전 이후 미국 사회에서 강화되었던 내셔널리즘과 1960년대 이후 민권운동으로 상징되는 진보주의의 충돌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매나이(Mae Ngai)의 『풀리지 않는 과제 : 불법 이민자와 현대 미국의 형성(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에서 찾아볼 수 있다.³⁾ 나이는 냉전으로 인해 강화된 진보적인 의원들의 보수성이 민권운동에서 촉진된 인종차별철폐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급격한 인구구성의 변화를 원하지 않았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냉전에 비롯된 미국의 보수성과 1960년대 이후 나타난 미국의 진보성의 충돌이 1965년 개정 이민법의 통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본고에서 1965년 개정 이민법과 케네디 대통령의 연관성에 보다 집중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1965년 개정 이민법을 통과시킨 주체는 대통령과 의회였다. 민권운동이 여러 시민운동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1965년 개정 이민법을 통과시킨 주도하였던 주체는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사후 존슨 대통령(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이 법안을 주도하였으며, 이 법안을 상정하였던 쉐러 의원과 하트 의원(Philip Hart)이 의회 내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1965년 개정 이민법을 접근할 필요성을 느꼈다. 두 번째,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이론적인 배경을 검토해보기 위함이다. 1965년 개정 이민법의 핵심적인 쟁점 사항, 즉 쿼터제 폐지와 새로운 이민법의 원칙을 처음 소개하였던 사람은 1958년 당시 상원의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케네디였다. 케네디는 자신의 저서 『이민자의 나라(Nation of Immigrants)』에서 1924년 국적기원법의 원칙을 비판하고 새로운 이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새로운 이민 개혁안의 이론적 토대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추후 이민 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토의에 영향을 주었고 1965년 개정 이민법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서술된 케네디의 이민관은 진보적인 성격과 보수적인 성격을

3) Mae M. Ngai,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ne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는 1965년 개정 이민법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본고는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해보고,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의의와 한계를 케네디의 이민관에서 도출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II. 『이민자의 나라』에 나타난 케네디 동화주의의 양면성

다양한 문화와 민족으로 구성된 이민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미국의 동화주의 정책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용광로(Melting Pot)’이다. 그러나 용광로로 대표되는 미국의 동화주의는 지금의 동화주의와는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사용된 미국의 동화주의는 네이티브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용광로라는 표현은 1908년 희곡 작가였던 이스라엘 쟁윌(Israel Zangwill)이 처음 사용했던 단어이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용광로는 모든 이민자들을 하나의 미국적인 이상으로 통합시키려는 미국의 이민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각 시대별로 동화주의를 정의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면 좀더 명확해진다. 1920년대의 동화주의는 크게 3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앵글로 일체화(Anglo-Conformity)이다. 앵글로 일체화란 앵글로색슨의 중심 문화(Core-culture)에 이민자들의 이질적인 문화가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두 번째는 용광로이다. 1920년대의 동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용광로는 여러 이민자들의 국가가 앵글로 색슨 중심의 문화에 융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은 문화다원주의였다. 호레이스 켈런(Horace Kallen)이 주장하였던 문화다원주의는 다양한 인종이 각자의 개성에 맞게 미국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연방(federation) 혹은 다민족 민주주의 국가(democracy of nationalities)를 미국의 이상으로 여겼으며, 이는 1920년대의 주류 동화주의 담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주장이었다. 1940-50년대의 동화주의는 주로 핸들런의 저서 『뿌리 뽑힌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소외(Alienation)와 적응(Adjustment)를 통해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드려졌다. 핸들린은 소외와 적응을 통해 이민자들이 미국 구성원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미국화(Americanization)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동화주의가 학계·정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1960년대이다. 이 시대에 등장한 동화주의는 앵글로 일체화가 약화되었고, 용광로를 모든 이민자들의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미국 문화가 완성되는 용어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앵글로 일체화가 중심이 된 동화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이민자들의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미국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새로운 동화주의 사관의 중심에 케네디가 있었다.⁴⁾

케네디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형성된 뉴딜 자유주의의 영향과 민권운동의 신념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이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정치 철학이 이민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미국인과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민자의 나라』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케네디가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1958년에 출판되었으며 여기서 요약된 케네디의 이민관은 당시 미국 의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민자의 나라』에 서술된 케네디 이민관의 가장 큰 핵심적인 키워드는 새로운 동화주의이다. 케네디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민자들의 동화가 미국사의 진보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저서에 나타난 이에 대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이민은 평등과 자유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이다. 케네디는 이 책에서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정의하였던 평등과 자유의 개념으로 이민을 정당화시킨다. 토크빌은 미국과 유럽의 차이점을 평등으로 정의하는데, 미국이 평등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유럽의 신분 질서와는 달리 자유롭게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케네디는 이와 같은 토크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민자들을 옛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4) Russell, A. Kazal, "Revisiting Assimilation: The Rise, Fall, and Reappraisal of a Concept in American Ethnic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0-2(1986), pp. 445-449.

프런티어를 개척하려는 사람, 그들의 자유, 선택, 행동을 제약하지 않는 거대한 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가치관 하에 성장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국가라고 정의했다.⁵⁾

두 번째, 케네디는 이민을 사회적 유동성(social mobility)의 토대라고 보았다. 여기서 케네디가 정의한 사회적 유동성은 계층 이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케네디는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하였지만, 미국 또한 이민자들로부터 선진 정치 및 경제 시스템과 산업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민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질서와 기술이 미국 기존의 사상적·사회적 흐름과 상호작용하며, 자유로운 계층 간의 이동을 촉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케네디는 이민을 일방적인 인구의 이동이 아닌 미국의 사회적 유동성 그 자체로 파악했다.⁶⁾ 그리고 그는 미국이 최초의 국적법⁷⁾을 만들 때 자유 이민과 신분 이동의 자유를 등치시켰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 이민은 건국초기부터 지켜온 미국적 가치임을 정당화시켰다.⁸⁾

세 번째, 케네디는 미국의 이상(American Ideal)이 이민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보았다. 케네디는 미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5) John F. Kennedy, *A Nation of Immigrants* (New York: Harper & Row, 1964), pp. 2-4.

6) John F. Kennedy, *A Nation of Immigrants*, pp. 67-68.

7) 미국 최초의 국적법은 1790년 국적법(Nationality act of 1790)으로, 이 법안은 유럽인의 이민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 법은 1795년과 1798년에 걸쳐서 수정·보안되는데, 이 시기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1795년에는 5년, 1798년에는 15년)하고,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대통령 권한으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 추방 조항(the Alien Act)'이 국적법에 추가되었다. 1790년 국적법의 최대 쟁점은 이민 정책의 원칙에 관한 문제였다. 이민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유럽의 봉건적인 귀족 통치하에 자란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 체제를 오염시킬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여 선별이민을 주장하였으나, 대다수의 의원들은 미국의 이상향을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국가로 상정하여 이와 같은 선별이민을 반대하였다.

Roger Daniels, *Coming to America: A History of Immigration and Ethnicity in American Life* (New York: Perennial, 2002), pp.101-115. ; 이길용, 『미국 이민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92-98쪽.

8) John F. Kennedy, *A Nation of Immigrants*, pp. 69-70.

이민자들의 노동력, 삶의 양식 및 전통을 미국 역사 진보의 토대라고 파악했다. 특히 케네디는 자유 이민을 독립선언문에서부터 이어져온 미국 건국정신의 토대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네이티브즘 이후 시작된 제한적인 이민정책을 미국사의 대표적인 퇴보의 사례라고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민의 역사를 갈등과 통합의 장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이민자들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이상적 균열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미국 역사의 큰 강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갈등을 극복하여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역사를 통해 “용광로”라는 사회적인 프레임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미국의 역사는 사회적 균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단일한 국가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용광로는 이민자들이 엄격한 신분 체제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국의 이상에 흡수되는 사회적 절차(Social Process)였다.⁹⁾ 이런 점에서 그의 새로운 동화주의는 20세기 초 북서유럽인들만 동화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던 ‘용광로’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케네디는 미국의 역사를 기존의 전통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전통이 혼합되어 하나의 미국적 전통을 형성하는 진보의 역사라고 결론 내렸다.

이렇듯 ‘새로운 용광로’로 대표되는 케네디의 동화주의가 지향하였던 이민정책은 ‘기존의 용광로’가 지향하였던 이민정책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1924년 국적기원법이 중심이 된 기존의 동화주의 정책은 철저하게 앵글로색슨계 이민자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이 정의하였던 미국인 혹은 백인의 범주에서 남부와 동부 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은 철저하게 타자화되었다. 그러나 『이민자의 나라』에서 케네디는 미국에 온 ‘모든 이민자’들이 미국 진보의 핵심이자 주체라고 받아들였으며, 이들이 미국에 동화되는 과정이야말로 미국 발전의 핵심이라고 간파했다.

네이티브즘에 영향을 받은 기존의 동화주의란 미국화(Americanization)를 의미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화란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미국의 생활방식으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이러한 동화를 선호하는 집단은

9) *Ibid.*, pp. 67-68.

주로 앵글로색슨의 전통을 가진 이민자들의 후예였다. 또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역사학자였던 존 피스케(John Fiske),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휴고 뮌스터버그(Hugo Münsterberg)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동화의 대상에서 비 앵글로색슨계열의 이민자들을 철저히 배제하였다.¹⁰⁾

케네디의 동화주의는 이러한 기존 동화주의의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철폐하고, 동화의 대상을 모든 이민자들에게 확장하였다는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케네디의 동화주의에는 하나의 단일한 미국 문화 속에서 다양한 이민자들을 통합시키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주장한 보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케네디의 주장은 다양한 인종의 문화를 동화의 대상이 아닌 개별적인 주체로 본 캘런의 문화 다원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케네디의 새로운 동화주의는 미국의 역사가 이민을 통해 다양한 이민자들을 융합하여 단일하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나갔다고 결론 내림으로써, 동화주의의 앵글로색슨 중심주의와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철폐하였던 진보성과 동화주의를 강화한 보수성을 동시에 가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케네디는 이민자들을 동화의 대상으로 보았을 뿐, 모국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객체로 바라보는데 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하나의 미국을 강조하는 케네디의 이민관은 이러한 탈소수민족의식의 맹아를 철저히 배제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할 케네디의 ‘새로운 동화주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학계에서 주장한 것¹¹⁾과 같이 본고의 케네디

10) 스토 퍼슨스, 이형대 역, 『미국지성사』 (도서출판 신서원, 2005), 416-417쪽.

11) 케네디의 『이민자 나라』에 대한 기존 미국 학계의 연구는 이 저서를 통해 나타난 케네디의 주장이 기존의 용광로가 가지고 있었던 동화의 대상을 앵글로색슨계 이민자에서 모든 이민자의 대상으로 확장하려고 하였다는 진보성에만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미국정치·사회과학회보(*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에서 에드워드 케네디(Edward M. Kennedy)가 저술한 「1965년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of 1965*)」가 대표적이며, 2015년에 출판된 최근 연구 성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Gabriel J. Chin and Rose Cuison Villazor, eds.,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 Legislating a New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 54-55; Margaret Sands Orchowski, *The Law that changed the face of America: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 (Lond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5), pp. 56-65.

동화주의는 1950-60년대의 동화주의, 즉 앵글로색슨 일체화를 넘어선 새로운 용광로를 의미한다. 동시에, 본고는 『이민자의 나라』에서 나타난 케네디 동화주의의 보수성, 즉 1920년대 이미 제기된 문화다원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제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케네디의 새로운 동화주의를 새로운 용광로와 문화다원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제가 융합된 형태, 즉 보수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동화주의라고 정의하였다.

케네디 동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은 케네디의 이민정책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 3장에서는 87대와 88대 의회에서 이민 담론을 주도하였던 여러 의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케네디 동화주의가 미국 의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Ⅲ. 케네디의 이민정책과 미국 의회

1. 미국 의회와 네이티브즘

네이티브즘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미국 사회의 움직임이었다. 네이티브즘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미국에 확산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1830년부터 1850년까지 지속된 반 가톨릭적인 움직임이었으며, 두 번째 단계는 1870년대 초에 시작된 반 아시아적인 경향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18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반 이민정서인데, 이런 움직임은 결국 1924년 국적기원법 통과로 이어지게 된다.¹²⁾ 네이티브즘은 앵글로색슨 중심주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앵글로색슨 중심주의는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과 결합되어 앵글로 색슨이 유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라는 인종적 편견으로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진정한 미국인은 앵글로 색슨인의 후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종적 편견은 1882년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부터 1924년 국적

12) Daniels, *Coming to America: A History of Immigration and Ethnicity in American Life*, p. 265.

기원법으로 이어지는 제한적인 이민법의 통과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차 세계대전은 네이티브리즘에서 비롯된 인종적인 편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과 전쟁에 대한 회의감은 미국 내부에 반이민정서를 크게 확산시켰고 1924년 국적기원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민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케네디 대통령 임기 이후에 시작되었다. 2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케네디는 국적에 기원을 둔 쿼터를 수정하는 새로운 이민 개혁안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네이티브리즘에 영향을 받은 정치인들은 미국이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로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였으나, 반공의 프로파간다를 이민법 개정에도 적용하여 국적기원법의 원칙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동아시아권에도 상징적인 쿼터를 제공하였던 1952년 국적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쿼터제도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려는 케네디의 개혁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하원의 이민 위원회의 위원장이자 1952년 이민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월터의원과 상원 이민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이스트랜드는 쿼터법 폐지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었다.¹³⁾

국적기원법 원칙의 폐지와 이민 개혁안에 반대하였던 의원들의 주요 근거로 네이티브리즘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87대 의회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발언 가운데, 네이티브리즘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일화는 지아이모 의원의 발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민주당 지아이모 코네티컷 하원의원은 1961년 5월 22일 코네티컷 뉴헤이븐(New Haven)에서 열렸던 이탈리아 이민 위원회 회의에서 하였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였다.

1957년 5월 24일, 저는 의회에서 “쿼터를 얼마나 더

13) Susan Martin, *A Nation of Immigran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 186.

케네디 동화주의의 양면성과 1965년 개정 이민법의 한계

유지해야하는가?”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설에 대해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서 거주하고 있는 오스카 댐이라는 독자가 이민자에 대한 나의 의견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남부 유럽인, 특히 이탈리아인, 그리스인, 스페인인을 미국에서 추방해야 하며, 지난 몇 대에 걸쳐서 미국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이민법 개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을 발전시킨 주역이 앵글로 색슨 계통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표현하였으며, 미국은 남부 유럽인 특히 이탈리아인들의 출입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또한 추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¹⁴⁾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 1950년대 후반까지도 많은 미국인들이 아시아 쿼터에 관한 문제의식은 고사하고, 남동부 유럽인도 자신들이 범주화 시킨 백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다. 이는 앵글로·색슨 중심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려 했던 20세기 초 미국의 앵글로색슨 중심주의가 195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에 남부와 동부 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은 ‘백인’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인종차별주의 영향 속에서 남동부 유럽에 불평등하게 부과된 쿼터를 재조정하고 인종에 기반한 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케네디의 주장은 다소 급진적이었다.

또한 네이티브리즘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민 개혁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민 개혁안에 반대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해리슨 윌리엄스 뉴저지주 상원의원이다. 윌리엄스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멕시코와 미국의 경제적 협약이었던 브라세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는 미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케네디의 이민개혁안에 반대하였다. 윌리엄스는 브라세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하였다. 우선, 브라세로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 농촌 노동자들의 임금이

14) 87th Congress, *Congressional Record: Proceeding and Debates of the 87th Congress*, p. 8576.

하락하고 있으며, 매년 30만명씩 이주해오는 멕시코 계약 노동자들로 인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 아칸소에 있는 많은 농촌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브라세로 프로그램으로 멕시코 계약 노동자들을 고용한 농장은 전체 농장의 2퍼센트에 불과하며 가족단위의 소규모 농장은 이들을 거의 고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브라세로 프로그램의 멕시코 계약 이민 노동자들을 수송하는 교통 시스템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윌리엄스 의원은 자신의 발언 결론에서 1924년 국적기원법은 미국 시민권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법안의 한 사례임을 강조하였으며, 1924년 국적기원법의 원칙을 폐기하고 모든 인종에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민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시민권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¹⁵⁾

이렇듯 케네디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도 네이티브리즘에서 비롯된 1924년 국적기원법의 원칙을 고수하자는 주장은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민 개혁안에 회의적이었던 의원들은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이후에도 앵글로 색슨 중심주의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인종적 편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윌리엄스 의원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 이민 개혁안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민의 확장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염려하였으며,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미국의 시민권이 다양한 인종에게 확장된다면 그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¹⁶⁾

2. 미국 의회와 케네디 동화주의

『이민자의 나라』에서 나타난 케네디의 이민관에서 볼 수 있듯, 그는 1924년 국적기원법의 원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법이

15)87th Congress, *Congressional Record: Proceeding and Debates of the 87th Congress*, p. 1961.

16)Ngai,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ne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pp. 251-252.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상원의원시절부터 이민법 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케네디는 자신의 임기 초에는 이민법 개정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는 케네디가 임기 초에 다른 정치적이슈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기 초부터 이민법 개정에 집중할 경우 자신의 다른 개혁에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⁷⁾ 임기 초 이민법 개정에 대한 케네디의 상대적 무관심은 87대 의회 의사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87대 의회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민 개혁안에 관한 발언은 위에 소개된 윌리엄스 의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총 2건에 불과하다.

케네디는 자신의 임기가 안정화되기 시작한 88대 의회에서 이민 개혁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첫 번째, 이민법 개혁안에 다소 보수적이었던 상원 내에서 민주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87대 의회의 62.6%에서 88대 의회에서는 65%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3년 5월 31일 이민위원회 위원장이자 보수적인 이민법 지지자들의 거두었던 월터 의원이 세상을 타계하면서 백악관에 국적기원법 원칙의 유지를 직접적으로 건의하였던 의원들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렸다.¹⁸⁾ 케네디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63년 7월 23일 당시 상원의장이었던 린든 존슨과 하원의장이었던 존 윌리엄 맥코맥(John William McComack)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민 개혁안을 촉구하였다.

케네디가 촉구했던 이민 개혁안은 대체로 『이민자의 나라』에서 지적한 내용과 유사하나 좀 더 구체적인 안건으로 접근했다. 그는 1924년 국적기원법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지적하였다. 첫 번째, 1924년 국적기원법은 매년 15만6,700명을 이민 쿼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20년대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정한 숫자로 이러한 쿼터를 아직까지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1924년 이민법 국적에 따라 이민 쿼터에 차등을

17) Aristide Zolberg, *A Nation by Design* (New York: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 327.

18) *Ibid.*, p. 328.

두었기 때문에, 쿼터가 불평등하게 부여된 국가와 외교적 마찰이 생겨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 케네디는 1924년 국적 기원법이 북유럽 이민자들에게 지나치게 큰 혜택을 부여하고, 남부와 동부 유럽의 이민은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그는 이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들 가운데 남동부 유럽 출신의 가족을 초청할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북유럽 이민자들의 감소로 인해 이민 쿼터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¹⁹⁾

케네디는 이 서한에서 1924년 이민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민자들의 능력과 기술, 그리고 미국의 필요성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여 이민법을 제정할 것, 가족 초청을 통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결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2순위로 고려할 것, 합법적으로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을 3순위로 고려할 것 등 새로운 이민법의 청사진도 제시하였다.²⁰⁾

케네디 개혁안의 방향과 안전에서 볼 수 있듯, 그는 쿼터법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으며 국적기원법 이전의 자유적인 전통으로 복귀하자고 제안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케네디의 개혁안은 『이민자의 나라』를 통해서 본 그의 이민관에 비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청사진이다. 『이민자의 나라』에 따르면 이민자는 미국 진보 그 자체이며, 사회의 단점을 상쇄시켜주고 발전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원천이다. 이러한 사고를 근거로 개혁안을 작성한다면 쿼터법의 완전한 폐지를 전제로 하여 더욱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해야 하며, 미국의 경제적 필요와 이민자의 능력은 최우선 순위로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케네디의 저서와 개혁안의 괴리로 볼 때, 현실적으로 그는 쿼터를 완벽하게 폐지하여 1882년 중국인 배척법 이전의 자유 이민의 전통으로 회귀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케네디는 이민자들의 국적을 쿼터의 기준으로 제정한 이민법을 폐지하고 노동자

19) John Kennedy,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 and to the Speaker of the House on Revision of the Immigration law*.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9355> (검색일: 2016년 5월 27일).

20) *Ibid.*

초청을 쿼터의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이민 개정안을 주장함으로써 이민의 문호를 모든 국가로 확장시켰다. 이 정도의 선에서 케네디는 단계적인 변화를 통해 이민법 쿼터를 재조정할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동화주의를 이민법에 적용하였으며 동시에 급격한 인구 구성의 변화를 원하지 않았던 보수적인 정치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였다.²¹⁾

1963년 케네디가 제시한 구체적인 이민법 개혁안의 청사진은 미국 의회 내부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 직접적인 증거는 88대 의회 의사록 내부에서 케네디의 이민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발언 빈도수가 87대 의회 의사록에 비해 10건 이상 증가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월터의원과 이스트랜드 의원의 영향력으로 인해 이민개혁안에 보수적이었던 상원에서 이민법 개혁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1965년 개정 이민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필립 하트(Philip Hart) 미시건 주 상원의원, 클레이본 펠(Claiborne Pell) 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 토마스 도드(Thomas Dodd) 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이러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1963년 케네디의 이민법 개정안과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유사점을 갖는다.

첫째, 이민법 개혁안의 근거를 냉전의 구도 속에서 설명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정당성을 ‘이민자의 나라’로 구성된 미국의 역사에서 찾았다는 점이며, 이를 토대로 이민자들에 대한 동화주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새로운 정치적 입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이를 이민법 개정안과는 분리시키려고 하였던 보수적인 의원들을 현실정치와 이데올로기적인 정당성을 통해 설득한 케네디의 『이민자의 나라』와 동일선상에 있다. 이러한 진보적인 상원의원의 주장은 1963년 6월 13일 상원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사록에는 1963년 6월 10일

21) 황혜성, 『미국의 다문화주의: 민권운동과 1965년 이민개혁법의 조우, 그리고 예견치 못했던 결과』, 『이화사학연구』, 35(2007), 86쪽.

워싱턴 D.C의 메이플라워 호텔(Mayflower Hotel)에서 열렸던 이탈리아 이민위원회(American Committee on Italian Migration)에서 주요 연사로 참여하였던 하트 의원의 연설문 「진보적인 이민(Liberalized Immigration)」이 기록되어 있다.

이민에 관한 이러한 문제는 미국에서 있어서 단지 이타주의적인 질문만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역사가 지닌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민자들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 또한 이민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이민자들은 건국초기부터 미국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 싸웠고 이 나라를 발전시켰으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자유와 세계의 지도자로 발돋움하는 꿈을 꾸었고 이러한 계획을 실천해 옮겼습니다.²²⁾

이와 같은 하트 의원의 발언은 인종차별문제를 미국 민주주의 그림자라고 주장한 소련의 프로파간다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케네디의 주장이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예이다.

둘째, 이민법 개정안의 이유를 경제적인 이유에서 찾은 것이다. 이는 케네디가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은 미국의 사회적 유동성 그 자체’이며 미국의 경제적 발전에 새로운 원천을 제공해주는 도구라고 파악한 점과 동일선상에 있다. 구체적인 예시는 1963년 5월 14일 상원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민 쿼터 제도의 개혁(Reform of the Immigration Quota System)」을 주제로 한 도드 의원의 발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이 이민자를 필요로 하는 당위성은 계속 변화했을지라도 이민자의 필요성은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그들은 한때 미지의 개척지였던 사회를 고도로 복잡한 산업사회로 바꾸는데 필요한

22)88th Congress, *Congressional Record: Proceeding and Debates of the 88th Congress second section*, p. 10782.

케네디 동화주의의 양면성과 1965년 개정 이민법의 한계

노동력을 담당하였으며, 오늘날 그들은 숙련노동자, 기술자, 의사와 같은 전문적인 직업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²³⁾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의 전체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 수준은 미국 전체 인구의 수준보다 뛰어납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민정책을 개방한다는 의미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를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미국을 좀 더 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 즉 미국 자신을 도와주는 측면도 존재합니다.²⁴⁾

그럼에도 도드는 자신의 연설을 ‘나는 희망한다(I am hopeful)’이라는 문장으로 결론 내리게 되는데 이는 88대 의회에서도 이민법 개혁안의 성과가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실제로 88대 의회의 많은 의원들은 1952년 이민법의 국적 기원에 관한 조항을 개정해야한다는 대의에는 찬성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의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²⁵⁾ 오히려 당시 상원 사법위원회위원장이었던 제임스 이스트랜드(James Eastland)는 인종적인 변화를 이유로 이민 개혁안을 거부하였으며, 남부 민주당의원들과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힘을 결집하여 이민 개혁안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을 전개하기도 하였다.²⁶⁾

그러나 87대와 88대 의회에서 케네디가 이민 개혁안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경주했던 많은 노력들이 결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상원의장이었던 린든 존슨은 1952년 국적법 통과 당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 상원에서 이를 기각하는데 투표하였던 사람이다. 그러나 린든 존슨은 1965년 개정 이민법이

23)88th Congress, *Congressional Record: Proceeding and Debates of the 88th Congress first section*, p. 8431.

24)*Ibid.*, p. 8432.

25)Orchowski, *The Law that changed the face of America :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 p. 48.

26)Zolberg, *A Nation by Design*, p. 329.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²⁷⁾ 민권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존슨이 국적법에 대해 보인 인식의 변화는 케네디의 이민관에서 영향 받았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존슨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듯, 케네디의 이민관은 당시 의회의 유력한 의원들이 이민법 개혁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1965년 개정 이민법 통과에는 다른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했다.

IV.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의의와 한계

하트 의원과 셀러 의원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 케네디의 『이민자의 나라』에서 서술된 새로운 동화주의에 대한 개념과 냉전 질서에 맞는 이민법의 필요성이 의회 내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 국적기원법의 원칙을 폐기하고, 인종주의적 편견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새로운 이민법의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점을 필요로 하였다. 88대 의회 의사록에서 볼 수 있듯, 새로운 이민 개혁안에 대한 요구는 87대 의회에서보다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이민개혁안이 통과될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런 시점에서 케네디의 암살은 민권법안과 투표권 개정 뿐 아니라 이민 개혁안의 통과에도 전환점이 되었다. 오르츠스키는 케네디의 암살이 이민법 통과에 작용한 영향력을 ‘적절한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Timing is everything)’²⁸⁾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케네디의 암살은 이민법 개정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였고, 의회에서도 케네디의 이민관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됐다.

케네디의 암살이 이민법 통과에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27) *Ibid.*, p. 329.

28) Orchowski, *The Law that changed the face of America :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 p. 70.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새로운 동화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민법 통과와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선, 케네디의 암살 이후 이민 개혁안에 반대하였던 의원들의 논의에는 ‘인종주의적’인 색채가 보다 확연하게 나타났다. 케네디의 새로운 동화주의의 영향으로 이민 쿼터에 남부와 동부유럽을 포함시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동화주의의 외연을 라틴아메리카에까지 확장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는 의원들은 상당하였다. 이는 민권운동의 진보주의로 인해 1960년대 미국이 인종차별의 편견을 극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냉전으로 인한 내셔널리즘의 강화로 유럽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이민정책 속의 유럽중심주의’는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는 보수적인 의원들 뿐 아니라, 1965년 개정 이민법을 주도하였던 진보적인 의원들이 보인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였다. 4장에서는 89대 의회 의사록에서 나타난 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진보주의적 내셔널리즘이 케네디 이민 개혁안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1965년 개정 이민법 통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1. 케네디의 암살과 동화주의의 확산

1963년 11월 22일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은 88대 의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이민 개혁안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²⁹⁾ 케네디의 암살 이후 의회 내부에서 나타난 이민법 개혁안의 가장 상징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이스트랜드 상원 이민위원회 위원장의 태도였다. 비록 그는 국적에 기원을 둔 쿼터법 폐지에 개인적으로 큰 호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민법 개혁안의 입법에는 협조 의사를 표명하였다.³⁰⁾

케네디의 암살 이후, 케네디의 이민관이 미국 의회 내에 보다 강력한

29) *Ibid.*, p. 48.

30) Martin, *A Nation of Immigrants*, p. 187.

영향력을 미친 증거는 1964년 5월 18일, 하원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켈러 의원이 의회 외부에서 한 발언(Extension of Remarks)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제가 발의하는 법안은 이민 희망자의 국적에 따라 이민쿼터를 배분하는 것 대신에 이민자의 출신국가를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이민 쿼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쿼터에 적용할 카테고리는 인종, 국적, 시민권 혹은 출신지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카테고리는 (1) 이민자들의 능력 혹은 (2) 미국 시민권자들과의 관계 혹은 미국에 이미 입국한 이민자로 나누되 (3) 인도주의적인 그리고 박애적인 차원에서 많은 양의 이민쿼터를 망명자 혹은 난민들을 위해 남겨놓는 것입니다.³¹⁾

제가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한 것은 애석하게도 지금은 고인이 된 순교자 케네디 대통령이 시작한 일을 따르기 위함이며, 그의 유지는 현재 대통령인 린든 존슨에 의해 완벽하고 활기차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미국 이민의 기본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것입니다.³²⁾

켈러 의원은 『이민자의 나라』와 1963년 이민 개정안을 촉구하는 서한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던 케네디의 안건을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고인이 된 케네디를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케네디의 유지를 받들어 존슨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고, 동료 의원들에게도 지지를 적극 표명한 것을 알 수 있다.

켈러 의원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 이민개혁안에 찬성하였던 의원들은 케네디 사후에 그의 유지를 받들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 개혁안에 적극적이었던 하트의원은

31)88th Congress, *Congressional Record: Proceeding and Debates of the 88th Congress second section*, p. 11242.

32)*Ibid.*, p. 11243.

이민법 개정에 보수적이었던 의원들의 가장 큰 정치적 약점, 즉 2차 세계대전동안 전 세계에 공개된 인종적 편견의 폐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케네디의 새로운 동화주의에 기반을 둔 이민법 개혁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이민 개혁안은 인종주의적 편견에 기반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네이티브리즘과의 단절을 요구하였다.

케네디 사후 진보적인 안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또한 의회 내부에서 이민법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964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에서 기존 65석에서 68석으로, 하원에서는 258석에서 295석으로 의석수가 확장되었다.³³⁾ 뿐만 아니라 이민 개정안에 가장 민감해야 할 노동조합도 이민 개혁안이 이민의 문호를 제한적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정치인들의 설득으로 이민법 개정안에 별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³⁴⁾

2. 네이티브리즘과 케네디 동화주의의 타협

1965년 개정 이민법은 8월 25일 하원에서, 9월 22일 상원에서 비준을 받은 후에 10월 3일 존슨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통과되었다. 그러나 1965년 개정 이민법이 미 의회 내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민법 통과에 걸림돌이 된 핵심적인 토의내용은 제 3세계 국가들, 그 가운데에서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이민에 관한 문제였다. 이러한 핵심 조항에 관한 의회의 토의는 1965년 개정 이민법의 통과 당일인 1965년 8월 25일 89대 미국 하원 의사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965년 개정 이민법 통과 직전에 하원에서는 이민 개혁안에 관한 마지막 회의를 가졌으며, 89대 의회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민에 관한 의원들의 발언은 이날 기록되어 있는

33) https://en.wikipedia.org/wiki/89th_United_States_Congress (검색일: 2016년 6월 22일).

34) Ngai,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ne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p. 260.

회의록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1965년 개정 이민법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된 정치적 타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월 25일 하원에서 진행된 법안의 핵심 쟁점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장은 이를 고려하여, 1965년 개정 이민법의 타협과정을 8월 25일 하원에서 진행되었던 이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이민 개혁안에 대해 하원에서 진행된 핵심적인 발언은 크게 찬성/조건부 찬성/ 반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찬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발언은 셸러³⁵⁾, 무어(Arch Moore, Jr.)³⁶⁾, 곤잘레스(Henry González)³⁷⁾, 그래보우스키(Bernard Grabowski)³⁸⁾, 아담스(Brock Adams)³⁹⁾, 필립 버튼(Phillip Burton)⁴⁰⁾, 마수나가(Spark Matsunaga)⁴¹⁾의 발언 등 총 7건이며, 조건부 찬성은 델라니(James Delaney)⁴²⁾, 매든(Ray Madden)⁴³⁾, 페이건, 스위니(Robert Sweeney)⁴⁴⁾, 할펀(Seymour Halpern)⁴⁵⁾, 포드⁴⁶⁾, 슈바이커(Richard Schweiker)⁴⁷⁾, 맥그레고르⁴⁸⁾의 발언 등 총 8건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발언은 듀워드 홀(Durward Hall)⁴⁹⁾, 이코드(Richard Ichord)⁵⁰⁾,

35) 89th Congress, *Congressional Record: Proceeding and Debates of the 89th Congress first sessio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5), p. 21579.

36) *Ibid.*, p. 21589.

37) *Ibid.*, pp. 21629-21630.

38) *Ibid.*, p. 21764.

39) *Ibid.*, pp. 21765-21767.

40) *Ibid.*, p. 21783.

41) *Ibid.*, pp. 21782-21783.

42) *Ibid.*, p. 21571.

43) *Ibid.*, p. 21578.

44) *Ibid.*, p. 21765.

45) *Ibid.*, pp. 21778-21779.

46) *Ibid.*, p. 21810.

47) *Ibid.*, p. 21828.

48) *Ibid.*, p. 21951.

49) *Ibid.*, pp. 21775-21776.

50) *Ibid.*, p. 21789.

스미스(Howard Smith)⁵¹⁾의 발언등 총 3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1965년 8월 25일 89대 미국 하원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민 개혁안에 관한 다른 여러 발언들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발언의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중복되는 주장은 생략하였다.

이민 개혁안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하였던 의원들 가운데, 미국 노동자들의 숫자와 실업률을 고려하여 이민 개정안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던 매든 인디애나 하원의원과 할펀 뉴욕 하원의원을 제외한 많은 의원들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것을 염려하였다. 이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하원에서 토의 중에 있는 법안, 즉 국적에 기원을 둔 이민법안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은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촉구할 법안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서반구(영국, 서독,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 이외의 지역은 이민의 총수가 17만명으로 제한되었지만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이민은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⁵²⁾

이러한 법안을 비차별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민 개혁안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선호하였던 이민자들을 역차별하고 있습니다.⁵³⁾

본 발언은 1965년 8월 25일 하원에서 클라크 맥그래고르 미네소타 하원의원이 미네소타 일간지인 세인트 폴 파이어니어(St. Paul Pioneer Press)에 게재한 칼럼 「새로운 이민의 위험성(New Immigration Danger)」을 재인용한 내용이다. 이 발언에서 알 수 있듯, 맥그래고르는 서반구의 쿼터를 폐지할 경우 보수적인 의원들이 가장 두려웠던 이민의 증가, 즉 라틴아메리카인들이 대량으로 미국에

51) *Ibid.*, p. 21789.

52) 89th Congress, *Congressional Record: Proceeding and Debates of the 89th Congress first section*, p. 21808.

53) *Ibid.*, p. 21808.

들어올 것을 우려하였다. 89대 의회 의사록에는 이를 ‘맥그레고르의 조항(MacGregor Amendment)’⁵⁴⁾이라고 규정하는데, 맥그레고르의 조항은 이민 개혁안이 불러올 라틴 아메리카의 이민을 경계하고 미국의 이민법은 어디까지나 친 서유럽적인 성격이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통칭한다.

맥그레고르 의원의 발언은 미시건 주 하원의원이었던 제럴드 포드의 의원의 동의를 받기도 하였다. 맥그레고르 의원을 옹호하였던 포드 의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특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서유럽 국가들과 혈맹으로 이어진 관계, 즉 보다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과 스칸디나비아반도의 국가, 그리고 모든 서유럽국가들과 피로 맺어진 강력하고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여 왔습니다.⁵⁵⁾

이 발언은 미국이 먼로 독트린 이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불공정한 쿼터가 배정된다면 이러한 전통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 코르넬리우스 갤러거(Cornelius E. Gallagher) 뉴저지 하원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었다.⁵⁶⁾

맥그레고르는 ‘맥그레고르 조항’이라는 의회 의사록의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할 만큼 친 서유럽적 / 반 라틴 아메리카적인 의견의 최선봉에 있었던 의원이었다. 또한 포드는 하원에서 공화당 원내 대표(House Minority Leadership)를 맡고 있었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54) *Ibid.*, p. 21762, p. 21763, p. 21765, p. 21769, p. 21771, p. 21773 외 다수.

55) *Ibid.*, p. 21810.

56) *Ibid.*, pp. 21810-21811.

맥그레고르와 포드의 발언은 89대 의회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의원들의 여러 발언 가운데 친 서유럽/반 라틴 아메리카적인 의견을 대표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첫 번째, 앵글로색슨 중심주의로 대변되는 네이티브즘은 케네디의 암살 이후 확산되었던 미국 진보주의 풍토 속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맥그레고르 의원은 페이건 의원과의 공동으로 진행하였던 의회 발언에서 서반구에 쿼터가 제정되지 않고, 가족초청이민이 이민 개혁안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의회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하였다.⁵⁷⁾ 가족초청이민은 이민자출신의 미국 시민권자들의 가족에게 이민의 특혜를 부여하려는 안건으로, 이 안건이 이민 개혁안에 포함될 경우 1924년 국적기원법의 영향으로 미국 시민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서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이 이민의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1960년대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민권운동의 결과로 국적기원법이 인종분리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⁵⁸⁾ 19세기 후반 남동부 유럽에 넘어왔던 이민자들의 후예들이 미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던 시대였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자신들의 모국이 나치에 의해 억압받는 것을 경험했으며 1924년 국적기원법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⁵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그레고르, 포드를 필두로 하는 친 서유럽적인 정책을 고수하려는 의원들은 여전히 영향력을 견지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진보주의적 내셔널리즘의 영향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쿼터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보적인 의원들이 동의하였다는 사실이다. 상원에서 이민 개정안을 주도하였던 하트 의원은 1965년 9월 15일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에서 열린 이민에 관한 회의에서 미국 이민정책 역사상 유럽 국가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배제한 사례가 없다면 기술자 초청 이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에 회의적인

57)Orchowski, *The Law that changed the face of America :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 pp. 74-76.

58)Zolberg, *A Nation by Design*, p. 324.

59)Martin, *A Nation of Immigrants*, p. 190.

반응을 보였다.⁶⁰⁾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또한 이민 개혁안이 1952년 국적법을 현재 이민 실정에 맞게 개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연간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숫자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급격한 인구구성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⁶¹⁾ 제 3세계에까지 이민자를 확산시키는 것을 경계하였던 진보적인 의원들의 입장은 1) 냉전으로 인해 타국, 특히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적색공포가 확산되었으며, 2)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인해 내셔널리즘(Economic Nationalism)이 강화되었고, 3)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비교적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럽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⁶²⁾

따라서 1965년 개정 이민법은 인종차별주의적인 조향을 폐지하되 이민 개혁안이 불러올 제 3세계 출신의 이민자(특히 라틴 아메리카)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타협점, 즉 케네디 동화주의와 네이티브리즘의 절충과 타협 속에서 통과되었다. 이러한 절충과 타협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 잘 반영되어 있다. 1965년 개정 이민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민자들의 국적에 따라 이민 쿼터를 부여하였던 1924년 국적기원법의 원칙을 폐기하고 그 대신에 ‘우선권제/선호제(system of preference)’ 하에 선착순의 원칙에 따라 이민 비자를 할당하였다.⁶³⁾ 이민의 우선권은 7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는데 우선순위의 1-5순위가 미국 시민권을 소유한 이민자들의 가족에게 배정되었다.⁶⁴⁾ 그리고 서반구에 대한 이민자 쿼터는 연간 12만명, 동반구의 이민은 연간 17만명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모든 나라는 연간 최대 2만명의 비자를 할당받을 수

60)Orchowski, *The Law that changed the face of America :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 p. 74.

61)Zolberg, *A Nation by Design*, p. 330.

62)Ngai,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ne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pp. 242-254.

63)김연진, 「미국 이민의 이미지와 ‘이민의 나라’ 미국 : 시사 잡지 표지(1965-1986)를 통해 본 이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26(2007), 163-164쪽.

64)Charles B. Keely, “Effect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65 on Selected 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8(1971), p. 160.

있었으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이하의 자녀들과 친부모들은 쿼터에 구애받지 않고 이민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⁶⁵⁾ 이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북유럽 이민자들에게 여전히 유리한 조항이었으며, 따라서 숙련 노동자들을 이민의 최우선 순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1963년 케네디의 이민개혁안에 비해 보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선호제 쿼터 배정의 최대 피해자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출신의 이민자, 특히 멕시코인들이었다. 멕시코의 경우 1960년대에 브라세로 프로그램으로 20만명 가량의 노동자들과 3만 5,000명의 영주권자들이 매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멕시코는 2차 세계대전동안 군 입대로 생긴 미국의 부족한 인력을 충당시켜주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들 브라세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였던 대부분의 멕시코 노동자들은 계약 노동자 출신이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모든 국가의 쿼터가 연간 2만명으로 변경되고 이민의 우선순위가 가족초청이민으로 바뀌면서, 멕시코 노동자들의 미국 입국은 상당부분 제한되었다. 뿐만 아니라 1965년 개정 이민법은 이민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와 이민자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국가 간의 쿼터 재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추후 멕시코 출신의 불법 이민노동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으며, 미국 의회가 급격한 인구변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⁶⁶⁾ 그러나 19이러한 미국 의회의 의도와는 다르게 1970년대 이후 가족초청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이민자들은 보수적인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멕시코 이민자와 아시아 국가들 출신의 이민자들이었다.

1965년 개정 이민법은 비록 인종주의적 원칙을 폐기하고 선호제를 도입함으로써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다문화주의적 미국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되어야

65) 이길용, 『미국 이민사』, 293쪽.

66) Ngai,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ne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p. 261.

할 것이다. 이는 네이티브즘의 영향으로 이민 개혁안에 회의적이었던 의원들 뿐 아니라, 케네디의 이민관에 영향을 받아 이민 개혁안에 호의적이었던 의원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이민 개혁안에 호의적이었던 의원들은 인종주의적 편견을 국적법의 원칙에서 배제하는 것에는 찬성하였다. 그러나 1965년 개정 이민법이 미국의 인종적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켈러의원과 로버트 케네디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급격한 인구구성의 변화는 그들이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진보적인 의원들은 냉전과 경제적 발전을 경험하며 내셔널리즘이 강화되었다. 민권운동은 앵글로색슨 중심주의를 극복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지만, 냉전으로 인해 진보적인 의원들의 이민 정책 내의 유럽중심주의는 오히려 강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인 의원들은 이민정책을 통해 남동부 이민자들을 동화하는 것에는 별다른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동화 대상의 외연을 라틴 아메리칸인, 나아가 아시아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20세기 초에서 시작되었던 문화다원주의에 대한 담론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더욱 긴밀해진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간의 경제적 협력은 상당부분 무시되었다.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와의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고려해본다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미국의 인종의 변화는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던 결과였다. 그럼에도 보수적인 의원과 진보적인 의원들은 1965년 개정 이민법의 합의 과정에서 냉전으로 인한 내셔널리즘의 강화와 이민정책에 관한 유럽중심주의의 부활로 인해 추후 다가올 미국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1965년 개정 이민법으로 인해 미국 인구 구성의 변화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켈러 의원과 이스트랜드 의원의 발언은 진보와 보수 그 어느 양쪽도 이 같은 변화와 새로운 담론에 둔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미국은 20세기 초부터 꾸준히 문화다원주의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1952년 국적기원법의 한계에서 볼 수 있듯, 이민자 쿼터의 제정으로 모든 이민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미국 의회에서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실질적인 결과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안을 ‘의도하지 않았던’ 개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한 결과인 것 같다. 그 이유는 1965년 개정 이민법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결론내릴 경우, 이 법안을 상정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의회가 문화다원주의 이론적 배경과 사회적 변화에 무지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V. 맺음말

1965년 개정 이민법은 현대 미국인들의 구성, 문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초래한 법안으로 케네디는 이러한 변화의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한 대통령이다. 그는 미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이민의 역사를 등치시켜 책을 저술하는가 하면, 서한을 통해 이민 개혁안의 안건을 제시하여 보수적인 의원들을 설득했다. 당시는 냉전의 구도가 새롭게 구축되고 민권운동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을 때라서, 인종차별적인 이민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 더욱이 그는 ‘불평등한 쿼터제 폐지’의 정당성을 미국 독립선언서에 근거해 주장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민법에 반대하였던 의원들이 이민개혁안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인 요소가 아닌 경제적인 요소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은 이러한 케네디의 정치적 정당성이 호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케네디의 이민관과 이를 토대로 이민 개혁안의 통과를 이끌어낸 의원들의 한계점 또한 지적돼야 할 것이다. 1965년 개정 이민법 통과로 지적받고 있는 ‘의도하지 않았던 개혁’의 중대한 문제점은 이민 개혁안을 찬성하고 주도하였던 어떤 의원도 문화 다원주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추후 도래할 미국 다문화주의에 대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1965년 개정 이민법의 가족 초청 이민의 조항이 멕시코와 아시아 이민자들의 증가로 이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1965년 개정 이민법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 공평한 쿼터를 부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며, 이미 미국 내에서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법안을 상정하고 주도하였던 의원들은 이러한 변화에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대비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떠한 의원도 미국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동화주의와는 대비되는 다원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했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진보적인 의원들의 한계에 대한 원인을 냉전과 경제적 발전에서 비롯된 내셔널리즘의 강화와 이민 정책 내의 ‘유럽중심주의’에서 찾았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케네디 이민관의 영향을 고려해본다면, 진보적인 의원들이 다원주의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또 다른 원인은 케네디의 새로운 동화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케네디의 동화주의는 국적기원법의 원칙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이민 개혁안을 통해 들어올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동화될 것이라 자신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1950년대 이전의 미국 다문화주의는 동화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다문화주의가 동화정책의 연장선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의 유명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킹은 흑인이 백인과 함께 동화되는 것을 미국 사회의 이상향으로 상정하였을 뿐, 백인성과 차별되는 흑인성을 강조하지 않았다.⁶⁷⁾ 케네디 동화주의의 핵심 키워드가 ‘용광로’라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케네디는 이민 개혁안을 통해 들어오게 될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이 기존에 살고 있었던 미국인과 동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동화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문화 다원주의에 대한 반성은 이미 미국 사회에서 20세기 초에 형성되었다. 호레이스 캘런은 1915년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 「민주주의 대 동화주의」에서 미국이 용광로라는 하나의 사고관 속에서 모든 이민자를 통합하는 것을 비판하며 개인의 개성을

67) 박용희 외 저, 『다민족·다인종 국가의 역사인식 : 갈등의 역사와 공존의 모색』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47쪽.

강조하는 ‘오케스트라’적인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바 있다.⁶⁸⁾ 그럼에도 케네디의 동화주의는 문화 다원주의 속에 존재하였던 탈소수민족의식의 맹아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동화주의적인 단면에 집중했다.

1965년 개정 이민법의 통과로 인해, 미국은 이전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회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케네디의 동화주의는 미국의 전통적인 내이티비즘의 이론적 배경, 즉 친개신교적, 앵글로색슨적 성향이 미국에서 퇴색하는데 강력한 지렛대가 되었다. 케네디의 동화주의는 미국 백인의 정체성의 범주를 확산시키고, 타자화되었던 남동부 유럽 이민자들을 포용하게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1965년 개정 이민법이 서반구와 동반구에 인종적 차별 없이 공평한 쿼터를 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케네디의 동화주의는 ‘동화주의적 한계’로 인해 개정 이민법 통과 이후 미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다문화주의 담론을 포용하지는 못하였다. 케네디의 동화주의는 국적기원법의 원칙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였으며, 이민 개혁에 보수적이었던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의회 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성공적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변화를 포용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이다. 케네디는 자신의 저서에서 동화의 대상을 유럽인들에게 한정시키지는 않았으나, 미국 진보의 역사를 ‘용광로’와 등치시킴으로써, 타자화된 이민자들을 이민 담론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다. 또한 그는 모든 이민정책은 ‘동화주의’라는 단선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진보적인 의원들조차 1965년 개정 이민법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동화되기 쉬운 유럽 이민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동화되기 어려운 라틴 아메리칸인들을 법안에서 배제하였던 배경에는 그들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었던 케네디 동화주의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68) Horace Kallen, “Democracy versus the Melting Pot,” *The Nation* (February 25, 1915).
<http://www.expo98.msu.edu/people/kallen.htm>에서 재인용 (검색일: 2016년 5월 25일).

미국 의회는 동화주의적인 관점에서 20세기 초부터 진행되어왔던 문화 다원주의의 여러 가능성을 무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냉전 질서 속에서 의회는 이민정책 내의 유럽중심주의는 오히려 강화시켰다. 이러한 미국 의회의 판단은 1965년 개정 이민법이 가져올 실질적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실질적인 결과는 문화 다원주의의 가능성과 라틴 아메리카와의 경제적 협력이 이민에 미칠 여러 가능성을 대비하지 못한 준비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의도하지 못한 결과’라고 결론내린 기존 연구의 해석⁶⁹⁾은 여러 가능성을 계산하지 못한 의회의 실수를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결과였다. 그리고 의회의 준비하지 못한 개혁의 중심에 모든 미국의 이민사를 동화주의의 역사라고 해석한 ‘케네디 동화주의의 한계’가 있다.

서강대학교, adol0504@naver.com

주제어(Key Words):

1965년 개정 이민법(1965 Immigration Act), 케네디 대통령(President Kennedy), 새로운 동화주의(New Assimilation), 냉전과 진보주의(Cold War and Liberalism), 이민자의 나라(Nation of Immigrants), 네이티브리즘(Nativism)

(투고일: 2016. 10. 23, 심사일: 2016. 11. 05, 게재확정일: 2016. 11.14)

69) 1965년 개정 이민법을 의도하지 않은 개혁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 법안에 대한 미국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David Reimers, "An Unintended Reform: The 1965 Immigration Act and Third World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3-1(1983), pp. 9-28; Douglas Massey and Karen Pren, "Unintended Consequences of US Immigration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1(2012), pp. 1-29.

<국문초록>

케네디 동화주의의 양면성과 1965년 개정이민법의 한계

임 현 식

본 논문은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의의와 한계를 케네디 대통령의 동화주의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케네디 대통령의 주장하였던 동화주의를 분석하였으며, 그의 동화주의가 1965년 개정 이민법에 관한 미국 의회 내의 토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는데 집중하였다.

1965년 개정 이민법은 북서유럽 국가들에게 대부분의 이민 기회를 제공하였던 국적기원법의 쿼터 원칙을 폐기하고, 이민의 문호를 모든 국가에 개방하였던 법안이다. 개정 이민법안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연간 이민 쿼터를 서반구에 12만명, 동반구에 17만명을 부여함으로써, 유럽 외 대다수 지역에 이민 쿼터를 부여하지 않았던 국적기원법의 원칙을 폐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적기원법의 인종차별주의적인 요소를 철폐하고, 모든 국가에 이민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민 문호의 확장은 1970년대 이후 미국 다문화주의가 형성되는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65년 개정 이민법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는 보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법안이 서반구와 동반구에 이민 쿼터를 동등하게 부여함으로써, 이민의 문호를 모든 국가에 확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이민 개정안은 ‘가족초청이민’을 이민의 우선순위로 배정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럽 이민자들의 가족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 이러한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양면성은 이 법안을 ‘의도하지 않은 개혁’이라고 평가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케네디는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양면성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1958년 메사추세츠 주의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며 국적기원법의 원칙을 정치인 가운데 최초로 비판하였으며,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청사진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개정 이민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또한 그가 주장하였던 ‘새로운 동화주의’는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양면성, 즉 이민의 쿼터를 모든 국가에게 확장한 진보성과 이민의 우선순위를 유럽출신의 이민자들에게 부여하였던 보수성을 분석하는 데에도 대단히 유용하다. 케네디의 동화주의는 이민의 문호를 모든 국가에게 확장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진보적인 성격과 미국 이민사를 ‘하나의 문화’로 동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보수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케네디의 동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과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양면성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1965년 개정 이민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Abstract>

Ambilaterality of Kennedy's New Assimilation and Limit of
1965 Immigration Act

Lim, Hyunsik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1965 Immigration Act through President Kennedy's New Assimilation. In order to analyze this view point, this study examine President Kennedy's New Assimilation with its influence of United State Congress' debate on 1965 Immigration Act.

1965 Immigration Act repealed the principle of National Origins Act which provided most of immigration opportunities to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Nordic Countries. especially Nordic Countries. Moreover, 1965 Immigration Act provided annual Immigration Quota both to Western Hemisphere Countries and Eastern Hemisphere Countries: 120,000 annual quota to the Western and 170,000 to the Eastern. This act consisted with liberal characteristics of repealing racial discrimination elements of National Origin Act, and extended immigration opportunities to all country. Therefore, 1965 Immigration Act provided practical turning point of racial and cultural changes in United States after 1970s.

However, 1965 Immigration Act was consisted with conservative articles as well in closer analysis. Although 1965 Immigration Act expanded immigration to all nation by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to Western Hemisphere Countries and Eastern Hemisphere Countries, this Act also gave immigration priorities

to 'family reunification immigration' which provided better immigration opportunities to families of European Immigrants who possessed United States Citizenships. This ambilaterality of 1965 Immigration is primary reason why this Act is considered as 'unintended reform'.

President Kennedy is an fundamental agent on understanding ambilaterality of 1965 Immigration. When he was a Senate in Massachusettes in 1958, he was a first politician who criticized National Origin Act. He also provided blueprint of 1965 Immigration Act when he served as president. His 'New Assimilation' is primary factor to analyze ambilaterality of 1965 Immigration which consisted with liberal characteristics of expanding immigration quota to all nation and conservative characteristics of giving better immigration opportunities to European Immigration. Kennedy's New Assimilation includes both liberal characteristic and conservative characteristic. It justifies the reason to expand immigration to all country but also explain U.S immigration history as an process of assimilating into 'singular culture'. Therefore, analyzing interrelation between ambilaterality of Kennedy's New Assimilation and ambilaterality of 1965 Immigration Act is a crucial subject on understanding 1965 Immigration Act.

■ 서평 ■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 *곽차섭 역*,
『책략가의 여행: 여러 세계를 넘나든 한 16세기
무슬림의 삶』, 푸른역사, 2010.

신 원 민

나탈리 데이비스는 『책략가의 여행』에서 16세기 그라나다에서 태어난 한 무슬림 남성 - 알하산 알와잔, 요안네스 레오, 조반니 레오네, 레오 아프리카누스 혹은 유한나 알아사드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이하 알와잔) - 의 삶을 조망한다. 그의 이력은 다음과 같는데, 1486-1488년 그라나다에서 출생하여 파스에서 자라났고, 장성한 이후에는 파스의 술탄 무함마드 알부르투갈리의 외교관으로서 봉직하며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였다. 카이로에서 파스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있던 1518년 기독교도 해적에게 납치되어 교황 레오 10세에게 바쳐졌다. 1520년 기독교도로 개종하여 이탈리아에서 사전의 편찬에 참여하거나 기독교도들에게 아랍어를 가르치고 지리지를 쓰는 등의 일을 하다가 1520년대 후반-1530년대에 이르러서는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 튀니스에 거주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

알하산 알와잔의 삶은 분명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고, 『책략가의 여행』 서문에 나열된 계열사 연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이들과는 달리 독특한 관점을 통해 알와잔의 삶을 재구성했는데, 그 방식은 그녀의 또 다른 저작인 『마르탱 게르의 귀향』이나 『주변부의 여성들』 등에서 보이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 방식이란, 기존의 관점에 따르면

역사 서술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범상한 개인이나 사건 한 가지에 천착하고 주의 깊게 독해하여, 그 미시적인 단계의 관찰을 통해 새로운 역사상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알와잔 역시 그녀가 다루었던 기존의 주인공들과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가 주변부에 위치했던 인물,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는 개종을 반쯤 강요받은 전 무슬림이었던 기독교도에서 배교를 가장했던 이슬람교도로 위험한 줄타기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기존 저작들에서 다루었던 여성들이 여성들에게 억압적이었던 근대 유럽에서 살아남고 이득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취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비스는 위험한 기독교 세계에 홀로 떨어진 무슬림이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책략’을 구사해야 했음을 강조한다.

『책략가의 여행』(이하 『책략가』)이라는 제목은 곧 기독교 세계에서는 개종한 이교도로서 무슬림 세계에서는 가짜 배교자로서 의심의 눈초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구사해야 했던 알와잔의 환경을 지칭하고 있다. 데이비스는 알와잔을 양서조에 비유한다. (pp. 166-167) 알와잔이 ‘책략과 날조’를 통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이 양서조는 필요할 때는 새, 필요할 때는 물고기가 되면서 자신이 치러야 하는 희생을 회피하고 이득만을 얻는다. 알와잔이 남긴 텍스트를 독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그 텍스트들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어 있는 침묵이다.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떤 것에는 침묵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탐구하는 것을 통해 데이비스는 두 적대적 세계를 위태롭게 오가던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지 읽어내고자 한다.

『마르탱 게르의 귀향』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¹⁾에서 데이비스는 자신이 흥미 본위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르탱 게르의 사건을 16세기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책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데이비스는

1) 논쟁에 관해서는 콕차섭 편,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0에 실려 있는 핀레이, “마르탱 게르 다시 만들기”와 데이비스, “절름발이에 대하여”를 참조.

『책략가의 여행』을 통해 알와잔을 “16세기 북아프리카 사회, 즉 …[다양한 인종]… 들이 거주하고 있고 경계에서는 유럽인들이 발호하고 있던 그 사회” 속에서 읽어내고자 한다. (P.33) 알와잔은 그의 일생을 연구하기에 충분한 양의 자료를 남기는 행운을 누리지는 못했다. 그의 삶은 다른 사람보다는 그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남긴 몇 권의 저작 속에만 단편적으로 들어 있고, 마지막 발자취도 1532년 튀니스에서 무슬림으로써 살고 있다는 짙막한 언급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그 얼마 없는 텍스트들과 기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재구성하고, 나아가서 그가 살았던 세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작업은 ‘가능성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으며, 데이비스 자신도 몇백 년 전 기독교 세계에 잠시 머물렀던 무슬림의 삶을 정확히 복원해내는 데에는 크게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책략가』에서 데이비스가 택한 역사 서술적 접근방식, 다시 말해서 미시사(Microhistory)로 분류될 수 있는 역사서술의 상당수가, 널리 퍼진 오해에도 불구하고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이 말이 데이비스가 알와잔의 행적을 추적해나가는 데 있어 정확성과 진실성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 그녀가 600여쪽의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결론적으로는 알와잔이 택했을 법한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16세기 기독교 지중해 세계와 이슬람 북아프리카 세계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책략가』의 기본 골조는 알와잔의 인생 역로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1-2장은 이탈리아로 끌려와 개종한 뒤 책을 쓰기 전까지의 알와잔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이후의 장에서 알와잔이 택하게 된 태도의 기반이 어떤 것이었는지 짙막하게 제시된다. 3-6장은 알와잔이 남긴 텍스트에 대해서, 7-9장은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취사선택되었던 ‘전략’에 대해 다룬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알와잔의 텍스트는 『아프리카 우주지리지』(이하 『지리지』)이다. 이 책은 알와잔이 유럽 기독교 세계에 있는 동안 행했던 저술 활동의 총집합이며, 아랍인이 기독교도 독자를 대상으로 아랍 세계에 대해서 설명한 희귀한 예이기도 했다.

자연히 다양한 판본으로 번역되어 널리 퍼졌으며, 그 판본간의 차이점이 『지리지』와 그 저자인 아랍 학자, 대상인 이슬람 세계를 16세기의 유럽 세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무언가를 쓰는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신의 표현이다. 『지리지』에서 묘사된 아프리카는 알와잔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으로서 이슬람 지식체계 내에서 사고되어 오던 지역이었고, 이는 유럽인들의 전통적 인식인 ‘세계의 세 번째 부분’으로서 신화적이고 야만적인 영역인 아프리카와는 구분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 세계에 대한 언급에서도, 알와잔은 자신의 책이 (그 이슬람 세계를 적대시하는) 기독교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이고 애매모호한 서술 태도를 취하며, 그것은 자신이 개종한 혹은 개종을 가장했던 기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리지』에서 이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문장은 단 두 가지인데, ‘쿠란에 나오는 예언자 무함마드(무카메토)의 우매함에 따르면, 그리스 왕 알렉산드로스는 예언자이자 왕이었다’와 바로 몇 페이지 뒤에 나오는 ‘이슬람이라는 역병’이 퍼지고 있다는 언급이 바로 그것이다. 이 구절은 데이비스에게 많은 의문점을 선물했다. 『지리지』에서 이슬람에 대한 공격이 드문 것은, 이 책을 쓰는 시점 알와잔이 비교적 무탈하게 기독교 세계에 안착했기 때문인가? 이슬람은 호의적으로 서술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점이 부각되도록 서술되지도 않았으며, 이것은 아마도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경전의 민족(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로 묶이는 관계였기에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꽤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데이비스는 이 범주 하에 분류되지 않는 많은 이신교나 무속신앙에 대한 가혹한 평가들 또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알와잔이 개종자로서 더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면, 아마 이슬람에 대해 이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매한 무함마드’, ‘이슬람이라는 역병’은 어떤 관점에서 출현한 단어인 것인가?

데이비스는 우선 타키야[가장假裝]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기독교의 개종 압력이 가해지던 1504년 마그레브의 한 법학자가 이미 타키야를

사용해도 좋다는 파트와(율법적 결정)를 반포한 바 있었던 것이다. 타키야란, ‘강제적 상황 하에서 믿음과 종교적 관습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예방적 가장의 행동들’이다. 곧 압력 하에 기독교도로 개종하고, 무슬림의 관습을 지키지 않고 대신 기독교도적인 행동을 하게끔 강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슬람의 믿음을 내적으로 간직하고 있다면 괜찮다는 것이었다. (p. 277) 알와잔이 자신의 행동을 타키야로 인식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지리지』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침묵과 은폐도 그러하거니와, 그는 결국 투니스(튀니지)로 돌아가 무슬림으로서 여생을 보낸 정황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와잔이 지중해에서 보낸 시간 모두를 타키야라고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분석이다. 만일 그렇다면 왜 알와잔은 풀려난 뒤 곧바로 북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고 이탈리아에서 한동안 가족을 꾸리며 살았는가? 왜 무슬림으로 돌아간 뒤 투니스에 살면서는, 이탈리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행하지 않았을까?

데이비스가 그려낸 알와잔은, 타키야라는 가면을 쓴 무슬림이라는 단순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아니라 위험하게 두 세계를 오가며 복잡한 내면을 가지게 된 인물이다. 알와잔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 데이비스가 가장 특징적으로, 또 자주 인용하는 것은 알와잔이 책 내에서 창안한 양서조의 이미지, 곧 자신의 이득을 따라 자유롭게 입장을 변화시키는 새의 이야기다. 그러므로 배타적인 무슬림 신앙, 혹은 기독교 신앙의 옹호자라는 “경직된 이분법”을 통해서 알와잔을 제대로 설명해내기란 어렵다. 알와잔은 이슬람 전통 안에서 성장하여 이탈리아어로 책을 쓸 때에도 그 관습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학문적 연결고리를 중요시하는 이슬람적 전통에서 유리되어서, 유럽 세계에서는 기존에 만나지 못했던 보다 폭넓은 학문 세계와 접촉하여 생활할 수도 있었다. 알와잔이 기독교도 해적에게 나포된 뒤 투니스로 돌아가기까지 기독교 세계에서 보낸 약 10여 년간의 기간은, 단순히 숨죽여서 배교를 가장하고서 이슬람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지만 했던 기간은 아니었다.

나포되기 전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한 1장과, 이탈리아를 탈출한 알와잔의 튀니스에서의 생활을 재구성한 9장을 제외하면, 데이비스는 전반적으로 알와잔이 겪었던 16세기 이탈리아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말했던 데로 알와잔이 살았던 16세기 이탈리아는 단순히 이슬람을 배격하는 기독교적인 색채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당시의 기독교 유럽 세계를 보다 혼돈적이고 다채로운 경험이 산재해 있었던 세계로서 보고자 하는 것은 데이비스가 그 이전의 저서들에서부터 계속해서 추구해 오던 테마이다. 알와잔이 살던 시기 이탈리아에는 그와 비슷하게 나포되어 유럽 세계로 왔으며, 중국에는 다시 이슬람 세계로 탈출한 파키가 있었다. 더불어서 알와잔은 그에게 세례를 준 세 명의 대부 추기경을 위시한 많은 이탈리아 고위 관료들과 교류함과 동시에, 유대인 랍비인 엘리아레비타 등에게서도 이탈리아 적응을 위한 도움을 받았다. 알와잔이 경험한 것으로 데이비스가 그려낸 세계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뒤섞여서, 서로가 서로를 독특한 방식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바로 그러한 세계였다.

그녀는 동시에, 알와잔의 생애를 이런 방식으로 읽어내고자 하는 학문적 계기가 한 비유럽계 프랑스 이민자와의 만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에 대한 이방인의, 혹은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의 적응전략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을 한 편의 목적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p. 32)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데이비스는 『지리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알와잔의 책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수 세기에 걸쳐 그것에 접하게 된 학식 있는 수많은 독자들에게는 폭력으로 분열된 세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소통과 호기심의 가능성을 증언”하는 책이었다고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다. (p. 397) 알와잔이 점유하고 있던 이방인으로서의 불안한 위치가, 오히려 그가 남긴 텍스트 하에서는 소통의 가능성으로써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알와잔 같은 사람들이 기존 역사학의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은

『책략가의 여행: 여러 세계를 넘나든 한 16세기 무슬림의 삶』

무엇보다도 사료의 부족 때문이었다. 알와잔이 제대로 남긴 것이라고는 『지리지』를 비롯한 몇 편의 텍스트뿐이고, 그의 생애는 거의 남은 것이 없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데이비스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일견 알와잔과는 크게 관련 없어 보이는 다른 자료들에서부터 연결고리를 찾아내고자 했다. 이 방법에도 물론 취약점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논쟁 이후로부터 쪽 미시사를 따라오는 역사의 허구성이나 불정확성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책략가』에서 중심이 되는 세계가 알와잔의 출신인 북아프리카라기보다는 그가 10년을 살았던 근대 이탈리아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책략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알와잔의 생애나 그의 텍스트를 통한 두 세계간의 소통이라기보다는, 근대 유럽 세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양서조적인 아랍 학자를 수용했는지 또는 알와잔이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 유럽 세계에서 살아갔는지에 대한 것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와잔의 생애와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데이비스의 방식이 어떤 시사점을 남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적으로든 인종적으로든, 혹은 어떠한 범주 하에서건 비주류의 위치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기록에 남기기란 어려운 일이며 그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자연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 문자자료 속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이들의 주체성(Agency)과, 그 주체성이 발휘될 수 있었던 복잡하고 혼란한 세계를 쫓는 데이비스의 역사서술방식의 중요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성균관대학교, special630@nate.com

■ 서평 ■

Antoine Sabbagh, *Lettre de Drancy*,
Paris, Seuil, 2002.

김 경 민

I

한 손으로 충분히 쥐어지는 크기인 작은 책의 표지에는 어떤 표정인지 알 수 없는 여섯 사람들의 사진들이 놓여 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기도 힘든 사진들 밑으로 마침표와 쉼표 사이사이 마다 쓰인 숫자들은 출생연도로 추정된다. 이 사진들과 숫자의 연관성을 생각하며 안의 내용을 짐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책은 바로 유대인 수용소에 억류되어있던 사람들이 남긴 편지 모음집이다. 2002년에 제작된 책으로 총 36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8개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편지 모음집 안에는 관공서로 보낸 “공적 편지”들과 개인적인 주변인한테 보낸 “사적 편지”들이 어우러져 있다.

편지들은 벨디브(Vél d'Hiv)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벨디브 사건은 일명 “동계경륜장의 대검거(la rafle du Vélodrome d'Hiver)” 라고 불린다. 1942년 7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의 유대인들을 검거하기 위해 벌였던 나치 독일의 “봄바람 작전(l'opération de vent de printemps)”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비시정부가 약 7000명 이상의 프랑스 경찰을 동원하여 파리와 파리 근교 지역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검거하여 동계경륜장(Vélodrome d'Hiver)에 집결시켰던 것을 말한다. 7월 16일, 17일 이틀 사이에 13,152명의 유대인(3,118명의 성인남성, 5,919명의 성인여성과 4,115명의 아이들)이 체포되었다. 이전 검거 과정과는 달리 처음으로 성인 남성 이외에 여성, 아이, 노인들도 포함되었다.¹⁾ 이들은 이후 드랑시 수용소(Camp de Drancy)에 수용되었다가, 대부분 아우슈비츠(Auschwitz)에서 희생된다.

발신지가 동계경륜장이라고 언급된 편지들은 연행된 유대인들이 열악한 환경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어떤 이는 음식물과 갈아입을 옷을 챙겨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음식의 배급이 매우 부실했음을 주변 친지에게 알리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아주 갑작스럽게 연행되고 수감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942년 7월 16일-17일에 걸친 유대인 검거를 통해 이들을 체포하고 경륜장에 수용한 주체는 독일군 병사나 게슈타포가 아니라 전적으로 프랑스 경관과 헌병이었다. 이것을 통해 비시정부가 철저히 대독협력정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총 92개의 사적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그중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형제 등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7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수신자가 친구로 표시되어 있는 4통의 편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의 분류하기 애매하지만 집주인, 자신이 다니던 학교 등에 보내는 편지가 모두 11개가 있다. 이 편지들은 공통적으로 관공서에 비해 자신이 처한 주변 이야기와 감정에 치중한 것들이 많다.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심정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엄마와 귀여운 여동생에게
나는 엄마와 여동생에게 말하기 위해 공식적으로(officielle) 처음
엽서를 써요. 난 건강도 양호하고 정신상태도 멀쩡해요. 아버지 와
있으면서 같은 침대를 사용하고 함께 잠을 자요. 아빠와 나에게

1) 이용우, 「벨디브(Vél d'Hiv)의 기념 : 비시 공화국, 프랑스(1992-1995)」, 『이화사학연구』, 48집(2014), 273쪽.

15일마다 편지를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소포에 내 이름을 잘 써서 넣어주세요. 소포를 들고 직접 올 수도 있어요. 전체 주소를 또박또박 적어야 할 거예요. 담배는 금지 물품이지만 돌아갈 때를 위해서 챙겨 와도 돼요. 음식물도 금지물품이에요. 그리고 담요를 보내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점점 추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캠핑 가방 안에 말한 모든 것들을 넣어서 나한테 부쳐주세요. 내 기관지를 위한 약초 상자를 보내줘요. 화장실에 가기 위해 검은색 알약을 보내줬으면 해요. 나는 당신을 힘껏 포옹하고 싶어요.²⁾

이 편지는 가족에게 보내는 대표적인 편지로 수용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드랑시 수용소의 환경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편지 첫줄에 나타난 “공식적으로(officielle)” 라는 표현이 가족들에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고 하기에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표현은 수용소의 통제 상황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듯 하다. 편지를 쓴 주인공은 1941년 8월 20일 당시 21세의 나이로 체포되었다. 드랑시 수용소에서 1941년 9월부터 1943년 6월 까지 22개월 동안 수용되어 있었으며 1943년 6월 23일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그러나 절멸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1995년 2월에 사망하였다.

II

관공서나 고위관료에게 보내진 공적편지는 총 36개이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편지는 유대인문제총국(Commissariat Général aux Questions Juives, CGQJ)으로 보내진 편지이다. 수신인이 유대인문제총국으로 표시된 편지는 총 9개가 있으며, 이 반유대주의 기구의 장(長)이었던 자비에 발라(Xavier Vallat)와 루이 다르키에 드 펠푸아(Louis Darquier de Pellepoix)에게 그들의 재임기간 동안

2) Antoine Sabbagh, *Lettres de Drancy* (Paris: Seuil, 2002), p. 27.

각각 5통과 2통의 편지가 보내졌다. 유대인문제총국은 프랑스의 비시정부 하에서 유대인 문제를 전담하던 부서였다. 유대인의 검거부터 절멸정책까지 가는 동안 전적으로 프랑스 관리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 기구는 유대인의 지위에 관한 법을 통해 유대인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관련된 여러 부서들과의 조율을 담당했으며, 유대인 재산의 관리와 청산을 비롯해 모든 치안 조치를 주도하였다.³⁾

이 공적 편지들 속에서 드랑시 수용소(Camp de Drancy)에 보내진 편지 3통을 찾을 수 있다. 이 수용소는 절멸수용소로 가기 전 프랑스에서 검거된 유대인들을 억류하던 곳이다. 특히 1941년 5월부터 파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대인들을 검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1942년에는 벨디브 사건으로 검거된 유대인들을 이곳에 대거 수용 하였다. 이곳은 현재 유대인 학살에 대한 비시정부의 책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물로 활용되고 있다.⁴⁾

자비에 발라와 루이 다르키에 드 펠푸아 외에도 제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비시의 행정체계의 수장이었던 필립 페탕(Philippe Pétain)에게 향하는 편지가 16통 있으며, 비시 정부 시절 4번에 걸쳐서 총리를 역임했던 라발(Pierre Laval)을 수취인으로 하는 편지가 1통이 있다.

자비에 발라씨에게.

난 당신에게 내 남편이 8월 21일 저녁 6시 30분에 볼로뉴(센느강)에 있는 마르셀-생바 지하철 역 출구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연행된 이후 나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체포되는 순간 경찰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계

3) 이용우, 「반(反)유대주의와 국가적 협력-독일 강점기 프랑스의 유대인 박해(1940-1944)」, 『서양사론』, 101호(2009), 134쪽.

4) 신동규, 「전쟁기념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 : 사건의 역사학 과정과 감정 동원 전략」,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감정의 정치와 국제관계 - 동아시아에서 기억 담론의 경험과 타협·화해 모색』, 2016년 10월 28-29일 창원대학교, 90쪽.

출신 프랑스인이라는 것 말고는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내 남편의 부모들은 스트라스부르 근처 비스캬에서 태어났고 1870년에 프랑스를 선택했습니다. 내 남편의 어머니 역시 비스캬 출신입니다; 친조부모의 경우 게브빌러 출신이고 이후 벨포트에서 살았습니다. 내 남편은 파리 11구에서 1897년에 태어났습니다. 1916-19년 동안 독일에서 포로생활을 했던 제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입니다. 그로부터 8년 보다 더 전에 그는 이시-레-몰리노 코드롱 르노에 고용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전쟁에 특별히 차출되었습니다. 내가 물어본 블로뉴 경찰서, 코드롱에서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만 대답했습니다. 점령당국도 코드롱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의무를 다하고 제 1차 세계대전에서 20살 나이로 죽은 동생이 있는 프랑스 시민으로 이러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에 놀랐습니다. 나에게 대해서는 가족은 (베리송) 프랑스인이고 아버지는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상이군인입니다.⁵⁾

이 편지는 자신의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하여 당시 대표적 관공서였던 유대인문제총국의 장(長)을 역임했던 자비에 발라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편지이다. 편지 내용에서는 자신의 남편의 행방을 물으면서 프랑스인으로서 남편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가족관계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남편의 부모가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이후 알자스-로렌지역이 독일에 합병될 때 프랑스 국적을 선택하고 프랑스 시민으로 살아오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덧붙여서 자신의 계보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아버지가 상이군인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프랑스 국가의 시민으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억울한 심정을 전하고 있다.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 이후에 1791년부터 유대인에게 시민권을 지급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잘 동화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5) Antoine Sabbagh, *Lettres de Drancy*, pp. 28~29.

평가”를 받았다.⁶⁾ 유대인에 대한 거부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을지라도 프랑스 사회 내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고 19세기 중반부터는 다른 프랑스인들과 법적으로도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⁷⁾ 당시 프랑스 내에 있던 유대계열 언론들은 프랑스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프랑스에 대한 조국애 표현하고 있었다.⁸⁾ 프랑스 사회 내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가고 있다고 믿었던 과정에서 유대인이 느끼게 되는 배신감은 상당했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III.

이 편지 모음집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지금까지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먼저, 현재까지 이루어진 홀로코스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나치와 히틀러 등 가해자 중심이었다. 특히 나치즘과 전체주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가해자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김학이의 「홀로코스트 학살자들의 양심」, 「홀로코스트의 근대성」 등이 있으며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 연구로는 『히틀러 국가-나치 정책 혁명의 이념과 현실』(마르틴 브로샤드 저, 김학이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1), 『서양현대사의 블랙박스-나치대학살』(최호근 저, 푸른역사, 2006), 『파시즘의 대중심리』(빌헬름 라이저 저, 황선길 옮김, 그린비, 2006) 등이 있다. 또한 김학이의 『나치즘과 동성애 : 독일의 동성애 담론과 문화』(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13)는 나치즘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 주제가 다변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히틀러의 정책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진모의 「나치의 일자리 만들기와 재무장 : 그 신화의 비극」, 김학이의 「나치즘의 근대화 - 경제부문을 중심으로」와 「나치스 군수 정책과 대기업」, 권형진의 「나치 독일의

6) 신형선, 「프랑스의 반유대주의 정서와 비시정부의 반유대정책」, 『역사학 연구』, 55호(2014), 198쪽.

7) “more judaico” 라고 불리는 차별적 절차들이 1846년에 최종 폐지되었고 유대인들과 프랑스인들은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8) 신형선, 「프랑스의 반유대주의 정서와 비시정부의 반유대정책」, 198쪽.

도시건설 프로젝트 : 베를린·뮌헨·뉘른베르크 중심으로」 등의 연구가 대표적인 논문들이다.

최근 기억의 문제에 대한 역사학의 관심이 보여주듯, 홀로코스트를 기념·기억하는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비롯된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연구주제로 자리 잡았다. 최호근은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그는 「미국에서의 홀로코스트 기억변화」, 「집단기억의 역사」,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억과 역사 만들기」 등의 연구를 통해 홀로코스트의 기억과 기념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장했다. 또한 이용일의 「독일-폴란드 관계정상화를 위한 “감정의 정치” : 바르샤바 조약과 브란트의 크니팔」은 감정과 기억, 기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억·기념의 문제는 역사교육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구되고 있다. 최호근의 「기념시설을 활용한 역사교육 : 독일의 경험에 대한 검토」와 권영임의 「제노사이드 백신으로서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이다. 홀로코스트를 과거사와 역사교육 문제로 접근한 연구로는 최호근의 「부담스러운 과거사 교육의 효용과 전략 : 독일·이스라엘·미국의 홀로코스트 비교」, 김희영의 「나치시대 독일의 역사 교육과 그 문제」, 한해정의 「독일 역사 교과서에서 나치시대에 관한 서술 분석 : 집단 박해 및 학살을 중심으로」와 「독일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나치 독재와 홀로코스트」 등이 있다.

또한, 홀로코스트를 제노사이드 범주 안에서 보려는 연구 경향이 있다. 최호근은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 제노사이드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토」와 『제노사이드 : 학살과 은폐의 역사』에서 제노사이드의 역사성 안에서 홀로코스트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연구들이 국내외의 대량학살 사건들과 비교하면서 홀로코스트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체주의와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중심이 가해자에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

범위 확장의 방법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역사서술이다. 홀로코스트에 대해 더욱 다양한 소재로 재구성 가능해지려면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관점을 더욱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프리모 레비의 자서전들은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레비가 쓴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나 『만약 이것이 인간이라면』 등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또한 김용우의 「프리모 레비의 회색지대」나 「나치 집단수용소와 생병정치-프리모 레비와 조르조 아감벤의 논의를 중심으로」는 이러한 피해자의 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홀로코스트와 전체주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윤영 「초국적 이방인의 보호받지 못한 삶과 죽음 : 나치 수용소 유대인 생존자들의 글을 중심으로」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여기서 이 편지 모음집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피해자의 생생한 기록들이 중심이 되어 또 하나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모습들이 풍부해진다. 더불어 홀로코스트, 제 2차 세계대전 등 관련된 연구에서도 새로운 관점과 다른 모습들로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홀로코스트 피해자 중심의 역사서술은 더 큰 연구사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 중심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창원대학교, kmlove387@naver.com

호모미그란스 휘보

I. 연구회 일정

■ 2014년 하반기 콜로키움

- 일시: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한성대학교 미래관 소회의실
- 발표
발표1. 조원(서울대), 몽골제국시기 色目人들의 중원 이주와 정착
발표2. 야마토 유미코(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일본시민에 의한 조선 인을 위한 추도비건립운동 : 야마구치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사례로
통역 : 한혜인 (성균관대)
발표3. 김진영(서강대), 프랑스 1927년 국적법을 통해 본 인구증진 담론과 외국인 혐오다

■ 2014년 학술대회

다문화 사회와 시민성: 탈경계 시대의 국민국가와 이주자의 권리

- 일시: 2014년 12월 19-20일
- 장소: 창원대학교 글로벌다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단 강의실

개회사 (12월 19일 13:00-13:20)

사회: 신동규(창원대)

축사: 이찬규(창원대 총장)

제1부: 국민국가의 경계와 이민자 (12월 19일 13:20-18:20)

사회: 박현숙(서강대)

1. 신동규(창원대) - 국민경제부흥과 이주노동자의 필요성 : '영광의 30년'의 노동력

2. 박단(서강대) - 탈식민화와 새로운 '프랑스 국민'의 정의: 알제리인의 유입과 국적법의 변화

3. 문종현(한양대) - 국민국가와 집시: 19-20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4. 홍용진(고려대) - 국적과 인권: 1932년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의 한인들

토론: 임승휘(선문대), 김용우(한국기술교대), 이용일(대구교대)

제2부: 이민 소수자의 권리와 사회평등을 위한 교육모델의 탐색 (12월 20일 09:00-12:00)

사회 문경희(창원대)

1. 윤용선(한성대) - 인종주의 극복을 위한 서양사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2. 박단(서강대) - 신인종주의 극복을 위한 현대사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3. 문종현(한양대) - 탈자문화중심주의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4. 홍용진(고려대) - 역사 속 이주를 통한 국제교류 증진 사례 소개의 필요성과 교수법

5. 이찬행(성균관대) - 인종차별 사례 및 처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6. 오영인(성균관대) - 이민자의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제3부: 이주와 통합의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 (12월 20일 13:30-17:00)

사회: 양재혁(중앙대)

1. 이찬행(성균관대) - 192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의 귀화 판례에 대한 검토: 담론적 실재로서의 백인성

2. 오영인(성균관대) - 미국 이민 행정관료주의의 역사적 기원: 전간기 이민국의 자율성확대와 이민자들

3. 윤용선(한성대) - 이주민 통합에 있어 문화와 경제의 의미: 독일 터키 이주민을 중심으로

☞ 토론: 황혜성(한성대), 권은혜(한양대), 이민경(서강대)

4부 종합토론 (12월 20일 17:00-17:30)

사회: 박지현

폐회사

사회: 신동규(창원대)

폐회사: 박단(이주사학회 회장)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주사학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과 범위

1. 이 규정은 본 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회에서 주관·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이민인종연구”(가칭)의 투고원고이다.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와 편집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 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 원 과반수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4주 이내 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 사항은 확정되고, 연구회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 다.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 다. 재 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반복·경감할 수 있다.
6.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허가하지 않 는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사 실을 공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연구회 연구 활동 참여 를 3년 동안 금지한다.

제5조 위반사태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가 3년 이 상 금지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호모 미그란스』 투고 규정

2012년 6월 14일 개정

제1조: 원고의 투고

1.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투고원고는 컴퓨터 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아 한글’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투고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가불가능하다.
 - 2) 서평의 경우, 각주를 포함한 투고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에 3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 제목은 로마 숫자(I, II, III...)로 하며, 절 제목은 숫자(1,2,3)으로 한다.
위치는 맨 왼쪽에 둔다.
3.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서양 인명은 처음 나올 때 1회에 한해 full name으로 쓴다.

(예) 인명 - 에릭 홉스봄(Eric Hobsbaum)

(예) 책명 - 『사회과학사전(Dictionary of Social Sciences)』

2)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1) “ : 인용

(예) 그는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 : 강조 또는 재인용

(예) “르네상스와 ‘시민적 휴머니즘’”; ‘프랑스 사노당(FTSF)’

(3) 『 』 (전각기호) : 문헌, 저서, 신문 등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4) 「 」 (전각기호) : 논문

(예) 홍길동, 「1930년대 독일 노동조합」

(5) · (가운데 점) : 동일 사항의 나열

(예)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6) 진한 글씨 : 인용문에서의 강조

(예)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표어는 자유, 평등, 우에이다.

(7) 영화명, 미술작품명 등은 < > 로 표기한다.

3)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기호 √ 는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1) 인용 문헌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에서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관사의 경우도 처음에 오는 경우는 대문자로 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문헌의 경우 ed., 대신 dir., hg., 을 쓸 수 있다. 부제가 있는 경우 : (콜론)을 사용한다(예3).

2) 서양어, 동양어, 한국어 모두 인용 문헌의 페이지 수는 표기하지 않는다. (예1) 홍길동√편,√ 『서양사강의』 √(서울:√길동출판사,√1992),√12.

(예2) 홍길동,√ 「그리스인의√역사서술」,√허균√편,√ 『서양고대사√강의』 (서울:√길동출판사,√1996),√12.

(예3) Gary√Kates,√ed.,√The√French√Revolution:√Recent√Debates√and√New Controversies
√(London√&√New√York:√Routledge,√1998),√12.

(예4) J.√S.√Morrill,√”The√British√Patriarchy?√Ecclesiastical√Imperialism√under√the√Early√Stuarts,”√A.√Fletcher√&√P.√Roberts,√eds.,√Religion,√C

- ulture,√and√Society√in√Early√Britain√(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94),√12.
- 3)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된 논문은 「 」(반각기호)안에, 단행본은 『 』(반각기호)안에 제목을 넣는다.
 (예1) 홍길동,√「호레이쇼√얼저와√성공신화」,√『미국사연구』,√4집√(1996),√12.
 홍길동,√『프랑스√근대사√연구』√(서울:√길동출판사,√1998),√12.
 (예2) 木畑洋一,√『帝国のたそがれ:√冷戦下のイギリスとアジア』√(東京:√東京大学出版会,√1996年).
 (예3) 草光俊男,√「東アジアの構築:√表象空間の発見と近代ドイツと日本」,√『史学雑誌』,√3号√(2004).
- 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한글타자용)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 5) 단행본의 경우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지명: 출판사, 연도)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Paul√Tillich,√Systematic√Theology,√3√vols.√(Chicago:√Chicago√University√Press,√1951),√9.
 (예2)Michel√Vovelle,√La√Révolution√contre√l'Eglise-De√la√Raison√à√l'Être√Suprême√(Paris:√Gallimard,√1988),√12-13.
 (예3)Michael√Schneider,√Streit√um√Arbeitszeit.√Geschichte√des√Kampfes√um√Arbeitszeitverkürzung√in√Deutschland√(Köln:√Suhkamp,√1984),√15.
-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름, 성,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 권수 (연도), 인용 페이지 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James√Eayrs,√”The√Political√Ideas√of√the√English√Agrarians”,√Canadian√Journal√of√Economic√and√Political√Science,√18-3(1952),√287.
 (예2)Serge√Bianchi,√”Les√Curé√Rouges√et√la√Révolution√Française,”√Annales√Historiques√de√la√Révolution√Française,√249(1982),√364.
 (예3)J.√Kocka,√”Zurück√zur√Erzählung?√Plädoyer√für√Historische√Argumentation,”√Geschichte√und√Gesellschaft,√10(1984),√395-408. z
- 7)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1) 바로 앞의 것인 경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경우: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서울:√길동출판사,√1998),√13. - 홍길동,√같은√책,√25. 서양어(西洋語)의 경우: Ibid 로 표시한다.

(예) 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he√Language√of√Labor

√from√the√Old√Regime√to√1848√(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80),

√120.

- Ibid.

- Ibid.,√130.

(2) 바로 앞의 것이 아닌 경우

op. cit., loc. cit., 혹은 ‘앞의 책’, ‘전계서’, ‘상계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다.

(예1) 홍길동, √『서양의√지적√전통』 √(서울:√길동출판사,√1998),√13.

→ 홍길동, √『서양의√지적√전통』,√15.

(예2) 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he√Language√of√Labor√

from the√Old√Regime√to√1848√(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80)

,√120.

→ 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122.

8) 번역서의 경우, 역자, 번역서명, 출판사항만을 쓰고 원서의 명은 표기하지 않는다.

(예) E.√J.√Hobsbawm,√강명세√역,√『1780년√이후의√민족과√민족주의』 √(서울:√길동출판사,√1994), 30.

9) 웹 사이트 인용의 경우, 인용문의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예) <http://www.answers.com/topic/multiculturalism> (검색일: 2009년 11월 14일)

제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본 규정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호모 미그란스』 편집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제 1장 편집위원회

제 1조 (편집위원회) 본 연구회는 학술지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Homo Migran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 위원회를 둔다.

제 2조 (구성, 소집, 의결)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계획, 논문 투고 및 심사, 기타 원고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2장 투고

제 4조 (투고 자격) 원칙적으로 학술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비회원에게도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제 5조 (원고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글은 연구논문, 비평논문, 서평 및 기타로 한다.

제 6조 (원고작성요령) 투고 논문의 분량, 원고 작성상의 주의점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을 둔다.

제 7조 (학회지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온라인 저

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 또는 우편으로 본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의 수입은 본 연구회에 귀속된다.

제 3장 심사

제 8조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9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 1)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 2) 논문 주제의 독창성 및 학술적 가치
- 3) 논리전개의 명확성 및 문장 표현력
- 4)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여부
- 5)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제 10조 (심사 결과 및 판정) 심사결과는 A(게재 가), B(수정 후 게재 가),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 A: 게재

A, B: 게재

B, B: 수정 후 게재

A, C: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A,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B, C: 수정 후 재심사

B, D: 수정 후 재심사

C, C: 수정 후 재심사

C, D: 게재 불가

D, D: 게재 불가

제 12조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14조 (기타 원고 심사)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형식, 내용, 분량 등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제 4장 학술지 발행

제 15조 (발행자): 이주사학회 회장으로 한다.

제 16조 (발행횟수 및 일자): 연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 17조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